



9

1977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9호

(루게 359)



◆◆◆◆◆◆◆◆◆◆

## 차 례

◆◆◆◆◆◆◆◆◆◆

당정책을 더욱 민감하게 반영하자! .....	2
내 조국 .....	5
어머님께서는 오늘도 견고계십니다 .....	6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	7
잘 그리는데 필봉을 돌리자! .....	7
독창성과 개성화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는것은 .....	13
사회주의문학발전의 필수적요구 .....	13
백두산정에서 (외 1 편).....	17
장군님, 막내가 갑니다.....	18
나의 조국, 나의 평양! (외 1 편).....	19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품.....	20
위대한 그 사랑의 손길아래 .....	21
열풍 .....	22
검산령초소.....	31
해쫄는 먼 바다에서 .....	43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44
벼바다, 강냉이바다-사랑의 바다.....	45
새로 온 조리공 .....	49
내 마음 양떼 따라.....	58
밝은 눈 .....	59
이 땅에 넘치는 기쁨의 노래 .....	61
우리 나라 사회주의지상락원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 .....	62

## 당정책을 더욱 민감하게 반영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이 이룩되고있다.

천리마의 기세, 속도전의 일본새로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장엄한 로력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들끓는 전투적현실은 그에 맞게 문학의 교양적기능과 동원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의 동원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창작에서 당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는 당보의 사실과 같이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당보의 사실처럼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것은 영화뿐만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이 생활에 대한 선도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모든 근로자들을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중요한 전투적사명이다.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심려하시는 문제와 그 해결방도가 명백히 구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예술은 당보의 사실처럼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정확하고 민감하게 반영해야만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인민들을 교양하고 동원하는 선도적역할을 옹계 수행할수 있다. 당정책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면 우리 문학예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따라나갈수 없게 된다.

참으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동원적이며 교양적인 사명과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당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은 문학의 전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인 동시에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 정책은 언제나 현실생활에 토대하고있으며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은 곧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생활과 투쟁이며 우리의 현

실은 당정책이 빛나게 구현되여가는 혁명적현실이다.

그러므로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전형을 옳게 파악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직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현실에 대한 당의 혁명적립장과 과학적인 태도와 방법을 체득하여야만 우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고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할수 있다.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정책을 적극 구현하는것은 이와 같이 우리 문학의 선도적역할을 다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며 우리 문학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빨리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현시기 당정책을 문학작품창작에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충성의 열도를 가늠하는 첫째가는 징표로 된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교시가 빛나게 구현된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창작에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문학작품에 당정책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시기 특히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과 국가가 화력을 집중하고있는 분야에 필봉을 돌려야 한다.

수송전선과 농업전선, 채취공업과 기계공업, 전력공업과 수산업은 현시기 당과 국가가 큰 힘을 넣고있는 중요한 인민경제부문이다.

속도전의 북소리 온 강산에 울리며 《수송혁명200일전투》로 들끓는 수송전선에 나가보나 《사회주의애국탄증산투쟁》의 불길 타오르는 채취공업 부문에 나가 보나 《만풍년포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농업전선에 나가보나 《300일출어만선투쟁》에 펼쳐나선 수산부문에 나가보나 조국의 북단에서 분계선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 나가보나 지금 대비약, 대혁신, 대양양의 기운이 팽배히 흘러넘친다.

특히 땅이 생기고 농사가 시작되여 일찍 있어 보지 못한 만풍년의 작황을 보여주는 벼바다, 강냉이바다를 둘러보라.

눈뿌리 모자라게 아득히 펼쳐진 벼바다의 이삭 패는 소리며 포기마다, 이랑마다, 포전마다 층하가 없이 잘되고 한결같이 가쁘히 자란 강냉이바다의 설레임소리는 과연 무엇을 속삭이고있는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랭전선으로 인한 왕가물과 대열파, 무더기비로 농사를 망치고 식량위기를 겪으며 아우성치고있는데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협동벌에는 그 어디라없이 이와 같이 벼바다, 강냉이바다가 펼쳐졌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이 화폭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찬란한 서사시이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송가로 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탄복하며 부러워하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우리 작가들이 어찌 흥분하지 않을수 있으며 창작의 붓을 들지 않을수 있겠는가.

문제는 작가들이 당정책이 빛나게 구현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며 그들속에서 살며 창작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있다.

작가들은 웅당 현실에 나가서 당과 국가가 현시기 화력을 집중하고있는 인민경제부문의 생활에 더 낮을 돌려야 할것이다.

작가들은 인민경제부문의 거창한 생산투쟁이나 복잡한 생산정형을 취급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라렬할것이 아니라 생산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영웅적성격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작품에서는 기계소리나 함마소리보다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힘있게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당정책을 구현한 모든 작품이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중심에 내세우고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 당정책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시기 당사상사업분야앞에 나선 과업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적극 창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계속 힘있게 창작해야 한다.

현시기 당정책을 적극 반영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주체의 교육강령이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테제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주체의 작품을 적극 창작하여 모든 창작작업을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작품을 적극 창작해야 한다.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이 굳건히 서있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마련되어있으며 찬란한

민족문화가 꽃피어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는 행복의 요람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랜 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을 통하여 마련된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당정책을 책임적으로 관철하며 자기의 일터와 초소에서 맡겨진 혁명임을 성실히 수행할뿐아니라 공동로동에 잘 참가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이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공로를 세운 공화국영웅들과 로력영웅들을 비롯한 국가공로자들의 위훈을 적극 소개전전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문학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문학은 당과 조국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 특히 공화국영웅들과 로력영웅들의 생활과 투쟁을 적극 소개전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붉은 꽃을 계속 피우게 할뿐아니라 전체 인민들을 무비의 영웅적위훈으로 끝없이 불려일으켜야 한다.

우리 문학은 또한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오래동안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소문없이 큰 일을 한 참다운 애국자들의 숨은 공산주의적미풍과 소행을 적극 찾아내어 일반화하는데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당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커다란 공적을 쌓아가는 혁명의 주인다운 기풍,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집단적혁신을 이룩해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 남몰래 애국로동을 조국에 바쳐가는 소행,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를 꽃피운 미거들은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자랑스럽게 수놓고 우리 사회를 더욱 흥성거리게 하며 나라의 혁명적품모를 더욱 빛내이고있다.

우리 문학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들어나가겠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누가 보건말건 당정책관철의 한길에서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이러한 참다운 애국자들에 의해 우리 조국은 혁명적기상에 넘쳐 전진할수 있고 또 끝없이 룡성변영할수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며 온 나라에 공산주의적미풍이 더욱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질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형상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세차게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우리 문학작품에 당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편소설과 서정시, 수필, 실험, 방문기, 기행문... 등과 같은 전투적인 형식의 작품들을 적극 창작해야 한다. 문학작품의 참다운 가치는 결코 그 어떤 형식의 대소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을 얼마나 풍부히 하여주고 시대의 전진운동을 얼마나 힘차게 떠밀어주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문학작품에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속도전의 주체적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며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학습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하며 당정책의 옹호관철자로, 해설선전자로 되기 위하여 아글타글해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그 해결방도를 제때에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알아야만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골라잡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좋은 종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당정책을 연구한다는 립장에 설것이 아니라 당정책을 적극 옹호관철하는 작품을 쓰기 위하여 종자를 찾아낸다는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작가들은 어떤 생활에서 종자를 찾기 위하여 그 문제의 각도에서만 당정책을 학습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하지 못하면 생활을 일면적으로 피상적으로밖에 볼수 없게 되므로 종자를 똑바로 잡아질수없다.

작가들은 또한 당정책을 한갓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실무주의경향을 반대하고 당정책을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만 당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아질수 있다.

창작에서 당정책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골라잡을뿐아니라 당정책적견지에 서서 작품의 대를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형상체계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당정책적견지에서 본질과 현상을 옳게 가려보고 어느것이 기본을 이루어야 하며 어느것이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히 갈라내야 한다. 그리고 창작과정에서도 그 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거기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작품의 주제도 정책적으로 교양적가치가 있게 될수 있으며 작품의 사상도 명백하게 표현할수 있다.

우리 문학작품에 당정책을 민감하게, 생동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항상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거기서 당정책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가슴깊이 체득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출발한것이며 우리 인민의 리익을 반영한것입니다. 당의 정책은 근로대중의 실천투쟁에 의하여 실생활에 구현됩니다.**

**현실속에서 우리나라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생활을 참답게 사랑하는 작가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생활을 리해할수 있으며 생활을 깊이 아는 작가만이 생활을 뜻깊고 자연스럽게 그려낼수 있다.

작가들은 사회주의현실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깊이있게 밝혀내면서 우리 혁명문학의 주제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탐구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작가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혁명적사변들과 벽찬 생활속에 적극 뛰어들어 항상 근로대중과 함께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할것이다.

우리의 혁명작품은 현실속에서 나와야 하며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의 친숙한 벗으로 될수 있고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교양자, 고무자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언제나 생활속에 들어가야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될수 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어디를 가나 작가를 흥분시키며 무진장한 창작의 소재를 제공해주고있다.

생활이 들끓고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는데 작가들이 만약 휴양소나 창작실에만 들어앉아서 어느 한때 체험한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쓴다면 그런 글이 어떻게 생활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수 있을것인가.

만약 작가들이 로쇠병에 걸려 현실에도 나가지 않으면 새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패기와 열정이 없이 늑데해지게 될것이며 따라서 그런 작가의 작품은 패기와 생기를 잃게 되고 그 전투적기능이 마비될것이다.

작가들이 로쇠병에 걸리지 말고 항상 패기와 정열에 넘쳐 들끓는 현실속에서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혈기왕성하게 일해나가야 우리 문학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만들수 있다.

작가가 현실생활에서 뒤떨어지면 벌써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언제나 약동하는 현실에 들어가 인민대중의 장엄한 로력투쟁을 직접 체험하면서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속도전을 벌임으로써 창작에서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민감하게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 내 조국

리광근

머리 들면 맑고 푸른 하늘  
바라보면 아득한 별에 풍겨오는 날알향기  
거리에 마을에 즐거움에 찬 사람들의 얼굴  
어디를 보나 끝없는 기쁨이 안겨와  
걸음걸음 바다기슭을 거닐면  
수평선 저 멀리 어로선단의 배고동소리 들려온다  
아침에 저녁에 이글거리는 쇠물빛이  
바다의 노을로 내려앉는 제철지구  
간곳마다 바라보이는것마다 고향처럼 정들어  
그 모든곳에서 한생을 살고싶은 마음이여  
우거진 수림, 아름답드리나무를 안아보며  
층층 언덕 과일향기 향기에 취하며  
내 때로 쇠돌이 빛을 뿌리는 갯도속을 걸으며  
차오르는 놀라움속에 생각도 깊어져  
가슴속 뜨거운 생각  
여기가 내 조국이구나  
아, 이 모든것 어떻게 꽃피여난것인가  
조국이며, 조국이며  
내 나서자란 그대처럼  
살을 저미는 채찍과 멸시와 가난속에  
피눈물 뿌린 땅이 있었더냐  
동방만리에 퍼진 아름다운 문화  
땅속 가득한 자원과 기름진 농토  
슬기롭고 정의로운 우리 인민이  
침략자들의 피묻은 발톱에  
뜯기우고 빼앗기우고 짓눌리어 긴긴 세월  
조국이며, 조국이며  
억눌려 살던 어제날을 더듬는 마음  
그대의 자랑찬 오늘의 모습에 눈물겹고  
오늘의 기쁨 넘친 나날을 보내는 생각속에  
어제날 모진 세월의 하루하루가 안겨와  
가슴가슴 세차게 두드린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아버이사랑의 품이 아니었더라면  
이 땅 이 하늘이 이처럼 아름답고 자랑찰수  
있으랴

눈덮인 압록강기슭, 혁명의 먼길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님품에 안겨  
오늘에로의 반세기  
그이의 로고와 거룩하신 자욱자욱으로  
세상 이름없던 그대가 주체의 금빛을 뿌리며  
20세기 누리에 솟아올랐구나  
사랑하노라 내 조국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으로 너와 나, 우리모두를  
안아  
락원의 꽃바다우에 세워준  
은혜로운 어머니품,  
그대는 망국의 설움속에 구원의 해빛을 그리며  
솟구치는 눈물속에 바라보던 하늘,  
투사들의 배낭속에 뜨거이 숨쉬던 한줌의 흙  
분여지에 패말을 박으며 움켜쥐었던 고향의 들판  
첫 쇠물을 뽑으며 만세를 부르던 나의 공장  
꿈같은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맞아주던 학교  
영웅전사들이 한치도 내여주지 않은  
과일향기 풍기는 저 산언덕이 아닌가  
오, 조국이란 말  
어머니처럼 정다운 이 부름속에  
금나락은 설레이고  
쇠물은 불꽃으로 피어나고  
3대혁명의 붉은기 저 하늘에 노을로 탄다  
조국이며, 조국이며  
내 사는 오늘의 이 땅처럼  
보람찬 삶과 끝없는 행복속에  
즐거움과 희열로 가득찬 나라 나는 몰라라  
아, 뜨거운 주체의 숨결로 고동치는 나라  
속도전의 나래로 세기를 뛰어넘는 나라  
위대한 수령님 모신 영광의 반세기에  
세상 수천년력사의 모든 아름다움이 꽃핀 나라  
천만년 받들어갈 불타는 마음속에  
누리를 향하여 소리높이 자랑하노라  
여기가 내 사랑하는 조국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어머님께서는 오늘도 걷고계십니다

백살구 푸른 가지사이로  
달같은 수은등  
은은히 빛을 뿌리는  
오산덕기슭

밤이슬에 젖어드는  
목수건 가벼이 두르시고  
이 한밤도 그 어디 먼길 떠나실듯  
언덕에 서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밤은 퍼그나 깊어  
풀잎마저 고요히 잠들었는데  
오늘도 지하공작의 날의 그 차림으로  
어머님께서는 밤언덕을 내리십니다.

두만강여울의 높아지는 물소리에  
조용히 귀기울이시며  
단꿈이 자리편 거리의 창문들에  
그윽한 미소도 보내시며

우러르면 승엄하신 그 영상  
별바다 하늘에 어려 빛나시고  
가슴 뜨거이 머리숙이면  
밤잠도 잊고 걸으시는 발걸음소리  
마음속에 울려옵니다

아, 총들어 백두밀림 헤쳐오신  
어머님의 혁명의 길 그처럼 길었어도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시는 일  
못다하신 그 임무 아직도 남아있기에

사령부천막가에서 맞으시던 눈송이에  
당중앙정원에서 맞으시던 비방울에  
마를새 없으시던 그 옷자락이  
이 밤엔 또 이슬로 축축히 젖습니다

짓밟히는 민족의 피어린 수난을  
한몸으로 다 겪으시고  
조선혁명이 걸어온 첩첩준령 불길만리도  
굽이굽이 다 넘으셨건만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받들이  
어머님의 삶의 전부이셨기에  
깊어가는 이 밤도 충성의 길 걸으시는 어머님

우리 인민을 사랑의 한몸에 안아재우시고  
이 나라의 번영과 혁명의 승리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밤마다 지새이시여-  
그 뜻 그 심려를 안으시고  
어머님께서는 한밤에도 잠들줄 모르시나니

아, 천만년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받들어 모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어머님의 그 충성

어머님의 그 걸음  
이런 밤을 지새시여 닿으시는곳은  
언제나 태양이 쏘는 언덕

위대한 태양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저  
그 빛을 받아 빛내는 별이 되고저  
어머님께서는 이 밤도 잠못이루시고  
오산덕기슭에 서계십니다  
밤이슬 맞으시며 언덕을 내리십니다

동기춘

#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리는데 필봉을 돌리자!

차균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근 또다시 혁명소설을 비롯한 우리 문학발전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창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주인공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 혁명화과정과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형상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라고난 혁명가란 있을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활과 투쟁 속에서 점차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혁명가로 자라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에서는 혁명가의 성격을 성장발전과정에서 그려야 하며 구체적인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혁명소설에서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 혁명화과정을 잘 그리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형의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귀감인 항일유격대원들의 성격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혁명이란 낡은 사회의 경제관계와 계급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고 민족적자주권과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이룩하며 인간의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복잡하고 심각한 투쟁인만큼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도의 의식성과 창의창발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발전법칙과 계급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혁명투쟁을 의식적으로 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가로 되는가 못되는가를 규정하는 주되는 징표로 된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인 혁명투쟁을 의식적으로, 주동적으로 해나가는 견결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고 모든 사물현상을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로동계급의 리의를 옹호하여 투쟁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지 않고 일시적기분에 들떠 혁명에 따라다녀서는 혁명에 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없으며 일시적난관과 복잡한 정황에 부닥칠때 동요하게 되고 끝까지 혁명을 해나갈수 없다.

더구나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나라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전쟁으로서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가장 어렵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이였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을 끝까지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와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주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바로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았기때문에 포악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백절불굴의 혁명투사로 되였을뿐아니라 인민의 참다운 교양자, 대중운동의 능숙한 조직자로 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품모는 날 때부터 저절로 타고난것이 아니라 주체의 기치밑에 진행된 항일유격대안에서의 생활과 투쟁을 통해서만 형성발전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소설에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타고난 혁명가로 형상할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항일유격대에서의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어떻게 혁명화되고 어엿한 혁명가로 자라나는가 하는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심오하게 형상한 작품만이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혁명전통주체의 소설에서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 혁명화과정을 잘 그리는것은 또 한 혁명문학이 지니고있는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혁명문학의 중요한 사명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이다.

근로자들은 문학작품을 낫잡이나 자는 대신에 심심풀이로 읽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더 깊이 리해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문



화적수양을 쌓기 위하여 읽는다. 이러한 요구성은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일수록 더욱 높아진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고귀한 업적과 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전통이다.

여기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시고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육성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다방면적인 사상정신적재부들과 경험들이 담겨져있다. 이것은 오늘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본보기로, 원형으로 된다.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은 항일유격대원들을 타고난 혁명가로 형상할것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사람이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주체의 세계관을 세우고 혁명화되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풍부한 경험과 본보기들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혁명작품은 사람들에게 혁명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번 각오하면 혁명을 할수 있고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혁명화의 교과서로, 주체사상화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만약 혁명작품에서 특히 혁명투쟁을 반영한 장, 중편소설에서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혁명화되는 과정이 잘 그려지지 못하고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이 옳게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심장이 빠진 작품으로 되고말것이다.

참으로 혁명소설의 교양적가치는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에 강한 작용을 할수 있도록 혁명적세계관과 그 형성발전과정을 잘 묘사하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장, 중편소설에서 처음에 제시된 주인공의 사상의식수준이 소설의 마감장을 덮을 때까지 변화발전하지 않고 그 상태대로 남아있다는가, 처음에 제시된 사상의식수준은 매우 어렸는데 소설의 중간에서 혁명의식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소설의 마감에는 완성된 혁명가로 지나치게 비약시켰다면 그런 소설은 주인공의 구체적인 혁명화과정을 따라배우려는 독자들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싱거운 소설로 될것이다.

작가들은 혁명작품에서 혁명화과정을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잘 묘사하는것이 작품의 심장을 살리는 근본고리임을 명심하고 창작에서 언제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옳게 밝히는데 필봉을 돌려야 한다.

혁명작품에서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옳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 과정으로 묘사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운다는것은 낡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려는 사상, 다시말하여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혁명사상과 관점으로 무장하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지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낡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사상과 관점, 굳은 각오와 의지를 전면적으로 소유한 혁명가로 되려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것은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민족해방혁명으로부터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에서 나서는 모든 부문의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과학리론적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혁명문학에서 주인공들의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밝히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과정을 주체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하는 과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끝없이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심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기본무기입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줄뿐아니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고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출신에 있어서는 누구나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었지만 항일유격대에 입대한후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이다》라는 구호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 사업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알고 언제나 학습을 모든 사업에 선행하였기에 혁명적세계관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였기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에 부닥치더라도 혁명승리의 신념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의 생활은 항상 혁명적전략관주의로 충만되어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주체의 원리를 인식하는 학습과정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실천과정에서 더욱 공고발전되었기에 그들은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에 헌신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혁명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출발점으로, 근본으로 되며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혁명적세계관의 핵으로, 혁명화의 기본표징으로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참으로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은 공산주의자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정신적품도와 자질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항일유격대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있다는 것을 훌륭히 형상해야 한다.

그런데 정의감에 불타는 대바른 청년이 항일의 혁명대오에 들어서기만 하면 혁명적세계관이 저절로 다 수립된 것처럼 여기서 그후에는 외형적인 공작과정만 실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쳐서는 주인공의 혁명화과정, 혁명가로 자라나는 모습을 옹골치게 보여주지 못한다.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에서는 압박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항일유격대에 들어오기까지의 사상의식장성과정을 보여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항일유격대에서의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모습을 깊이있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본격적인 과정은 철저하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육성하신 항일유격대에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배려속에서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다양한 군정학습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유격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심으로써 그들모두를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스승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 숭고한 덕성을 떠나서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정당성, 령도의 현명성, 숭고한 덕성을 최고의 사상에술적경지에서 가장 완벽하게 형상해야 한다.

혁명작품에서 혁명가들의 혁명화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또한 그 과정을 사상의식발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진행되도록 묘사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한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것입니다.》**

혁명화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은 단번에 험하게 되거나 단순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축적이 있어야 하며 이 축적과정은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세계관은 착취사회의 본질을 인식하는것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미워

하는 증오단계, 각성단계를 거쳐 온갖 계급적원수들을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됨으로써 확립되게 된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적각오를 가지는것과 함께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품도를 다 갖추어야 혁명적세계관이 완전히 섰다고 할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발전이 이와 같이 복잡한 사상의식발전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우여곡절을 거쳐 진행되게 하지 못하고 그 과정을 생활론리에 맞지 않게 단순화하면 그 작품은 주인공을 타고난 《팔자》를 가진 혁명가처럼 형상하게 될것이다.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으로 형상하지 않고 직위가 올라가는 외형적인과정으로 단순화하여 묘사한다면 혁명작품의 사상에술적감화력에 대해 말할수 없다.

만약 직위가 올라가는 외형적인 과정은 보이나 그에 따르는 혁명의식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런 작품의 주인공에게서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품도를 느낄수 없을것이고 실무적인 공작과정만이 앙상하게 남을것이다.

혁명작품은 혁명이란 무엇이며 왜 혁명을 해야 하는가, 또 혁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혁명에 대한 인식과정을 옹골치게 보여주고 혁명투쟁에 나서서 어떻게 난관을 뚫고 싸워나가는가 하는 혁명가의 내면세계와 그 변화과정을 보여주어야 혁명적세계관의 발전법칙을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혁명작품창작에서 주인공을 외형적으로만 묘사하고 내면세계의 깊이에 침투하지 못하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동선과 함께 감정심리적변화를 면밀히 결부시켜 묘사해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에서는 주인공 어머니의 성격발전, 세계관형성과정이 그의 감정변화와 동시에 섬세하게 묘사되어있다.

주인공 어머니는 처음에는 일체의 확정아래 살길없는 비참한 처지와 기동처럼 밟고사는 남편의 신변에 대한 초조와 불안, 공포감에 싸여있다. 남편의 신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 초조감에 싸여있던 어머니는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일체원수놈들에게 남편을 잃고 비애와 슬픔에 잠기게 된다.

비애와 슬픔은 혁명조직의 영향과 자신의 간고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일체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자기 민족과 계급에 대한 사랑, 혁명에 대한 자부심과 투지로 변화발전한다.

원수에게 남편을 잃고 통곡하며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어머니의 개인적이며 소극적인

감정이 온갖 계급적, 민족적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과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혁명적열정과 긍지를 느끼는 적극적인 감정으로 변화발전하는 과정은 바로 주인공의 세계관형성과정, 혁명에 대한 인식과정, 혁명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것이 아니라 각오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성격장성과정과 일치한다.

이 불후의 명작은 어머니의 이와 같은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을 힘있게 부각하고있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는 주인공이 일제원수놈들에게 총부리를 돌리기까지 겪는 심각한 생활체험을 쌓으며 계급적으로 각성되는 과정이 얼마나 생동하게 묘사되고 있는가, 명작의 주인공은 인민들에 대한 자위단의 갖은 야수적만행, 만식과 철살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뼈에 사무치는 체험을 겪고서야 원수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며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된다.

이 불후의 명작에서는 부닥치는 사건마다에서 걸음걸음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사상정신적으로 발전되며 진짜 효도의 길이 어데 있는가를 알게 되는바 이 과정이 바로 혁명적세계관이 서가는 과정으로 정서적으로 섬세하게 묘사되어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으며 안들어도 죽는다는 이 명작의 철학적인 종자를 밝히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또한 참다운 효도의 길, 그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해도 그 녀원을 용납하지 않는 착취사회를 자신의 힘으로 푸드러엿을 때에만, 다시말하여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날 때에만 열려질수 있다는 사상, 조선사람이 살길은 오직 일제를 반대하여 혁명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사상을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이 불후의 명작들은 한결같이 혁명적세계관이 서가는 사상의식발전과정을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고 그 감정세계가 더욱 풍부해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있으며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일치시켜 형상하고있다.

참으로 혁명작품의 사상은 감정과 결합될 때에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감정과 결합되지 않은 메마른 사상은 사람들을 감화시킬수 없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이와 같이 사상정서적으로 일정한 축적을 거치는 심각하고 복잡한 과정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몇군데 단계를 설정하고 거기서 그의 사상의식의 성장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적으로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생활과 운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계기들을 옹게 포착하고 거

기서 생활과 주위환경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와 견해, 다른 인물과의 정치도덕적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충동과 체험을 분석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이런 계기는 결코 한두마디의 설명으로 스쳐지날것이 아니라 몇개의 생동한 실례를 들어 전개하여 묘사함으로써 그의 성격발전의 전모를 련상할수 있게 해야 한다.

혁명적작품에서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밝히는데서 중요한것은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모든 예술작품은 다 사람들의 생활을 그려야 합니다. 어떤 혁명가를 형상한다면 그가 어떻게 혁명가로 자라나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계급적 원수가 누구인지, 혁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사람이 투쟁을 통하여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야 커다란 감화력을 기질수 있습니다.》**

혁명적인 작품은 추상적인 설명이나 일반적인 호소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형상을 통하여 주인공들의 혁명의식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점차 높아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어야 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밝힐수 있다.

우리 문학이 산 인간, 숨쉬며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활을 다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해야 한다.

주인공의 생활을 일면적으로 단조롭게 형상한다면 정서가 메마르고 내면세계가 단순하게 될것이며 혁명화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없을것이다.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반영하지 않고 추상적개념과 논리를 라렬한다면 그런 작품은 무미건조하여 아무런 감성적형상도 예술성도 가지지 못하게 될것이다.

주인공의 세계관형성과정은 작가의 설명이나 몇마디 주정도로로는 옹게 보여줄수 없고 오직 풍부한 생활화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생활과 밀착되고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구체적이고도 생동하게 묘사해야 주인공의 혁명화과정을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고 생활의 교과서로 될수 있다.

주인공을 각이한 생활속에서 다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생활에 대한 그의 련계가 협소해지고 혁명가의 내면세계의 폭이 옹졸하게 형상될것이다.

생활을 풍부히 반영하지 못한 작품은 흥미가 없고 단순하고 깊이가 없으므로 심각한 사상을 개성적으로 표현할수 없다.

작품의 사상적심각성은 오직 생활반영의 풍부

성, 다양성에 기초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생활을 옹기 그리기 위해서는 본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활을 그려야 한다.

생활을 그린다라는 것은 생활속의 정치를 그리는 것을 의미하는만큼 작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어디까지나 정치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혁명적인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혁명적인 생활이란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혁명투쟁과 결부된 생활, 생활속에 투쟁이 있고 투쟁속에 생활이 있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말한다. 혁명가들의 생활이란 언제나 투쟁과 결부된 생활이며 혁명가들의 투쟁은 생활을 떠나서 군중과 떨어져서는 진행될 수 없다.

혁명투쟁이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자신과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의 생활이란 자신의 혁명화과정인 동시에 각계각층군중을 혁명화하는 과정에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혁명문학에서 생활을 옹기 형상하기 위해서는 전투하는 장면은 좀 적게 넣고 혁명가들의 정치생활, 군사생활, 문화생활, 인간생활 등 다양한 생활을 실감있고 진실하게 묘사해야 한다.

주인공이 항일유격대원이라면 그가 전투에 참가하여 적들을 시원하게 죽이는 장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장면과 함께 노래와 연극 같은 것을 준비하여 가지고 예술선전활동을 벌이며 흥겹게 생활하는 장면, 유격구인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하는 장면, 각계각층 사람들을 교양하여 투쟁에 열기시키고 조직에 묶어세우는 장면 등을 다각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을 고생스럽고 힘든 것으로만 보여주지 않고 재미있고 보람찬 것으로 풍만하게 보여주고 혁명적량만주의정신이 흘러넘치게 형상했기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고생을 어떻게 참고 견디나 하는 생각보다도 누구나 유격대생활을 한번 해보고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준다.

생활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여 중심이 없이 이것저것 많이 라벨해서도 안된다. 어디까지나 세계관형성과정의 해명에 알맞게 생활을 선택하고 혁명화과정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생활만을 집중적으로, 분석적으로 묘사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을 이와 같이 풍부하게 묘사해야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귀한 업적과 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품 등 다방면적이며 풍부한 혁명전통의 내용을 옹기 보여줄 수 있고 유격대원들을 군사활동가로뿐만 아니라 인민들에 대한 유능

한 조직선전자, 정치활동가로 자라나는 모습을 옹기 형상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해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을 포괄하여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을 옹기 그려낼 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인간성을 옹기 결합하여 묘사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가는 정치성이 있어야 할뿐 아니라 인간성도 있어야 한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성과 인간성은 뗄수 없는 풍모의 하나이며 혁명투사는 정치성이 강할뿐 아니라 인간성이 풍부해야만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한길에 묶어세우는 정치활동가로 될 수 있다.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한다고 하여 주인공들의 정치성만 강조하면 세계관형성과정의 전모를 통일적으로 형상할 수 없다.

사람들의 세계관이란 사상정치적견해뿐 아니라 도덕윤리적견해도 포함한 자연과 사회, 인간 등 세계에 대한 견해의 총체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혁명투사의 세계관형성과정의 전모를 보여주자면 응당 정치성과 인간성을 결합시켜나가는 과정도 옹기 형상해야 한다.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 과정은 바로 정치성과 인간성을 옹기 결합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정치성과 인간성을 어떻게 결합시켜나가는가 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묘사하는 것은 혁명가의 정치도덕적풍모를 어떻게 갖추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옹기 보여주기 위한 요구인 동시에 문학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혁명작품은 정치성과 인간성을 결합시켜나가는 슬기롭고 고상한 정치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투사의 성격장성과정을 통해서만 심각한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사상의식을 발전시켜줄뿐 아니라 공산주의적혁명가다운 인간성과 문화성도 동시에 높이게 하여 준다.

우리 혁명문학에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단순화하는 온갖 현상들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게 주인공의 형상을 정치성과 인간성을 통일시키며 전면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자주적인 인간으로 생동하게 묘사해야 한다.

혁명문학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사람도, 가장 고상한 인도주의적성품의 소유자도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작품에서는 정치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생활만 찾으려고 해서도 안되며 문화도덕생활도 폭넓게 묘사하여야 혁명적세계관형성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혁명가의 생활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희생된 투사의 원형을 소재로 하여 세계관형성발전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데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것은 여러 사람들의 생활을 모아가지고 조립하는 경향이다.

여러 사람의 생활자료를 모아가지고 조립식으로 작품을 만들면 주인공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다양하게, 진실하게 보여줄수 없다.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은 출신환경과 조건에 따라 각이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조립식으로 형상하면 각이한 사람의 자료를 한사람에게 뜯어맞추므로 혁명화과정의 다양한 양상을 생활 그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것을 류형화, 도식화하게 된다.

조립식으로 하면 또한 생활을 이것저것 피상적으로 라렬하고 어느 한대목도 심화시켜 보여주지 못하기때문에 혁명화과정의 심각하고 극적인 내용을 옹게 보여주지 못하고 실감을 덜 준다. 그리고 귀중한 생활자료를 한 작품에서 람용해버리기때문에 몇개 작품만 쓰면 더 쓸 자료가 없게 되어 우리 문학발전을 저애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을 쓰는데서는 어디까지나 한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투사, 원형의 생활을 세심히 연구해야 한다. 원형을 세심히 연구하지도 않고 간단한략력이나 듣고서 항일투사의 생활을 묘사하려고 하면 그것은 투사들에 대한 모독일뿐아니라 독자들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된다.

희생된 투사의 원형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전기나 년대기를 소개하는 식으로 쓰지 말고 산자료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소설화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항일혁명투쟁시기 사실자료를 많이 알아야 하며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생활을 다각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자료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엮어만 놓아서는 혁명적인 예술작품으로 될수 없다.

사실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옹겨놓을것이 아니라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사건처리를 잘해야 한다.

여기에서 력사적사건과 주인공의 세계관장성과정,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과의 호상관계를 옹게 푸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전통투쟁의 작품창작에서 력사적사건은 작품에서 다만 시대적배경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

로 작품의 옹음새와 관련없이 작가의 주석과 설명을 통해 삽입하는 정도로 묘사해서는 안될것이다. 력사적사건은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세계관형성을 조건지어주는 환경의 내적구조로, 옹음새의 기초에 깔리게 묘사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력사적사건은 그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적반응과 극적체험을 심오히 추구함으로써 그의 세계관형성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만약 력사적사건이 주인공의 운명, 그의 세계관형성과정해명과 련결되지 않고 일반적인 시대적배경으로만 그려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라렬로 되고말것이다.

력사적사건은 말그대로 주인공의 성격과 세계관형성과 공고발전과정을 촉진시키는 조건으로서의 구체적인 환경으로, 주인공의 운명과 사활적으로 련결된것으로 묘사해야 한다.

그래야 혁명문학은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혁명작품은 세계관형성과정에 작용하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분리시키지 말고 호상 통일적과정으로 옹게 보여줄 때에만이 혁명화과정을 류형화, 단순화하지 않고 생활그대로 복잡하고 우여곡절에 찬 심각한 과정으로 실감있게 보여줄수 있다.

혁명문학에서 주인공의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들자신이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작가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모든 로작, 모든 교시들을 다 환하게 정통하고 특히 이번에 혁명소설 창작과 관련하여 주신 교시를 비롯하여 문예부문에 주신 교시들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체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한 자료를 각 방면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한다.

작가들은 주체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할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주체형의 피만이 끓는 주체형의 문필전사로 더 잘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작품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주체사상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자!

# 독창성과 개성화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문학발전의 필수적요구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훌륭한 문학 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문학예술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살리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문학 예술작품창작에서 류사성을 철저히 없애고 독창적이며 비반복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살려야만 문학 예술작품은 비로소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 참다운 문예작품으로 되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다양하고 풍만하게 꽃피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개성화와 독창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본질적요구와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주체적인 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품창작을 창발적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창발성, 이것은 문예작품에 개성적특성을 부여하는 원동력이며 창작가들이 지녀야 할 본질적속성이다.

창발성은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창작의 주인된 립장을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게 하는 기본요인이며 한 작품을 다른 작품과 구별짓게 하는 힘으로 된다. 따라서 문학예술창작에서 창작가들이 창발성을 살리지 못하면 유형과 모방, 도식주의에 빠져 격식화되고 도해화된 작품, 상품과 같은 모조품이 나오게 된다.

예술적형상의 비반복적특성은 창작가의 창작적 개성, 개성적특성의 적극적인 작용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예술적형상은 문학예술의 묘사대상으로서의 인간과 그들의 생활과 주관적 요소로서의 창작가의 창조활동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창조물이기때문이다.

창작적개성이란 매개 창작가들의 개성적인 생활체험과 세계관, 성격적특질 등에 의하여 그들의 창작생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이며 비반복적인 특성을 말한다.

창작가들은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창작태도와 창작기풍, 감수성과 표현능력, 성격과 취미 등이 서로 다르며 그들이 걸어온 생활로정과 생활체험 역시 각이하다. 그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한

것들은 더러 있지만 똑같은 얼굴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바로 이러한 차이로 하여 개성적특성에 관한 문제는 작가와 작품에 따라 각이하게 제기되고 해결된다.

작가의 개성적특성은 소재의 선택과 평가, 성격창조, 얹음새와 구성, 언어구사 등 형상작업의 전과정에 작용하며 또한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창작에서 개성화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줄뿐아니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요구도 밝혀주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 창작에서 개성화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형상을 창발적으로 할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엄격히 의거하여 창작활동을 벌리는것은 당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개성적특성이 뚜렷한 작품창작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확고한 담보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혁명사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본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며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작품창작의 뚜렷한 방향을 가르쳐주며 창작가에게 높은 정치적 안목과 식견을 준다. 창작가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 본질적인것과 비본질적인것을 정확히 가려낼수 있다.

창작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현실속에서 독창적인 종자를 골라잡고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골라진 종자를 아름답게 꽃피우고 작품의 형상도 생활의 진실에 맞게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할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엄격히 의거하여 형상을 창발적으로 할데 대한 방침은 창작가들의 창조적개성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풍부히 하고 완성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를 명시한 위대한 사상이며 생활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탐구하고 반영하는 창작가적자세를 가지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체적문예이론은 또한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개성화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창작을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혁명적문학예술은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여야 자기의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살릴수 있다.

문학예술이란 생활의 형상적반영이며 예술적표현이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을 자기의 기본 묘사대상으로 삼는다. 주체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떠나서는 그 예술적반영으로서의 문학예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현실을 떠난 문학예술이란 존재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의 개성화는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현실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견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하는것은 현실생활이 창발성의 실제적 원천이라는 사정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혁명적문학예술의 묘사대상으로서의 우리 시대의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은 끝없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과 그들의 보람찬 생활은 언제나 개성적이며 비반복적인 성격을 띤다.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취미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이 처한 생활환경과 조건도 다를뿐 아니라 생활경위와 체험 또한 똑같지 않다. 현실에는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란 없으며 인

간의 실생활은 항상 구체적으로, 개성적형태로 발현된다. 특히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는 비할바 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내용으로 가득차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인간들의 사상 감정과 그들의 보람찬 생활의 이러한 다양성과 풍부성, 구체성은 예술적형상의 독창성과 비반복성을 조건짓는 바탕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개성적특성은 창작가들이 인간 성격과 인간생활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탐구하고 탐구된 생활을 다양한 형식으로 전형화할때만이 확고히 보장된다. 다양하고 생동한 예술적형상의 창조과정에는 창작가의 창발성이 적극 작용한다.

현실생활이 아무리 다양하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창작가가 그에 대한 수동적인 복사자로 되어가지고서는 그것을 그자체의 다양성과 풍부성 속에서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다.

모든 생활적사실이 그대로 예술적진실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생활적사실들이 작가의 혁명적인 사회미학적리상과 창조적탐구, 창조적사색의 빛을 받아 형상화확폭으로 재현되어야 비로소 예술적진실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참으로 현실에 발을 붙이고 형상을 창발적으로 할데 대한 방침은 문학예술과 현실생활, 창작가와 현실생활의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게 특색이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우리의 주체의 문학예술을 더욱더 다채롭고 풍만하게 꽃피울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높은 당적안목에 기초한 현실체험을 끊임없이 쌓아 자신을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준비해야 한다.

작가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쌓아나가면서 창작적충동과 창작적열정을 간직하는 동시에 참신한 생활소재와 주인공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탐구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연구파악하지 않고 류사한 생활소재에 매여달린다면 작품창작의 기본출발점에서부터 창조적개성을 뚜렷이 살릴수 없으며 따라서 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수도 없다.

창작이란 언제나 새것의 탐구를 지향한다. 여기에서 새것이란 묘사대상에서의 새것을 의미할뿐 아니라 그속에 깃들어있는 본질적이며 독창적인것을 새로운 측면에서 발견하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가들은 새형의 인간들의 사상감정과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그들속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인간관계, 그들의 생활속에서 태어나는

참신한 이야기거리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개성화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집체성에 토포히 의거할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의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혼자 하면 자기의 결함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야 잘못을 알수 있습니다. 작곡하는 사람은 자기의 작곡이 제일인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곡을 들으면 본인이 모르는 결함을 찾아낼 수 있고 좋은 의견을 줄수 있습니다.》**

예술적형상창조에서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집체성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은 창작가의 창조적개성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높이 발양하게 하며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려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도를 새롭게 밝혀주는 공산주의적 창작원칙이다.

창작사업에서 작가의 책임성과 창발성은 집체성과 서로 뗄수 없는 밀접한 련관을 맺고있다.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이 발휘되자면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야 하며 집체성이 잘 보장되자면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이 안받침되어야 한다.

문예작품의 개성적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매개 창작가의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에 달려있다.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은 온갖 창조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주체적요인이다. 매개 작품창작의 직접적담당자는 창작가 자신이며 해당 작품의 운명을 결정하는것도 그의 창조적능력에 달려있다. 그것은 개인의 독창적발기와 예술적착안이 없는 창작적개성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개인의 창발성을 떠나서는 집체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힘과 지혜는 집체적 힘과 지혜에 비하면 일련의 제한성과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집단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언제나 새롭게 참신하다. 창작가집단은 당의 정책적요구와 그 구현방도, 현실생활은 물론 그것을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기 위한 방도들을 개인에 비하여 훨씬 더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제한성과 부족점을 극복하자면 그것이 창작가집단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야 한다.

집체성은 개인의 창조적발기와 창발성이 주관을 범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집체성은 개인의 주관과 독단, 제한성을 극복하게 하며 개인의 재능과 창조적발기를 계발하고

조장시켜줌으로써 매개 작품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구현하도록 이끌어주며 창작과정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고치게 하여 작품을 완성하는데로 창작가를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힘있는 수단이다. 창작가의 개성적특성과 독창적발기를 존중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확충하고 건전하게 꽃피게 한다는데 집체성의 우월성이 있다.

실로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집체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형상을 창발적으로 할데 대한 방침은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살리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창작원칙을 밝혀준다.

개인의 창발성을 집체성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기초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착취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협동농민, 지식인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열의가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개인의 창발성과 집체성을 결합시키는 이 공산주의적창작원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확고히 이룩되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혁명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이 제시되고 빛나게 구현될수 있는 공산주의적창작원리이다.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집체적지혜와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사업의 본성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창조사업이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에 복무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으로 되였으며 작가, 예술인들은 공동의 목적과 일치한 지향으로 하여 창작에서 집체성에 의거하여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다음으로 이 방침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개인의 창발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공산주의적창작원칙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창작에서 창작가의 창발성은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툐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철저히 의거하여 발양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살렸다고 말할수 있다.

창작가의 창발성을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 제기되는 이 원칙적요구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있다.

여기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떠나서는 그 어떤 작가적 탐구와 창작적사색도 있을수 없고 작가적열정과 독창성, 대담성도 있을수 없으며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자유로울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현실속에 들어가도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옹가리해할수 없으며 그속에서 새것과 낡은것, 옳고 그른것을 가려낼수도 없고 새롭고 참신한것을 탐구해낼수도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엄격히 의거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창발성을 집체성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공산주의적창작원칙도 훌륭히 구현할수 없다. 집체성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당정책을 자로 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방향에서 보장되어야 그것이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엄격히 의거하면서 현실체험과 집체성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의 혁명적현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훌륭히 구현되고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현실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체험하고 집체적지혜가 높이 발휘되면 될수록 당정책이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되고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그려질수 있다.

문학예술창작에서 개성화의 본질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요구들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사람의 사회적본질과 주체사상의 기초, 문학예술창작의 본성적요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 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르쳐주는바와 같이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지향하는것으로 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지배해나가는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된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로서 사회력사발전과정에서 사람 특히 그의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밝혀주고 있다.

문학예술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독

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탐구된 생활을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한 원칙적요구들은 작품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주체적요인인 창작가들로 하여금 주인된 입장과 창작적자세를 견지하고 창발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작품창작에서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게 한다.

다음으로 개성적특성의 본질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요구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창조사업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매개 창작가들이 자기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는 특색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이 혁명적문예리론은 문예작품의 사상에술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의 인식교양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문예리론이다.

개성적특성의 본질과 그 원칙적요구에 대한 문제는 문학예술의 고유한 특성과 문학예술창조사업 자체의 요구, 그리고 창작가의 존재가치를 규정짓는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많이 그리고 광범하게 논의되어왔다. 각이한 역사적시대에 걸쳐 수많은 창작가들과 문예리론가들에 의하여 이 문제가 이리저리하게 제기되고 논의의 별려왔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전일적인 완벽한 해답을 줄수 없었다. 그것은 개성적특성에 관한 리론이 그 철학적기초인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철학이 창시되지 못하고 인간의 사회적본성이 완전무결한 해명을 보지 못한 사정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창작적개성을 천부적이며 선천적인것으로 신비화하거나 그것을 본능적인것으로 여기는 부르조아사환군들의 반동적견해는 력사발전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창조적 재능과 지혜, 무궁무진한 힘을 거부하는 부르조아지의 반동적립장을 대변하고있으며 창작적개성의 사회계급적성격을 가리우고 문학예술을 제놈들의 독점물로 만들어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마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주체적인 문예리론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고 풍만하게 가꾸며 그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백영철

## 백두산정에서 외 1편

변홍영

여기로 오르라 이 땅의 기상을 보려거든  
오히려 순간의 정적조차  
놀라운 뒤편리  
소리쳐보아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금시 저 칼날같은 산악의 바다우에  
물방울처럼 흩어진다

해빛은 바위크령에 미끄러지고  
푸른 하늘을 담은 천지  
꿈속에 든듯 고요하더니,  
아득한 천리수해  
그 어느 한끝에서 일어번진 폭풍인가  
삼시에 물려오는 구름떼  
번개는 푸른 호심에 꽃히고  
천만리공간에 우뢰 울어라.

젖어든 옷자락을 날리며  
자욱히 안개서린 천지를 굽어보니  
검푸른 절벽들을 스쳐간  
풍상에 찬 세월이 구름처럼 일어서는듯  
한없이 승엄해지는 내 마음  
장쾌한 걱정 of 파도에 휩싸여라.

피물은 침략의 발굽이  
저 령밑에서 이 땅을 함부로 짓밟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혈의 피끓는 대오를 이끄시고  
백두성산에 남기신 혁명의 맹세를  
충암절벽에 새겨안은듯  
높이 솟아 빛을 뿜는 장군봉,

천지의 물을 찍어  
분노의 칼을 간 흔적인듯

서리발을 날리는 바위들  
구름을 꿰지른채  
하늘가에 창끝처럼 치솟은 메부리들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이겨온  
이 나라의 굳센 기상이너나,  
백두산이여 너의 머리우에 번뜩이는 섬광은  
이 땀의 존엄을 지켜 날아가던  
원췌격멸의 물줄기가 아니더냐,

위대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피흐르는 강토와 겨레의 원한을  
노한 총검에 비껴드셨던 련봉,  
이 나라의 흙을 밝은 원췌놈들  
여기서 살아서는 못돌아갔다.  
줄기줄기 산발들에 우뢰치던 함성소리  
동서천리에 다시 터져오르는듯,

그리하여 잃어졌던 해와 별이  
너의 하늘가에 다시 떴다,  
밤이면 은하수에 닿을듯 솟구치던 우등불이  
어둠질은 세기우에  
이 나라의 밝은 해돋이로 타올랐나니,  
백두산이여, 이 땅에 생을 둔 모든것  
너의 품에서 시작되어 너처럼 굳세도다!

오, 천년눈비에 씻긴 바위를 딛고서니  
더 높이 쳐다볼곳 없고  
사방천하가 모두 발밑이로다.  
범접할수 없는 너의 기상으로  
높이 머릿드는 내 마음  
천백번 깨닫는다,  
여기서 찾은 삶과 존엄을  
여기서 든 총검으로 지켜가는 조국앞에선  
그 어떤 원췌도 한갓 가랑잎임을!

## 장군님, 막내가 갑니다

새날이 밝아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멎고  
새벽닭이 췌치는 소리에 잠을 깬듯  
못별들이 유난히도 들창가에 반짝입니다.

길행장도 다 꾸려놓았건만  
새벽잠에 든 아들의 머리맡에  
이윽도록 앉아계시는 어머니  
타드는 등잔불을 조용히 돌구심은  
이제 슬하를 떠나갈 아들의 모습을  
못내 마음속에 새겨두려는것입니까.

막대총을 메고  
제형들을 따라 장군님께 간다고  
어머니를 조르던 철없던 그 시절엔  
기특하여 응석으로만 받았더니  
철이 들어  
오늘은 항일전의 그 길에 오르는 아들

가슴 그득히 차오르는 어머니의 기쁨인양  
창밖에 푸근히 눈이 내린 이 밤은  
어머니 평생에 헤친 험한 길처럼  
하고싶은 말 끝이 없는 설달 긴긴 이 밤은  
아, 어느새 밝아옵니까.

남편을 묻고 떠나온 정든 고향에  
깜깜한 밤길에 걸채이며  
어린것들 앞세우고 헤매인 타향천리에  
한도 많아 눈물도 많아

봄내 여름내 화전을 가꾸고  
얼음이 덮인 앞내가에서  
한겨울에도 샷썰래를 헤웠건만  
어머니의 사랑만으론 살수 없는 이 세상

악착한 이 세상을 영원히 매장하러  
토스레조차 없이 자란 아들이  
백두산을 향해 떠날제  
평생에 처음 자식들앞에  
기쁨에 찬 눈물을 감추지 못한 어머니.

어머니는 뜨겁도록 가슴에 새겼습니다  
살길찾아 헤매인 그 술한 길들이  
오로지 그 한길에 닿아있음을  
어머니의 소원도 그 길우에  
조국도 고향도 그 길우에 있음을

아아, 장군님.  
이 세상의 모든것, 자식들의 앞날까지도  
아버이 그 품에 안으신 **김일성** 장군님!  
온 민족이 걷는 그 길로, 장군님 품으로  
첫째가 떠났고  
둘째와 셋째가 따라갔고  
오늘은 막내가 그길에 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백두산을 합해서야 꽃이  
폈습니다.

이제 무슨 원이 있으리까  
어머니의 눈가엔 행복한 미소가 흐릅니다  
끝끝한 세아들 그이앞에 내세우고  
막내까지 장군님께 보내는 마음,

불수록 대견한 생각에  
당신이 키운것 같지 않아서  
아들의 장한 모습을 자꾸만 어루만집니다.  
장군님께서 주시는 총을 받아멜 어깨가  
산악같이 커만 보입니다

# 나의 조국, 나의 평양! 외 1편

조대현

높푸른 하늘,  
찬란한 해빛,  
거리거리 환영의 꽃물결,  
극장과 궁전무대엔 환영공연의 노래.

새생활의 기발을 띄운 사람들이,  
민족해방의 총검 높이 든 사람들이,  
항쟁의 거리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나의 조국, 나의 평양이여!

아, 만민이 우러러 흠모하는  
태양을 모시고있는 나라.  
유서깊은 만경대, 명승의 금강산이 있어  
내 나라는 혁명성지, 천하제일강산.

태양이 솟아오른 4월의 명절  
그 봄으로부터 이어진 날과 달은  
재생의 기쁨, 창조의 활력만이 흘러  
그대로 명절, 그대로 노래이거니...

피눈물의 지난날이 이 땅에도 있었고  
보고싶고 듣고싶고 지니고싶은  
가야 할 미래가 이 땅우에 펼쳐져있어  
손님맞이, 손님환송으로 날마다 흥성인다.

수령님 만나뵈온 감격을 안고  
밤을 지새며 시를 지었다는

아프리카의 한 인사는  
해돋이 향해 창문을 열어젖히여라  
조선의 백두산은  
《세계의 백두산》,  
장군봉에 척 올라서니  
오대주를 발아래 굽어보는 담대한 마음이란다.

산이면 산우에, 폭포이면 폭포앞에  
그대로 돌이 되어 굳어지고싶다며  
주체의 빛발로 다듬어진 조선은  
아름다움과 슬기로움의 절정이란다.

일어서는 거리, 들에 영그는 곡식  
세상만민이 다 알고  
하나의 가극, 집단체조화폭이 펼쳐져도  
온 세상의 경사로 되는 나라.

식민지였던 지난날엔  
업수이 여기는 사람들뿐  
오라는곳, 반겨주는 이,  
웃으며 찾아오는 사람 없더니

아, 오늘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있어  
손님을 맞이하고 떠나보내는 경사로  
날과 달이 명절인  
나의 조국, 나의 평양이여!

##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품

조선의 항구, 사랑의 기슭을 떠나면서  
나서 처음 진정의 눈물 쏟으며  
사연깊은 편지를 써 띄운답니다.  
누구에게라 전하지 않고는 마음 달랠길 없어  
생사조차 몰라도 언제나 못잊은 어머니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거라!  
어머니는 자장가를 불렀으련만  
흑인의 출생은 노예의 출생  
즐거움이 될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열려있었건만  
나래칠 앞길은 캄캄하였답니다  
집떠난지 열두해 지나긴 세월  
흔들리는 선실밀창에 쓸어박혀  
《깜둥이》로 모욕당한 노예였기에  
천대하는 사람만이 가득차되던  
땅우의 세상이었습니다.

곤봉을 휘두르던 경찰  
여기서는 아니됩니다.  
세상만물 제것인듯 뽐내던 부르쥬아지들  
여기서는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수 없답니다.

아, 하늘나라가 있다더니  
그것이 조선인가싶답니다.  
태어나 스물다섯해만에  
셋하얀 병원침대에도 누워보았습니다.

끼니도 잇고 잠도 잇은채 런나홀  
조선의사들 제몸의 피까지 넣어주며  
흑인의 생명 구원해주었습니다.  
피를 주고도 더 주고싶어하는 사람들  
돈 한푼 안받고도 인간의 재생만이 기뻐  
그저 좋아 웃으며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등가죽을 벗기고  
인간이 인간을 팔고사는  
황금만능시대를 시궁창에 처박으며

사람을 첫자리에,  
사람을 그처럼 높이 들어올리며  
잃었던 삶, 짓밟혔던 존엄  
한꺼번에 되찾아주는 나라  
정녕 땅우에 또 있는가싶답니다...

철쇄에 얹매어 사는 노예라고  
조국이 없은것은 아니었습니다  
떠나고싶지 않으나 떠나야 했던  
조국을 쉬어도 잊어서  
못가는것도 아니였습니다

짓밟힌 식민지, 흑인의 조국  
수백년 팔려가는 아들딸을  
잡아돌 두팔마저 묶이운채  
숨겨져가는 짐승처럼 뒤쳐졌습니다.

흑인에게도 낱아 젖을 물린 어머니  
귀염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아, 이웃에는 소꿉놀이 처녀애도 있었건만  
어데론지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야자나무아래 둥근 초막집,  
어린시절 발자취 따거운 오아시스강변,  
남아메리카로 떠나는 노예상선에 실려갈 때  
눈물로 흘어지던 아프리카대륙...  
낮선 나라 조선에서 되불러보았습니다

아,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다시 없는  
인간존엄의 리상봉!  
이러한 나라 해쑈는 동쪽에 있는줄을  
20세기 70년대, 이체서야 알았습니다.

파도는 발밑에 철석이고  
배고동소리도 떠나기 아쉬운듯  
붕- 안타까이 붕-  
떠나면 다시 온다 기약할수 없건만  
마음은 영원히 떠나살수 없는  
아, 한없이 고마운 **김일성**원수님의 품이랍니다.

# 위대한 그 사랑의 손길아래

강현세

못잊어 못잊어,  
그날을 못잊어  
이름도 그날로 부른다 우리 영예군인공장  
여기 로라직장 계단에 설 때면...

감격과 환호의 꽃물결속으로  
환히 웃으시며 오시는 어버이수령님,  
그날의 그 영상으로  
오늘도 이 몸을 부축해주시는듯

걸음마다 이끌어서주시며  
온몸을 더웁혀주시던 그 사랑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 다 담아  
자욱마다 지켜보시던 사랑의 그 안광...

세월이 갈수록 그날의 그 감격  
나날이 새로와지고 또 새로와지노라,  
출근길에 아빠트 충계를 내리다가도  
문득 발걸음 멈추는 내 마음,  
행복이 물결치는 큰거리를 건다가도  
어버이사랑의 그 손길 몸에 느끼는 심정

아, 그날에 나는 어이하어  
제집 문지방처럼 발에 익은곳에서  
그토록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끼친것이라,  
눈앞이 흐리어 발길 놓이는곳을 몰라...

끝내 이 가슴속에 한가득 차오른것이  
어버이사랑의 손길 적시었을 때에도  
몸둘바 모르던 속마음마저 헤아려주시며  
더 살뜰히 부축해주시던 은정이어!

불타는 내 마음, 이 계단에 설 때면  
뜨거운 눈물에 젖는 내 마음  
락동강반의 그 교두보를 생각한다.  
백마산 기슭의 그 영예군인학교를 생각한다.

전사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채  
내 너무도 일찌기 원한의 강기슭에 쓰러졌을

때에도  
적후 천리 산발과 산발을 이어  
위대한 사랑의 품에 다시 안아주시고,

포화속의 수천리  
소생의 병동 그 침대머리까지 오시여  
우리를 최후방 아담한 교실에 이끌어주시고도  
기숙사에 오르내리는 길이 미츠러울세라  
한계단 또 한계단 부축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아, 은혜로워라, 그 사랑의 손길에 이끌리어  
우리 올라선 새생활의 계단 천이라, 만이라,  
오늘은 그 사랑의 계단이  
자동화직장 대리석 계단이 되었는데도  
가시는곳마다 우리를 먼저 보살피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수령님

위대한 사랑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쳐 가슴에 흘러든다.  
은덕의 격량은 사품치며  
심장속에서 구슬처럼 부서진다.

이 땅, 이 하늘아래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영광이어!  
백번 다시 태어나 천번 목숨바쳐도  
못다 갚을 크나큰 은덕이어!

따사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이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난 우리  
이 강토의 그 어디에 있어도  
밤낮으로 어버이사랑의 부축임을 받거니

오, 내 마음, 이 계단에 설 때면  
뜨거운 눈물에 젖어 흐느끼는 내 마음  
심장깊이 불타는 맹세를 아로새긴다,  
그 사랑속에 옮기는 투쟁의 걸음걸음에  
혁명의 붉은꽃 더 소담히 피우리라,  
떨기떨기 충성의 꽃송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게 하리라

# 열풍

리신현

채만식직장장을 찾아가는 소조원 리근식은 생각이 깊었다.

어제 리근식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채만식직장장은 절반도 채 타지 않은 담배가치를 재털이에 모질게 눌러졌다.

《어서 오시오.》

직장장은 의자를 권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생겼는지 그는 말없이 책장만 뒤적이었다.

리근식은 직장장이 이마살을 찌프리고있는것을 보자 말없이 조용히 앉았다.

워낙 파격한 성미인 채만식은 자기와 만나던 첫날에도 《소조원동무, 내 성미가 고약해놔서 사업과정에 더러 실수를 하지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오.》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리근식은 평소에 직장장과 대하기 험하면서 이럴 땐 자기 사업의 공백을 헤쳐놓을것 같아 은근히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뭐 생산이 왔다갔다하는 일은 아닙니다.》

채만식이 제편에서 먼저 위안조로 나오며 대머리를 쓸어만졌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요즘 분기생산과제를 아슬아슬하게 넘구느라 분주히 굴러다니는 직장장인데 그 일도 아니라니 몹시 궁금하였다.

《동혁동무가 현장기사일을 못해먹겠다지 않습니까 허 참...》

채만식이 어처구니없어하는 이 말속에는 동혁이가 직장장밑에서 일한다는것과 자기의 믿음을 그가 저버렸다는 울분이 한데 섞여있었다.

동혁은 주형작업반에서 착공식다짐기공으로 일하며 공장대학을 졸업하고 현장기사로 직무를 바꾼지 일년도 채 안되는 청년이었다. 동혁기사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리근식은 그가 다른데로 자리를 뜨려는 속내도 짐작하기 어려웠다.

리근식은 이제 겨우 열흘남짓한 기간이긴 하지만 실은 주형직장사람들의 생활에 파악이 깊지 못하다는 가책이 들어 저절로 얼굴이 뜨끈해졌다.

제판엔 우선 직장의 중심문제에 발을 붙이느라고 채만식직장장과는 자주 열변을 토하면서 다

른 생활의 구석까지는 미처 관심이 미치지 못했었다.

그는 한시가 급하게 직장을 현대적기술장비로 번듯이 꾸려보자고 꿈꾸었었다.

(그런데 그가 현장기사일을 못하겠다고 하다니...)

그는 현장기사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지는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였다. 더우기 자기가 앞으로 하려고 마음먹은 많고많은 일들이 어떤 난관속에서 벌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미치며 벌써 량어깨가 무거워지는것 같았다.

《무슨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게 아닐가요?》

《물론 그렇지요.》

자리에서 일어난 채만식은 서류장문을 열고 무슨 종이두루마리를 꺼내어 책상우에 놓았다.

《이게 끝내 말썽인가봅니다.》

리근식은 채만식이 펼쳐놓은 종이두루마리에서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설계도》라고 박아쓴 글을 보고 내심 크게 놀랐다.

그것인즉 녀달전에 동혁기사가 설계하여 제출한 도면인데 아직 서류장속에 묻히운채 채만식직장장과 현장기사와의 빈번한 의견충돌을 일으킨 모양이었다.

채만식은 동혁기사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하소하듯 소조원에게 말했다.

《어제 일만해도 그렇지요, 난 주형2작업반에서 가공직장대형프레나본체 주형을 오작별한 엄중한 사실을 눈감아줄수 없어서 현장기사를 불러다가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중요한 제품을 로동경력이 2년밖에 안되는 남길동무한테 맡겼으니 할수 없지요.》

새로운 진동식다짐기를 만들어줬다면 몰라도 착공식다짐기야 햇내기로동자를 낮가림하게 생겨먹은 물건이 아닙니까. 매집이 좋아도 그런 책임은 못지겠습니까> 하고 말하는게 아닙니까.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설계를 계획에 물려주지 않는다는 투정질이였습니다. 낸들 이 도면을 끼고 앉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작년에 이 도면이 나왔을 땐 년간계획을 제끼느라 정말 바지훈술이 터지게 뛰어다녔지요. 금년엔 변한 날이 있었습니까. 소조원동무도 보다싶이 생산은 긴장하지요.

로력과 자재를 당장 물리채도 곤란하지요.》

열이 부쩍 오른 채만식은 머리를 뒤로 제끼며  
넙적한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대었다. 소조원앞에  
내비친 울화의 빛을 지워버리려는것처럼...

리근식은 아무말없이 기사의 설계도면을 번저  
가며 오래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도면에서  
점과 선들을 꼼꼼히 짚어가며 그는 깊은 사색을  
이어갔다. 종이장우로 흘러가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은 무슨 일에서나 진중한 그의 성미 그대  
로를 보여주었다.

설계도면을 대하는 리근식의 신중한 태도에 침  
묵을 지켜오던 채만식은 《난 본지가 오래돼놔  
서...》 하며 혼자말을 하였다.

그는 리근식이 도면을 덮어두기 바쁘게 도로  
당겨가더니 대충 훑어보다말았다.

《이 바쁜통에 설익은 도면을 가지구야 어떻게  
해보자는 용단을 내리겠습니까.》

리근식은 말없이 앉아있었다. 무릎우에 놓인  
두주먹을 연방 쥐었다 폈다하였다. 손에는 땀이  
흘렀다. 목깃단추를 끌러놓고 그는 또 한동안 묵  
묵히 앉아있었다.

소조원의 그런 모습을 보자 채만식은 부시럭거  
리며 담배를 꺼내어 물었다.

직장장은 담배를 태우고 소조원은 쏘양게 피어  
오르는 담배연기속에 앉아있었다.

담배연기로 하여 가슴속이 더욱 답답해진 리근  
식은 생각이 깊어졌다. 첫눈에도 설계도면에는  
부족되는 점이 있다는것이 알렸다. 하지만 그속  
에는 매일같이 땀투성이 얼굴에 먼지를 들쓰는  
주형공들의 일손을 헐하게 하고 하루빨리 신선한  
공기를 안겨주려는 기사의 열망이 불타고있지  
않는가. 그 눈부시고 환희로운 생활이 꿈처럼 찾  
아들게 하려고 동력은 자기의 창조물에 모든 정  
열을 깡그리 쏟아부었을것이였다. 기사의 그 마  
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에 비하면 직장장의  
말은 너무도 차갑고 뻥뻥했다.

물론 리근식은 동력의 기술혁신안이 어느정도  
로 현실성이 있는지 아직 다는 알수 없다. 그렇  
기때문에 직장장이 기사의 설계도면에 의견을 가  
지는것은 리해할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도면  
에 부족점이 많다 한들 거기에 담긴 주형공들에  
대한 기사의 마음까지 의견을 가져서야 되겠는  
가.

주형공들을 위하여 혼자 기술준비실에서 몇밤  
을 패기도 했을 동력기사는 자기의 기술혁신안만  
아니라 자기의 진정이 깃뻳혔을 때 더욱 피로왔

을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쉽게 설계를 포기했  
을지 몰랐다.

리근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을 꺼내기 피로울 때처럼 그의 손이 책  
상우의 모자만 만지작거렸다.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  
나 제생각에는 기사동무의 이 도면을 추진시켰어  
야 했을것 같습니다.》

《.....》

직장장앞에서 돌아선 리근식은 문을 열고 나와  
버렸다.

한동안 유리창이 떨렸다. 창유리에 반사된 공  
장건물들도 죄다 나무잎처럼 파르르 떨고있었다.

주형장의 두터운 벽체를 관통한 아름다리 송풍  
관이 지나갔다. 뜨거운 열풍이 흘러가며 둔중한  
음향을 냈다. 그 소리에 땅마저 요란히 울렸다.

리근식은 발밑에 뿌리내린것처럼 걸음을 멈추  
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 하루빨리 고열로동을 없애  
고 우리 노동자들이 문화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하시려고 그토록 심려하시고계시는데 여기 주형  
공들이 쏘얀 먼지속에서 힘겹게 일한다는걸 아시  
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 한 기사가 그이의 크  
나큰 사랑을 주형공들에게 안겨주려고 밤새워 모  
색하며 새 기술혁신안을 찾아냈다면 그보다 장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설사 발기만 하고 아직 실  
현하지 못했다해도 그의 노력은 가장 영예로운  
일에 바쳐진것으로 하여 응당한 평가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책임일꾼들은 눈앞에 부과  
된 생산에만 몰두하며 그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  
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밖은 어두워진지 오래다. 밤은 얼마나 깊었는  
지 알수 없었다.

리근식은 동력기사의 집으로 찾아가고있었다.

인적이 그친 공장길에는 가로등만 조울듯이 떨  
고있었다. 리근식은 깊은 생각에 잠겨 걷노라 자  
기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조차 똑똑히 의식하지  
못하였다.

얼마후 아담한 단층주택들이 들어앉은 사택마  
율이 그를 맞아주었다. 한밤중에도 장식등간관이  
화려한 상점, 동력기사의 집은 그 옆에 오붓이  
자리잡고있었다.

담장을 낮게 둘러친 마당안에는 불빛이 없었다.  
창유리에 불그레 물들어있는것은 집안에서 내비  
치는 불빛이 아니라 밖에서 비쳐주는것이였다.

리근식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방문이 인차 열렸다. 리근식은 어둠속에서도  
기사의 얼굴을 가려보았다. 방안에 불이 켜졌다.

리근식은 창문을 막아선 기사의 어깨너머로 벽  
이 모자라게 쌓아올린 책들을 바라보았다.

동혁기사는 아닌밤중에 나타난 소조원을 반갑  
게 맞아주었다.

《소조원동무가 어떻게?》

《밤늦게 찾아와 안됐습니다. 래일 만나도 되겠  
지만 이렇게...》

《직장장동무한테 무슨 말을 들은 모양이군요.》

《대충 들었습니다.》

리근식은 어쭙게 웃으며 기사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다.

기사는 무안을 느낄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소조원에게 자리를 권했다.

리근식은 허물없이 앉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요즘 생각이 많은것 같은데.》

《생각이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기사는 담배를 근식에게 권하고 자기가 먼저  
성냥을 그어붙였다.

《나는 기사동무의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새  
로운 진동식다짐기설계도>를 보았습니다.》

동혁기사는 담배를 깊숙이 들이빨아 흰 연기를  
쭉 내뿜으며 말했다.

《직장장동무가 죄다 터쳐놓았을텐데요. 동혁이  
가 못된놈이라구요.》

《하하하... 무슨 말을...》

리근식은 허리를 펴며 호탕하게 웃었다.

《동혁동무, 오늘은 나도 할말이 있고 동무도  
하고싶은 말이 많을텐데 우리 툭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소조원동무, 그렇다면 나도 말하겠습니다.》

동혁은 리근식의 손을 움켜잡았다.

몹시 흥분된 그의 음성은 기쁨이라기보다 애원  
에 가까운 절절한 감정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찾아왔겠소.》

동혁은 책상우에서 재떨이를 가져다 앞에 놓고  
앉았다.

《나하고 이렇게 허심히 마주앉아 이야기한 사  
람은 많지 않았지요.》

열여덟나이에 착공식다짐기를 잡은 기사는 로  
동현장에서 단련된 굵은이답게 건장한 체구에 탄  
력이 넘치고 어글어글한 눈이 정열로 빛났다.

사람 대함이 서글서글하고 팔팔하기로는 채만  
식직장장과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현장기사로 일하게 되자 나는 내가 착공식다

짐기를 잡고 일하던 그전날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일이란 먼지가 많이 나고 힘든것입니다. 하  
지만 나는 현장일을 지도하면서도 이 작업은 그  
저 그렇게 하는것이거니 하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3대기술혁  
명의 방침을 안겨주시였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착공식다짐을 먼지도 안나고 쉽게 할수 없을가  
하고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색은 동지  
들의 도움으로 진척되어갔습니다. 현장일군도, 기  
술일군도 지어는 기중기운전공처녀까지도 나의  
설계도면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들의 노력을 아끼  
지 않았습니다....

동혁기사는 설계의 착안과 그 진척과정에 있었  
던 여러가지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낮과 밤을 새워가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흔히  
당자들이 비치기 어색해하는 말까지도 자연스럽게  
계어나갔다.

리근식은 때로 턱을 쓸어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팔로 무릎을 싸안기도 하면서 동혁기사의 말  
을 들었다.

...주형장에는 기사를 돕는 많은 사람들중에 처  
녀도 있었다. 금실이라고, 예쁘장한 기중기운전공  
처녀인데 동혁기사가 한창 《새로운 진동식다짐  
기》를 설계할적에 그는 한시바삐 성공의 기쁨을  
나눌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일이 끝나면 요긴한  
참고서적을 구하러 공장도서관으로 달려다녔다. 그  
는 기사의 얼굴이 좀만 흐려져도 한켠구석의 책  
상앞에 오도카니 앉아 혼자 안타까와했다. 현장  
에서 기중기를 운전할 때 처녀는 기사가 나타나  
면 늘쌍 숫저웁게 한번만 《딸랑-》종을 울려주곤  
했었다. 그 부끄럼타는 애된 소리로 하여 그들은

주형장에서 일하는 보람이 남달랐고 그 은방울  
굴리는 소리만 가슴속으로 흘러들면 밤새운 피곤  
도 열정의 샘에 씻긴들 말끔히 가셔지곤했다. 자  
기를 돕기 위하여 아등바등 애쓴 처녀의 기특한  
마음을 알게 된 동혁의 기쁨은 그 종소리가 간직  
한 아름다움으로 하여 한결 밝아지는듯싶었다.

《소조원동무, 별이 하늘보다 더 크다고 하면  
영터리없는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사랑이 생활  
의 전부를 포함하고도 남는것 같이 크고 벅차게  
느껴지던 때가 있더군요.》

동혁기사는 어둠속 어딘가에 멍한 시선을 주다  
가 모두숨을 내쉬며 졸했던 가슴을 쭉 폈다.

《사랑과 랑만에 찬 그 시절이 얼마나 좋습니  
까.》

《웁습니다. 전 주형공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

했을 때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설계도 너무나 빨리 끝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장장이 부결났지요. 그는 직방 들이였습니다. 유능한 기술자의 설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가 있다구 했지요. 저 같이 처음 설계를 내놓는 사람은 셈속에도 넣지 않았지요. 생산을 책임진 직장장의 립장도 좀 생각해보라고 하다가 나중엔 자기 실력이 아직 남한테 부담으로 될만큼 어릴 땐 심중하게 처신하는게 좋다구 하더군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였습니다. 전 설계를 하면서 주형공들을 돕는다고만 생각했지 누구를 고통스럽게 만들리라고는 상상해보본적이 없었습니다. 탐구사업에 바친 정열이 것처럼 무의미하게 됐을 때 저는 더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처녀를 보는것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에야 저는 하늘이 크고 별이 작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생활에서 가장 귀중한것을 잃었다.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설계에 온 정력을 쏟았던것처럼 한순간에 생활의 향기가 가셔지고만것이였다. 직장장의 시원한 동의를 얻지 못한 동혁은 스스로 모든 희망을 단념해버렸다. 직장장의 말이 옳은지도 모른다. 미숙한 설계를 들고다니며 직장장의 얼굴만 팔겠는가. 차라리 덮어버리고 말자!

동혁의 말을 조용히 듣던 리근식은 그에게 명백히 선을 그어 말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난관에 쉽사리 넘어질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장동무는 주형공출신의 일군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너무도 큰 믿음을 안고 찾아갔다가 그렇게 된 일이지요.》

동혁의 음성은 자기 잘못을 뉘우친듯 떨렸다. 기사는 무겁게 고개를 수그리고 앉아있었다.

리근식은 방안을 천천히 휘둘러보면서 한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난 기사동무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물러설수 있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사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겠다는 이악한 일본새가 없습니다.》

리근식을 애원에 찬 눈길로 바라보던 동혁은 고개를 꼭 떨구었다.

《이것은 동무가 주형공들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실지로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은것이 아니

겠습니까.》

동혁기사는 넋잃은 사람처럼 일어섰다...

동혁기사의 집에서 떠난 리근식은 합숙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모대졌다. 동혁의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리근식은 시간가는줄 몰랐다. 주형공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그렇게서 쳐다보던 기사의 얼굴이 그와 함께 밤을 밝히고 있었다. 기술자로서의 첫발자국을 떼는데 불과한 동혁의 실력만 타발하며 어린 기사를 뜨겁게 안아주지 못하는 직장장에 대한 안타까움도 모두 그의 곁에 있었다. 그래서 리근식은 자기 손으로 도면의 미숙한 점들을 하나씩 지울 때마다 더없이 기뻐다. 그는 동혁기사의 깨끗한 마음이 어린 도면에 얼룩이 가지 않게 글자까지도 기사의 글씨와 꼭같이 정성스레 그려넣군하였다. 소조원의 방에는 온밤 불이 환했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길다란 불빛은 어둠이 깃든 공장구내의 한복판을 가르며 멀리로 비쳐가고있었다. 그의 방에 불이 꺼졌을 때 리근식은 벌써 흰히 들리는 하늘한끝을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리근식이 마주 걸어나가는데 동혁기사의 얼굴이 문안으로 들어왔다. 아마도 잠들지 않았겠는가 해서 오래동안 밖에서 망설였던것 같았다.

《신새벽에 어떻게?...》

근식은 한밤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듯한 동혁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자리를 권했다.

동혁은 침대우에 이불이 퍼있지 않는것을 보아 소조원동무가 밤을 밝혔다는것을 인차 눈치챘다.

《소조원동무, 정말 미안합니다. 잠을 잘수 없습니다. 소조원동무가 돌아간후에 나는 지난날 생활을 총화해봤습니다.》

동혁은 머리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동무의 생활에 의견이 있었지요.》

《옳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지 못하고 기분에 사로잡혀 일을 끝까지 성사하지 못한 내가 무슨 기사겠습니까.》

《동혁동무.》

리근식은 동혁의 손을 뜨겁게 꼭 잡았다. 동혁은 조용히 울고있었다.

《사실 소조원동무의 말은 설계에 대한 직장장동무의 반대보다 더 가슴아프게 울렸습니다. 정말 피로왔습니다.》

《자 우리 설계도면을 완성합시다. 주형공들이

코노래를 부르며 일하도록 합시다.》

《예!?!》

두사람은 오래동안 헤어졌다 만난 혈육같이 서로 안고 돌아갔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지난밤을 새운데 이어 새날에 들어섰다. 밤이 오고 새날이 왔다. 그 다음날 밤도 가고 또다시 새날...

근식은 이 도면을 관리국 기술처에 가져다가 기술적가능성에 대한 담보를 받았다. 뒤이어 공장기술협의회에 불일 준비를 동혁기사에게 시켰다. 일은 줄기차게 진행되고있었다.

× ×

주형2작업반원들을 찾아 발길을 재촉해가는 소조원 리근식의 마음은 울렁거렸다.

(주형공들이 《새로운 진동식다짐기》를 만든다는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늘쌍 긴장된 생산과제를 안고 바빠 뛰는 가슴들을 사랑으로 덤혀주고 불태워주자!)

후반교대인 그들은 인계시간까지 불과 십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사방에서 착공식다짐기들이 푸룩거리는 소음은 흡사 어떤 맹렬한 마치질소리처럼 고막을 두드려대고 천장기중기밀에서 쇠물남비를 기울이는 로동자들의 머리우로는 진한 주황색불노율이 비껴흘렀다.

굽슬머리청년이 기름때가 반질반질한 작업모자를 빼닥하게 귀에 붙이고 착공식다짐기의 고무호스를 흥심없이 손질하고있었다. 바람 새는 구멍이라도 있는가 하여 귀기울여 들어도 보며 유심히 살피고있었다.

남길이였다. 전번에 가공공장 대형프레나본체주형을 오작낼번하고 직장장한테 된육을 먹었다는 말이 생각났다.

리근식은 청년의 곁에서 발길을 멈췄다. 남길은 흘끔 리근식을 쳐다보았다.

《고장났소?》

《아닙니다. 그저 점검해보는거지요.》

남길은 길게 늘인 고무호스를 당기어 스펙스적사리기 시작하였다. 소조원도 남길의 일손을 도와 고무호스를 당겨주었다.

《소조원동지, 동혁기사가 다른데로 간다지요?》

리근식은 속으로 꿈쩍 놀랐다.

《어디서 들었소?》

《그저 떠도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근식은 직장안에 본의아닌 말이 떠도는것에 놀랐다. 사람들속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는것만도 근식은 자기 사업에 대한 반성을 깊이 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리근식은 남길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남길동무, 동혁기사는 아무데도 가지 않소. 그리고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에 대한 설계도 완성시키게 되오.》

《정말인가요?》

《정말이지 않구...》

남길의 어깨에 손을 얹은 리근식은 조용히 말하였다.

《동혁기산 주형공들이 먼지속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에 다시 달라붙었소. 기쁘지 않소? 인차 기술협의회를 열고 제작에 착수하자고 하오. 로력과 자재, 애로되는게 많지만 우리들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소.》

《히야, 그런걸 모르고 난!》

뒤통수로 올라간 남길의 손은 모자를 바람개비처럼 빙그르 돌리더니 리근식의 곁에서 공휘듯 후닥닥 뛰어갔다. 났없이 동혁기사한테로 달려가고있었다. 한데 너무 기뻐짐에 혼자 훌쩍 달려간 일이 미안한지 저쯤 가서 히죽 웃으며 리근식을 돌아봤다. 리근식의 얼굴에 피어난 너그러운 미소가 그 순간엔 류달리 환해보였다.

어느덧 다감한 그의 눈길이 머리우의 한곳으로 옮겨갔다.

교대시간이 되어 멈춰선 천장기중기꼭대기에서는 금방 교대하러 나온 빨간 머리수건의 처녀가 한손에 기름통을 들고 바람타고 날아가는 나비마냥 가벼이 이리저리 옮겨앉으며 흥겹게 코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밤일을 마친 금실이는 작업일지를 적는지 운전칸안에 아련히 머리를 숙이고 앉았다. 열려진 피창문의 한귀통이를 통해서는 수심에 잠긴듯한 처녀의 얼굴이 엿보였다.

교대를 마친 주형2작업반에서는 휴계실에 모여 작업총화를 짓고있었다.

소조원 리근식은 반원들속에 끼여앉아있었다.

그는 남길이와 금실이를 이따금씩 바라보곤하였다.

작업총화에서는 남길이를 포함한 로동년한이 어린 동무들의 기술기능이 높아졌다는것을 이번 제품생산을 통해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반장이 만족하게 결속을 지었다.

작업총화가 끝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담배를 꺼내물었다.

《동무들! 소조원동지가 <새로운 진동식다짐기>를 완성시켜준답니다.》

남길이가 근식이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새로운 진동식다짐기>를?!》  
 《동혁기사가 하다가 켜버린것말이야?》  
 작업반원들은 일제히 놀라듯 근식이와 남길이를 바라보았다.  
 《동혁기사가 켜버린것이 아닙니다. 기사동무가 지금 설계를 완성하고있습니다.》  
 《?!...》  
 금실이는 눈이 동그래서 소조원을 바라보았다.  
 소조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금실이를 건너다보았다.  
 《내가 <새로운 진동식다짐기>를 완성시키는것이 아니라 동혁기사동무가 완성하고있습니다. 중단되었던 일이만큼 동무들도 동혁기사동무를 도와줍시다. 금실동무가 그전에 수고 많았지요.》  
 《소조원동무 될것 같습니까?》  
 구석쪽에 앉았던 동무가 이제까지 묵여뒀던 설계를 다시 꺼내 완성한다니 믿을만한가고 묻는듯이 소조원을 바라보았다.  
 요 몇달어간에 동혁기사에 대한 태도가 일변하여버린 그들이었다. 주형장을 제집 나들듯하던 기사는 발길이 차츰 드물어지고 이전의 작업반원들을 만나면 겨우 몇마디, 별로 내키지 않는 말을 서먹서먹하게 나누기 시작하는 매정한 사람으로 인정돼버렸었다.  
 《왜 이렇게 쳐다만봐요. 용해장에선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네도 무슨 마련이 있어야겠다며 설설 끓는데 우린 왜 이래요!》  
 남길의 안타까운 호소는 자못 절절히 울렸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탕하고 출입문을 밀고나가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성난 소리가 뒤따라 나갔다.  
 《누구요?》  
 《금실이가 나갔소!》  
 그러자 무거운 기분에 잠겼던 사람들이 소조원의 얼굴을 쳐다봤다.  
 《끝내 금실을 울려봤군. 이건 모두 내 잘못이요. 사실 동혁기사가 설계를 버린건 본인의 탓이 아니요. 글썄 새 기술혁신안이 나왔는데 모두 딱해하며 내밀어주지 않으니 별수 있소.》  
 《반장동무, <모두>란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까?》  
 금실의 눈물이 불러일으킨 동정때문인지 남길은 더욱 흥분했고 작업반원들은 얼굴이 벌겋게 들변해서 벽적 떠들었다.  
 《소조원동지, 이걸 좀 보십시오.》

열이 오른 남길은 휴계실복판을 차지하고 책상 위에 보풀이 인 종이장을 보란듯이 내놓았다.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의 자재명세였다. 남길의 열성에 감심한 사람들은 어깨를 겹놓고 그 주위에 빙 둘러서며 더욱 웅성거렸다.  
 자재명세는 남길이 자신이 만든것이었는데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밝혀져있었다.  
 자재명세의 대부분은 주로 사장돼있는것이거나 자체로 예비를 찾는다고 비고란에 적혀있었다.  
 소조원 리근식은 남길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힘있게 말했다.  
 《남길동무, 훌륭한 명세입니다. 자재를 동무들이 알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념려마십시오, 우리가 동원되어 해결하겠습니다.》  
 근식은 주형2작업반 휴계실을 나섰다. 노동자들의 열망이 대단히 높은데 놀란 그는 신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       ×

공장기술일군들의 참가하게 열린 기술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협의회에는 작업반장들과 남길이를 비롯한 혁신자들도 참가하였다.  
 직장장 채만식은 아직 입을 한번도 열지 않았다. 그대신 손바닥만한 수첩을 펼쳐놓고 무엇인가 그냥 쓰고있었다.  
 3대혁명소조원 리근식은 동혁기사의 기술설계도면에 대한 기술적자료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토론을 붙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였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토론이 진행되다가 그것이 고조되어 이제는 논쟁을 하였다.  
 그랬으나 채만식은 자기자리에 고정된 자세로 뼈뚜름히 앉아 현장을 내다보며 게면쩍게 턱밑을 쓸어만지지만 했다.  
 다른 사람들은 묵묵히 앉아 직장장의 눈치를 봤다. 그후 한두사람이 일어나 발언했지만 결론을 지을 직장장이 입을 꼭 다물고있으니 협의회 열기는 점차 식어들고있었다. 저도모르게 목깃을 풀어놓은 리근식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봤다.  
 혁명소조원이 시계를 보는것을 눈치챈 채만식 직장장은 앉은자리에서 수첩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보수주의를 부렸는가봅니다. 동혁기사동무의 설계도면을 이와 같이 군중토의에 붙였더라면 벌써 진척될수 있었을것이었는데 잘못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장장 15년간의 경험은 리론과 실천이 잘 맞지 않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산지표나 벌거놓고 하자는데입니다.》

《후에 하자고 밀어놓고는 언제 해결한것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직장장의 말을 가로채며 투정질하듯 말했다.

리근식은 소조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슴속의 흥분을 가라앉힌 후 낮은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조종화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보다싶이 우리는 매일같이 먼지속에서 착공식다짐기를 불안고 몸부림치고있습니다. 가슴아프지 않단말입니까. 아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도 덜하는 법입니다. 무엇을? 내나 어느 다른 사람요? 아닙니다. 조국을! 조국을 덜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생산을 책임진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한다고 보겠습니까. 생각해봅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의 실패를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습니까.》

리근식의 격한 마음이 터졌다.

그 순간 누군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는 삐걱덕소리가 났다. 주형2작업반 반장이었다.

《소조원동무 말이 옳습니다. 사실 주인인 우리들이 부끄럽습니다.》

장내엔 숨소리조차 없었다.

《어제 작업총화 뒤끝에 남길동무는 <새로운 진동식다짐기> 자재명세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아마 지금쯤 자재예비를 찾아 사방으로 헤맬것입니다.

난 왜놈때부터 주형장에서 일해서 잘 압니다. 지금이야 우리 주형공들이 얼마나 떠받들려 일하니까. 누가 먼지를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는줄 압니까? 그래도 <새로운 진동식다짐기>를 만들어준다니 고맙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것때문에 동력기사가 고민해서야 되겠습니까.》

말을 마친 오랜 주형공의 검실검실한 눈에선 밝은 광채가 번쩍이었다. 이어 술진 눈썹밑이 뿌연 물기로 흐려진 작업반장은 리근식을 은근히 마주 바라보고있었다.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무엇을 참느라고 리근식은 어금이를 짓물었다.

그러나 끝내 내비친 눈물을 보았는지 슬며시

얼굴을 돌리던 작업반장은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소조원동지 이만 토론하는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따라나설 결심을 했습니다.》

낮고대 용해작업반청년이 일어나 말하자 여기저기에서 곁따라 한마디씩 하였고 그러지도 못한 사람들은 감동된 낮빛으로 동감을 표시하였다.

조금후 방안에는 두사람만 남았다.

리근식은 유리창앞에 뒤집히고 선 직장장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채만식의 험상궂은 얼굴에서 안면근육이 푸들푸들 뛰고있었다. 이따금 용해장의 주홍색 쇠물빛이 유리장을 꿰뚫고 비쳐들어 그의 얼굴에 용접광처럼 부딪치며 빙긋거렸다.

《직장장동지, 주형2작업반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가슴을 울려줍니까. 그들은 동혁기사가 자기들때문에 고민한다는걸 알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기사동무를 힘껏 도와줍시다. 그것만이 오늘에 와서 생산을 책임지는 우리의 일본새라고 생각합니다.》

리근식은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채만식이 유리창밖으로 현장을 내다보며 후 모두숨을 내쉬었다.

리근식은 조용히 방을 나서 기술준비실로 갔다.

기술준비실 창문앞에는 동혁기사가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있었다.

《소조원동무 부끄럽습니다. 주형공들의 열의에 저는 놀랐습니다.》

리근식이 세찬 바람을 안고 방안으로 들어서자 기사는 자신을 호되게 매질하며 가슴을 쳤다.

《내가 주형공들을 위했던 마음이란 무었니까. 자기 감정앞에서 저버린 편협한 사랑, 그것뿐이었지요. 나는 주형공들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있다는걸 모르고 살았군요.》

《기사동무, 직장장동지도 동무를 굳게 믿고있소!》

기술협의회가 끝난 뒤로 일손을 잡지 못한 동혁은 소조원을 고마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바깥에서는 채만식직장장이 와서 문고리를 잡다가 놓는 모양이 보였다. 창문을 불어스치는 바람소리가 발길을 돌리는 그의 마음속 여운처럼 방안에 길게 울리고있었다.

리근식은 기사의 방에 직장장이 찾아온 일을 기쁘게 생각하며 말하였다.

《기사동무 어떻습니까. 래일이면 기술협의회에서 토론된대로 설계를 완성할수 있겠습니까?》

《소조원동무!》

동혁기사는 리근식의 손을 굳세게 잡고 일어서며 감격적으로 부르짖었다.

기사의 방에서 나오자 리근식은 휴식도 잡도 잇은채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의 자재해결에 펼쳐나선 주형공들을 찾아가고있었다. 작업반장의 말처럼 그들은 먼지속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기술혁명에 한사람같이 일터 섰다는 마음때문에 더 열성적이었다. 리근식의 가슴은 한없는 기쁨으로 부풀어올랐다. 그는 《새로운 진동식다짐기》 제작에 앞을 다투어 결기한 주형공들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으로 숨엄히 안겨왔다. 어느새 저쪽 구내길로 네댓명의 주형공들이 손달구지에 소재덩이를 싣고 와작 떠들어대며 밀려오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 뒤로 목고를 멘 또 한패가 따라오는데 앞에선 작업반장이 이컨저컨으로 왔다갔다하며 신칙을 했다. 리근식이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였다. 그의 눈길은 문득 주형직장 굴뚝옆에 모형기중기처럼 두다리를 척 벌리고 선 채만식직장장한테 못박혔다. 그가 왜 그렇게 한자리에 뼈뚫 섰는지 미심한 생각이는 리근식은 그리로 가까이 다가갔다.

채만식직장장의 몇발자국 앞, 철바자를 둘러친 직장자재창고안에서는 쇠붙이들의 부딪침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리근식은 자재창고안에서 육중한 쇠덩이와 필사적으로 싸우는 처녀의 용감한 모습을 보았다. 금실이였다. 창고원령감은 어디로 갔는지 처녀 혼자 한쪽구석켠에 사장된 소재를 찾아내고있었다. 그의 온 정신은 연약한 팔로 힘겹게 들어옮기는 쇠붙이에만 팔려있었다. 굴뚝재가 날아앉아 해벌에 그을은양 까실까실한 그의 얼굴로는 팔죽땀이 마구 흘러내렸다.

했으나 리근식은 처녀보다도 직장장한테로 기쁜 마음이 쏠렸다. 동혁기사이자 금실이여서 이래저래 처녀한테도 미안한 일이 많은 직장장이기에 저렇듯 우뚝 굳어진채 오래도록 바라보지 않는가! 그때 리근식의 눈앞에서는 너무도 예견치 않았던 돌발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금실이...여기서 뭘 하고있소!》

채만식직장장의 통명스런 목소리였다.

《네?》

처녀는 놀란듯 흠칠 뒤돌아보았다.

리근식은 금시 자기 몸으로 전해오는 긴장감을 느꼈다. 채만식의 어깨너머에서 금실의 애원에 찬 눈길이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동시에 처녀의

손에서 힘없이 쇠덩이가 떨어졌다!

그러나 처녀는 채만식을 향하여 웅크렸다.

《우리 <새로운 진동식다짐기>를 만들고있어요!》

처녀의 음성은 마치 자기의 권리를 수호하는 항변과도 같았다.

리근식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어서 들어가 쉬라구!》

직장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으나 그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주는 그 무엇이 있었다.

리근식은 채만식이라도 자기대로의 고심이 있어 터친 말임을 알고있었다.

얼마후 리근식이 채만식과 나란히 직장으로 걸어올 때였다.

《직장장동지, 저 동무들이 밤일을 하고 수고하는데 인젠 보내지 않겠습니까?》

리근식이 먼저 말을 떴었다. 채만식은 누가 할 소릴 누구한테 하느냐는듯한 표정으로 리근식을 바라보며 멈칫했다.

그러다가 다시 천천히 발길을 내디디었다.

《예-》

그는 자신없이 대답하였다.

직장장의 얼굴에 비낀 그들은 한결 질여가고있었다. 십오년간이나 직장장사업을 하면서도 채만식은 아직 누구한테도 험폰 말을 들은적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였다.

그한테는 자기가 결심한 모든 일이 반드시 좋은 결실만을 본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러한 그가 자기 의도와는 다른데로 사람들이 지향하고 열정을 불태우며 내달는 놀라운 현실앞에 서게 된 것이였다.

시대를 따라서지 못한 이 일군은 아직 생활의 가늠에서 바재이며 자신뿐아니라 결사람까지 괴롭히면서도 대담하게 한복판으로 뛰어들지 못했었다.

그들앞에서 돌개바람이 휩 일며 질주하더니 얼마 못가 맥이 빠진듯 이내 찾아버렸다.

× ×

채만식은 공장자재부장을 만나고 자정이 가까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땀으로 후줄근해진 팔소매를 걷어올린 그는 책상앞에 마주앉아 후- 숨을 내쉬었다. 여하튼 래달중으로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에 요긴한 자재를 보장받기로 합의를 봤은즉 땀들일 마음의 여유도 생겼었다.

그때 좌- 융해공들이 로에 열풍을 취입하는 소

리가 들려왔다.

오늘따라 거창하게 울리는 음향에 이상한 흥분을 느낀 채만식은 슬며시 일어나 창문앞으로 다가섰다.

순간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고 눈을 크게 떴다.

난데없이 주형장 한복판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모아붙어서 옷통을 벗어붙인채 왁작 떠들어대며 기운차게 땅을 파고있었다.

이게 웬일인가? 그들이 부쩍 일손을 다그쳐댈 수록 채만식의 의혹은 더욱 커져갔다. 저 사람들이 벌써 《새로운 진동식다짐기》의 기초를 파고 있는게 분명하지 않는가!

채만식은 순간 깜짝 놀랐다.

그는 성급히 문을 내지르며 현장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기초자리는 벌써 반길나마 움푹 파헤쳐져있었다. 그의 바쁜 걸음을 막아서듯 구덩이안에서는 노동자들의 웃음소리가 연방 쏟아져나왔다. 그 주위에선 어느 교대이며 무슨 직종을 가졌는지 알수 없는 사람들이 붐비고 그들의 머리위로 꼭 팽이뿔들이 번쩍번쩍 쳐들리며 숲처럼 설레었다.

거기에 노동자들의 메깁소리, 쟁기부딪치는 소리, 우스개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며 더욱 흥겨운 일판을 벌리고있었다.

공사장의 흙무지우에는 땀으로 잔등이 거뭇게 된 리근식이 높이 서있었다. 소조원은 시원히 걸어들린 팔뚝으로 번질번질한 이마를 씻고나서 어딘가 주형장의 아찔한 천장쪽을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모두 저렇게 성수가 나서 일할수 있단 말인가!

과연 저 사람들이 유쾌히 웃어대며 기초를 파는건 무었때문인가. 주형장의 먼지속에서 힘겹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쁨때문인가. 아니, 그것이 아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일이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글타글하며 일하지 않을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일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심장은 불탔고 사랑이 북받쳤던것이 아닌가.

채만식은 승고한 감정에 잠겼다.

저 무진장한 힘을 보았기에 소조원 리근식은 분기말을 앞둔 긴장된 생산과제도 두려움없이 확신성있게 동혁기사의 《새로운 진동식다짐기》 설

계를 내밀었던 사람이였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

그러자 시대의 줄기찬 흐름속에 합류되지 못하고 물가를 떠도는 잔기름처럼 부대낌속에서만 살아온 허탈감이 또한번 가슴속을 휘저었다.

갑자기 현장안이 대낮처럼 확 밝아지며 용해장 쪽에서 축포의 꽃보라가 일었다. 금방 출선한 쇠물이 불구슬마냥 쏟아져내리며 튀어올라 눈부신 화광을 내뿜고있었다.

채만식은 손목시계를 쳐들어보았다. 그리고 또 다시 보았다.

용해공들이 반시간이나 앞당겨 출선하고있었다.

이 밤따라 류달리 황홀하게 어리광부리며 비껴가는 노을빛속에서 기초공사장의 웃음소리는 더더욱 높아갔다. 환한 얼굴들, 해살같은 웃음에 떠받들려 주형장의 상공으로는 소조원의 사랑으로 하여 앞당겨진 감격적인 출전을 축하하듯 배불뚝이 쇠물남비가 춤추며 둥기둥기 떠가고있었다.

채만식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수십년 주형장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한 감정이였다.

그 감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생산능률보다 높은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채만식은 흙무지우에 팔을 걸고 높이 서있는 소조원 리근식을 향하여 달려갔다.

《소조원동무!》

그는 리근식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순간 무었인가 말을 하고싶었으나 너무나 큰 걱정이 심장을 메우는바람에 물기어린 얼굴에 웃음이 비졌다.

소조원 리근식은 이제까지 직장장한테서 찾아볼수 없었던 환한 웃음을 보았다.

《직장장동무!》

두사람은 서로 감격에 넘쳐 손을 굳게 잡아흔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팔랑-》 청맑은 종소리가 울려왔다.

금실의 종소리였다.

채만식은 그것이 무었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종소리도 곧 알게 될것이였다.

그들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떠올랐다.

## 검산령초소

허여극

## 1

안개 자욱한 령길로 비지땀을 흘리면서 스적스적 걸어가던 문동호는 러행가방을 든채 무춤 멈춰섰다. 그는 어디선가 은은히 들려오는 자동차의 발동소리를 들었다. 적막한 산골의 고요속에 어렴풋이 들려오던 차소리는 안개속에 찾아든듯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다시 등뒤에서 부르릉거렸다.

문동호는 손짐을 내려놓고 그쪽을 지켜보았다. (기어이 잡아야겠는데…) 땀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그는 입술을 감쳐물었다. 지척에서 경적소리가 울리더니 산굽인돌이에서 차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문동호는 길북판에 떡 버티고 서서 손을 버쩍 흔들었다.

마른먼지를 뽀얗게 말아올리면서 질풍처럼 달려오던 화물차는 그를 떠박지르듯이 코앞으로 바투 다가들면서 신경질적으로 뺑뺑거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문동호는 길을 막아선채 뒤걸음치면서 손을 흔들어들었다. 차는 두어걸음 앞에서 척- 하고 멎어섰다. 짧은 운전수가 차문으로 머리를 쑥 내밀고 무뚝뚝하게 소리질렀다.

《뭘요?》

《검산령까지만 좀 타고 가지요.》

《흥, 이 친구가…》

운전수는 어이없다는듯 곱지 않은 눈썹으로 흘겨보며 코방귀를 내뿔었다. 운전수들이란 너남없이 달리는 차를 중간에서 멈춰세우는 길손을 질색스레 여긴다. 비록 언짢게 쏘아보긴 하지만 운전수는 전혀 매몰스럽지 않은듯 더는 말이 없었다.

그의 옆자리에 닭알빛 여름옷을 단정히 입은 몸집이 듬직한 풍채 좋은 사나이가 점잖게 앉아있다.

《운전수동무 고맙소.》 하고 문동호는 운전수한테 반죽종게 썩긋 웃어보이고는 적재함쪽으로 다갔다.

얼굴이 감승감승 벌에 그는 예쁘장한 처녀가 적재함우에서 그를 빠끔히 굽어보고있었다. 문동호는 가방을 훌쩍 안에 집어던지고 날쌔게 뛰어올랐다.

《여기 앉으세요.》

처녀가 그의 가방을 불룩한 배낭옆에 바로잡아 놓으면서 바닥에 깔아놓은 거적자리를 권했다. 보위색작업복차림에 하르르한 나이론꽃수건을 목

에 두른 처녀의 몸매는 예술체조선수처럼 미끈하고 탄력이 있었다.

《아니, 난 바람도 쏘일겸 여기 앉아가겠소.》

문동호는 처녀의 얼굴을 힐끗 치며보면서 적재함 한옆에 기대앉았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개바람이 시원스레 불어왔다. 처녀는 바람을 등지고 말없이 거적자리에 앉더니 이내 무릎우에 두툼한 책을 펴놓고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차가 들출 때마다 굵실굵실하게 지진 까만 머리카락이 바람에 불려 귀밑에서 나풀거렸다. 문동호는 호기심이 없지 않아 처녀가 보고있는 책을 번지지 들여다보았다. 원색삽화로 찍은 갖가지 화초들이 눈에 띄었다.

《식물도감》이거나 그 비슷한 책 같았다. 덮은데 하나 없는 새책을 한동안 골똘히 더듬어가던 처녀도 그의 눈길을 감축한듯 할끔 뒤돌아보면서 상냥스레 말을 건넸다.

《어디까지 가세요?》

《통신선로감시소로 가는 길이라우.》

《아이 그럼 유충렬아저씨와 교대하러 가는데 안야요?》

《그렇소. 동무도 그 아저씨를 잘 아는 모양이구만…?》

《호호… 알다마다요. 그 아저씨 저에게 있어서 친아버지나 다름없는분이랍니다. … 동무도 선로감시공인가요?》

바람에 거꾸수수 형클어진 머리를 귀바퀴너머로 단정히 쓰다듬어 넘기면서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난 선로가선공이요. 이번에 유충렬아저씨가 중앙회의에 가기로 되었기에 그동안 내가 그 초소를 맡아보기로 했지요.》

《그렇군 요. 마을까지 버스를 타고왔던게군요?… 마침 우리도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저 연구사선생님을 모시고요.…》

처녀는 못내 반색하며 운전실을 눈짓했다. 선량하게 빛나는 부드러운 눈매와 소탈한 어조는 이미부터 사귀여오던 사이처럼 친근감을 자아냈다. 문동호는 스스럼없이 물었다.

《저분이 연구사요?》

《그럼요. 약초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권위있는 분이랍니다. 술한 논문을 썼는데 최근에 또 이 책을 저술했지요. 한상빈이라고 혹시 듣지 못했나요? … 이번에 우리 약초관리소에 왔던 길에



아저씨를 만나보려 이렇게 먼길을 떠났답니다. 여태 감감 소식을 모르고있다가 20여년만에 우연히 여기 있다는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펍 가까운 사이인가본데 그동안 편지거래도 없었던 모양이지요?》

《전쟁이 일던 해에 두분 다 의학대학에 입학했는데 전쟁이 그들의 운명을 전혀 판판 다른 길로 이끌어갔거든요. 그때 아저씨가 저 선생에게 준 인상이 무척 컸던것 같아요.》

《…………》

문동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난해에 군대에서 제대되어 이곳 군선로분구에 배치받았다. 그동안 군중집회 주석단에 오른 유충렬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본 일이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하여 아는것은 적었다. 유충렬이 담당한 검산령초소는 읍에서 150여리, 마을에서도 수십리 동떨어진 외진곳에 있었다. 부전령산줄기의 험한 두메산속에서 한두해도 아니고 스무해를 하루같이, 그것도 가족과 거의나 떨어져서 그는 내내 한 초소를 맡아온다. 사람들이 그를 남달리 존경하고 칭찬하는것도, 그리고 이번에 체신부문일군들의 전국적인 모임에 그가 선발된것도 그 때문이라...

자동차는 적재함을 덜커덩덜커덩 요란스레 들추면서 가파른 령길을 숨가쁘게 오르고있었다. 한굽이 돌아서면 또 한굽이, 신작로는 험준한 산굽이를 구불구불 에돌아 끝없이 뻗어갔다. 태고연한 밀림과 이끼긴 바위, 아찔한 골짜기와 우중충한 산악들이 몽롱한 안개속에 잦아들었다. 갈수록 산세는 험하고 바람이 세졌다. 령마루에 이르면서 차츰 안개도 성기여지고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구름사이로 푸릿한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련련하게 줄기뻗은 검푸른 산발들이 젓빛안개를 헤치면서 서서히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망망한 바다위에 첩첩히 들어앉은 크고작은 섬들을 방불케 했다.

이윽고 차는 산마루에 멎었다.

문동호는 처녀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한상빈연구사도 어느새 바람세찬 언덕에 올라서서 사위를 둘러보고있었다. 반고수머리에 기를 바르고 넥타이까지 맨 그의 듬직한 몸에서는 언뜻 보기에 학자다운 체취가 풍겼다. 처녀의 소개로 문동호는 그와 수인사를 나누었다.

《초소란게 어디요?》

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을 여미면서 연구사가 처녀에게 물었다.

《저쪽 산마루에 흰집이 보이지요? 저기가 검산령초소랍니다.》

아득한 맑은켄 봉우리를 처녀는 손으로 가리켰다. 골짜기를 짝 메운 뿌연 안개가 발밑에서 바다처럼 설레이는데 구름우에 엄엄하게 솟아있는 그쪽 령마루에 알릴듯말듯 하얀 점이 보였다.

수림속에 외로이 들어앉은 그 집은 마치 고대성곽의 망루와도 같은 장엄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안개는 잠시도 안정을 모르고 꾸역꾸역 골짜기로 흘러내리고 바람은 밀림을 휩쓸면서 나무잎새들을 어지러이 형클어놓았다. 준엄하고 거칠은 자연이었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처럼 문동호는 야릇한 흥분속에 사로잡혔다.

《참으로 한적한 고장이구만, 꼭 무인디아에 오른 기분이요.》

두손을 허리에 가볍게 얹고 이윽도록 그쪽을 지켜보던 연구사가 누구에게라 없이 중얼거렸다. 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한숨짓는 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처녀는 눈꼬리를 찌뵈이 치켜올리고 연구사를 썰쭉 쳐다보더니 길가에 우거진 풀덤불속에서 나리꽃 한송이를 꺾어들었다. 빨갭게 망울진 나리꽃은 대낮에 켜놓은 초불처럼 그의 손에서 하느적거렸다. 처녀는 덤덤히 꽃을 바라보며 숲속으로 뻗어간 오솔길로 걸음을 옮기다가 뒤따라선 두사람을 돌아보면서 담담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이런 벽지에도 정서가 있고 량만적인 생활이 없지 않답니다.》

## 2

검산령초소는 나지막한 절벽을 뒤에 낀 양지쪽 언덕에 자리잡고있었다.

울창한 수림속을 빠져나온 세사람은 감자꽃이하얇게 핀 발머리를 지나 강대로 총총히 울타리를 둘러막은 귀틀집뜨락에 들어섰다.

7자로 꺾여지은 아담한 건물에 회칠까지 하얗게 해놓아서 여간 산뜻하지 않았다. 한쪽은 살림방으로 쓰고 다른쪽은 사무실로 꾸린듯 그쪽 처마끝에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전투장》이라고 쓴 큰 간판이 걸려있었다. 동기와를 인 지붕우로 텔레비존안테나가 삐죽이 솟아오르고 트랙을 지나 처마밑으로 전기선과 통신선이 뻗어갔다. 뒤에는 바위벼랑, 세면은 온통 이갈나무숲, 그래서 초소는 푸른 성벽속에 호젓하게 자리잡고있는것 같았다.

집은 비어있었다. 유충렬은 아마도 담당구간순찰중인듯 창문마다 문휘장이 드리우고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처녀는 호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내들고 제집처럼 서슴없이 문앞으로 다가갔다. 유충렬이와 한집안식솔이나 다름없는 사이인것이 분명하였다. 그들은 손집들을 퇴마루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렸다. 차에서 내려 숲속을 헤치고 오는 동안 모두들 흠뻑 땀을 흘렸다. 문동호는 땀에 젖은 저고리의 앞자락을 헤쳐놓고 옷깃으로 단 가슴에 바람을 부쳤다. 연구사도 번열이 나는지 넥타이를 풀어놓고 땀에 익은 얼굴과 목덜미를 차곡차곡 접은 손수건으로 훔치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저녁해가 한동안 나무정수리에서 불붙는 숯불처럼 이글대더니 잠시후엔 그마저 꺼져버리고 해저문 산정에는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안에 들어갔던 처녀가 세수수건에 비누박을 받쳐들고 나와 샘물에 얼굴이나 씻으라고 샘터를 가리켜주었다.

문동호는 연구사와 함께 마당을 나섰다. 집뒤를 돌아서 얼마 멀지 않은곳에 샘터가 있었다. 돌버섯과 이끼가 파랗게 돋친 바위쪼에서 송골송골 솟아오른 수정샘이 함지박처럼 움푹 패인 바닥에 빙빙 고여 감돌다가 물풀이 우거진 흙채기를 따라 깎아지른 낭떠러지에 작은 폭포로 쏟아지고 있었다. 해발 1,700미터를 헤아리는 산마루에 이런 샘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참나무와 피나무, 물버들이 우거진 깊은 계곡에서 여울물이 정답게 조잘거렸다. 골짜기로 흐르는 실개울이 이 샘줄기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너럭바위에 무릎을 꿇고 엎디어 번갈아가면서 물을 마셨다. 물은 얼음처럼 차다. 대뜸 이몸이 저러나고 속뻐이 곳곳이 얼어드는것 같았다. 손발을 씻고 머리까지 감고나니 날아갈듯이 몸이 거뼉해졌다. 어찌나든 기분이 상쾌한지 좀처럼 자리를 뜨고싶지 않았다.

한상빈연구사는 손수건을 너럭바위에 펴놓고 그우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으면서 《금강》갑을 꺼내들고 문동호한테 담배를 권했다.

《전 아직 담배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문동호는 쑥스럽게 웃으면서 얼마쯤 사이를 두고 풀밭에 퍼터앉았다. 연구사는 담배를 입귀에 삐딱히 꼬나물고 말을 건넸다.

《그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스물여섯입니다.》

《좋은 때로군... 학교는?》

《지난해에 체신대학에 입학했어요.》

《통신을 다니나보구만. 제대군인이요?》

《예...》

《무슨 과목을 전공하오?》

《약전부문입니다.》

《약전...? 좋지. 너남없이 그렇게 지향이 뚜렷해야 해...》

한상빈은 두눈을 가느스름하게 쪼프리고 담배연기를 맛있게 삼키더니 학자다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러저러한 유혹에 헛눈을 팔거나 또 시간을 헛되이 하는 일이 없어야 해. 분초를 아껴 학습하고 사색하고 탐구하면서 생활의 목표로 줄달음쳐야 하오. 그렇지 않다가는 모처럼 다졌던 결심도 날이 무딜수 있지...》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는 문동호에게 있어서 연구사의 이야기는 자못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그는 눈앞에서 맴도는 샘물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다. 하긴 그에게도 꿈이 많았다. 위훈에 대한 갈망, 학구적열망과 창조적지향, 아무튼 자기의 한생을 보람있게 빛내려는 부푼 희망이 구름처럼 몽게몽게 피어올랐다.

그는 무릎을 두손으로 깎지끼고 끝없는 공상의 나래를 펼쳤다.

어둠의 장막을 밀어젖히면서 동녘하늘이 희뽀뽀히 밝아오더니 거무칙칙한 수림너머로 늦대야같은 보름달이 살며시 얼굴을 올리밀었다. 잔잔히 출렁이는 물결우에 푸름한 달빛이 내려앉아 은빛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시간은 어느만큼 흘러갔는지... 등뒤에서 궁글은 기침소리가 났다. 허름한 농립모를 쓴 체소한 그림자가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문동호와 연구사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상대방도 그 자리에 무릎 꿇어져서 이쪽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유충렬이었다.

키골이 흰칠하고 몸집이 들쭉진 한상빈연구사와 물날은 작업복에 몸이 갈람한 유충렬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채양이 넓은 농립모까지 폭 눌러쓴 유충렬의 가무잡잡한 얼굴은 무척 작아보였다. 움푹 꺼져든 눈확에서 정기어린 눈빛만이 달빛에 어리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충렬동무, 날 못알아보겠소? 내가 한상빈이요!》

《야, 이거 정말 몰라보겠는걸. 자네가 그래 한상빈이란말인가?》

두사람은 마치 자기마당속에서 끌리는 두 극처럼 와락 다가들더니 서로 어깨를 그러안고 한동안 아리가 되어 돌아갔다. 참으로 극적인 상봉이었다. 문동호는 눈물이 글썽해서 그 광경을 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일전에 춘희한테서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하지만 난 자네를 색시처럼 얹전하던 학생시절의 쌤님으로 머리속에 그려왔는데...》

《그럼 이게 얼마만이요?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꼭 스물일곱해만에 다시 만났구만...》

《하긴 그래,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가...?》

옛친구의 손을 부여잡고 깊은 감회에 잠기던 유충렬은 물기 어린 눈길을 문동호한테로 옮겼다. 《동무도 왔구만. 내 분부장동무한테서 동무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래 춘희랑 다 함께 왔소?》

《네.》

문동호는 어쭙게 웃으면서 눈을 슴뻑이었다.

《그럼 먼저 집으로 들어들가라구. 내 얼핏 몸이나 씻구 갈게...》

유충렬은 화색이 넘쳐 샘물터로 다가갔다.

《원, 사람의 일이란 모르겠군. 저 친구가 이런 곳에 묻혀있다니...》

농림모와 작업복을 벗어팽개치고 마구 얼굴에 물을 끼얹는 유충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상빈 연구사는 다감한 어조로 뇌까리는 것이었다.

### 3

세사람은 두리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정주칸에서 춘희가 음식을 차리는대로 유충렬은 그것을 날라다가 상우에 펼쳐놓았다. 버섯볶음, 더덕찌개, 도라지채, 구운 산천어 그밖에도 산에서만 볼수 있는 검소한 찬들이 푸짐하게 상에 올랐다. 유충렬이 벽장안에서 머루술 한병을 꺼내 놓았다. 좌석은 흥성거렸다. 반가운 상봉끝에 의례 있기마련인 즐거운 한담들이 오고갔다. 문동호는 안주만 집으면서 우정에 넘친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여보게 상빈이, 이번 학술토론회에 내놓은 우리 춘희의 논문이 어땠던가?》 하고 유충렬이 화제를 바꾸었다.

(론문을 쓰다니?) 문동호는 무슨 소리냐는듯 유충렬과 춘희를 번갈아보았다. 춘희는 사이문너머 정주칸에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맵시있게 둘러맨 꽃수건밑으로 물기 어린 앞머리가 살짝 이마를 가렸는데 수줍게 미소짓는 그의 두볼에 장미빛 홍조가 피어올랐다. 색고운 원피스를 산뜻하게 갈아입고 가는 허리에 행주치마까지 깡똥하게 두른 그의 자태는 바라보기 점직할지경으로 아릿다왔다. 한상빈연구사도 미더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절절 웃었다.

《허허, 큰 파문을 일으켰지. 기껏해서 전문학교나 마친 시골처녀가 그런 훌륭한 논문을 발표했으니 그럴수밖에...》

그는 자못 활기를 띠고 말을 계속하였다.

《난 그날 염춘희동무의 토론을 들으면서 모름지기 저 처녀의 뒤에는 로련하고 박식한 선배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그를 만나보았지.

...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난 동무를 이렇게 찾지 못할번하지 않았소? 유동무! 내가 동무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겠소? 동무의 고향에도 알아보구 혹시 대학이나 병원같은데서 일하지 않나

해서 여러곳에 조회도 해보구...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일이요? 한때 것처럼 학구적열망에 불타던 동무가 포부와 지향은 어따 두고 이런 적막강산에 묻혀있느냐말요?》

그는 아무리해도 리해할수 없다는듯 편민이 어린 눈매로 유충렬을 바라본다. 하지만 유충렬은 대꾸는 없이 태연하게 싱글싱글 웃기만 했다.

《아니, 이건 결코 웃을 일이 아니요.》

한상빈연구사는 고개를 흔들면서 정색을 했다.

《아마 동무도 생각날게요. 6.25 직후 대학에 갓 입학했던 우리들의 기분상태를... 그때 우리 약학부엔 남자라곤 동무와 나밖에 없었지. 약학부의 처녀들까지도 군복을 입겠다고 의학부로 전과하는 바람이 일었지... 그통에 나도 마음이 신승생승해서 동무를 찾아갔지. 그때 동무가 뭐라고 했소? <아무렴 전선에 나가야지. 군의가 되건 평범한 의사가 되건. ... 하지만 난 전과할 생각은 꼬물도 없어. 전쟁이 승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그날 동무는 어떻게 할 작정이요? 또 학부를 옮겨달라구 하겠소? 의학부로 전과할 생각이라면 무엇때문에 애초에 약학부를 지망했소?... 이렇게 동무는 드립없는 신조를 력설하지 않았었소?》

가뜩이나 혈색좋은 한상빈의 얼굴은 술기운이 번진데다가 흥분까지 겹쳐서 벽돌장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유충렬은 구레나루가 꺼칠한 볼편을 매만질뿐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침묵-

가슴을 조이는 갑갑한 몇순간이 흘러갔다.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고있었다. 은하수 비긴 하늘에 솜뭉치같은 구름장이 똥똥 떠있는데 중전에 높이 솟은 보름달이 구름속을 누비며 헤엄치고있었다. 달빛속에 잦아든 창밖의 모든것이- 교묘한 수렴도 아늑한 대기도 파아란 불길처럼 타오르는것 같았다.

《왜 말이 없소?》

한상빈연구사가 유충렬의 무릎을 잡아흔들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라도 함께 손잡고 일해보지 않겠소? 지금 우리 약학계에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소. 우리 나라 생약에 의한 주체적인 제약부문에 연구할 문제도 많단말이요!》

연구사의 눈빛은 절절하게 빛났다. 유충렬은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은듯 미간을 찡그렸다. 그의 가무잡잡한 얼굴이 일순간 파랗해지더니 실눈을 지은 눈까풀이 파르르 떠는것을 문동호는 놓치지 않았다.

《상빈이 고맙네...》

이윽고 유충렬은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

서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공연히 옛뿌리를 들춰가며 내 마음을 건드리지 말아주게. 그렇게 단순한게 아닐세. 내가 생활의 전철기를 이쪽으로 제껴놓게 된것은 전혀 우연한 동기에서였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네.》 하고 그는 청춘시절의 추억을 감회깊이 더듬는것이였다.

유충렬은 한상빈이와 그 뜻깊은 담화가 있었던 며칠후 적들의 폭격에 어머니를 잃었다.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의 분묘를 찾은 그는 치떨리는 분노와 타끓는 복수심을 부여안고 결연히 총을 손에 잡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사선을 넘나들며 원수를 죽친 유명무명의 전투장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정전을 얼마 앞둔 어느날 그는 야간습격전을 통쾌하게 치르고 부대로 돌아오던 길에 적들의 매복에 걸려 부상을 입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대수술, 전상자병원에서의 지루한 침대생활... 승리한 이 땅에 창조와 건설의 봄은 해를 번저가며 찾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병원에서 병원으로, 그후에는 다시 이곳에서 멀지 않은 한 료양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나의 앞에 지금과 같은 생활의 문이 열려있을줄은 꿈도 꿀수 없었네...》

그는 나직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때 난 료양소에서 한 통신선로공과 사귀었지. 그가 바로 저 춘희동무의 아버지였어. 해방직 후부터 통신선로공으로 일해오면서 이고장 산발들을 메주 밟듯하고 다니던 오십대의 당원인데 전시에 척추를 폭격에 다치여 더는 걸어다닐수 없는 몸이 되었다네. 여기로 지나간 통신선이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선로여서 전시에 놈들은 인가 하나 없는 이 두메산골을 어느 군수산업지구 못지않은 일차타격대상으로 점찍어놓았거든... 전신선이 동강나고 전주가 부러지고 그러면 다시 전주를 세우고 선을 잇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피어린 싸움의 나날에 갓 태어난 저 춘희는 어머니를 여의고... 자네 째이 있거든 감시구간을 한번 돌아보게. 아직도 도처에 폭격의 흔적이 남아있다네...》

유충렬의 비장한 음성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문동호는 숨소리를 죽이고 얼없이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총포성을 자장가로 삼아가며 준엄한 전화의 나날을 요람속에서 자라온 그의 눈앞에는 옛말처럼 들어오던 간고한 시절의 생동한 화폭들이 선명하게 안겨오는것이였다.

한상빈연구사도 얼굴빛이 신중해졌다. 정주칸에서 국수를 마느라고 부지런히 돌아치던 춘희도

일손을 멈추고 가마목에 다소곳이 앉아있다.

어디선가 소쩍새가 처량하게 울었다.

구슬피 우는 소쩍새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잠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충렬은 닭알침을 삼키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춘희의 아버지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어갔다. 어느날, 당시 분구를 책임지고있던 녀인이 어린것을 등에 업고 문병을 왔다. 전사자가죽인 그 녀인은 의지할곳 없는 춘희를 자신이 맡아 키워오고있었다. 병상에서 딸을 만난 아버지는 어린 춘희를 품에 안고 살뜰히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자기가 맡아오던 검산령초소에 누가 가있느냐고 물었다.

《똑똑한 주인이 없어요.(녀인이 하는 대답이였다.) 동무가 몸져누운 다음 아홉번째로 주인이 갈렸어요. 석달이 채 못가서 교체해달라구 저마다 성화니 끝치가 아파서 죽겠어요. 해설도 하구 설복도 하구 충고도 해보지만 막무가내랍니다.》

순간 춘희의 아버지는 낫색이 흠뻑처럼 컴컴해졌다.

《아,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일가...》

그는 안타까운 한숨을 침통하게 내쉬더니 어린 딸의 머리를 가슴에 꼭 그러안으며 통절한 어조로 뇌까리는것이였다.

《네가 컸으면 너한테라도 그 초소를 넘겨주지 않겠나?...》

애끊게 탄식하는 그의 두눈엔 눈물이 글썽하게 고여있었다...

이러한 사연을 들려주는 유충렬의 음성은 차차 열을 띠었다.

《자네는 아마 우리 시대에 어찌 사람들이 그럴수 있겠느냐고 의아스레 여길수 있겠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이고장에 와보고서야 충분히 그럴수 있겠다는 리해가 가더군. 지금은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이처럼 도시의 문화주택 부럽잖게 아담한 건물에 텔레비에 전축까지 갖춰놓고 근심걱정 하나 없이 지내지만 전후의 이곳 형편은 말이 아니였어... 자네도 방금 여기를 적막강산이라구 했지? 그렇네. 까농구 말해서 여기는 청년들의 마음을 끝만한 들끓는 생활도 벅찬 일감도 없네. 서로 가까이 드나들며 이야기를 나눌 이웃도 없고 가족을 가진 사람은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나처럼 가정과도 떨어져 지내야 하네. 더더구나 겨울 한철은 허리가 문히도록 눈이 쌓이지, 눈보라 사나운 맴짖날에도 깊은 눈을 헤치며 홀로 담담구간을 돌아야 하네. 그러니 누가 좋다고 하겠나? 모름지기 저 문동호동무더러 이런곳을 맡아주겠는가고 묻는다면 아마 선뜻 대답을 못할게야... 어때, 안그

래?…》

그는 문득 이야기를 그치고 문동호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문동호는 거의나 자기를 잊다 싶이 하고 그들의 담화에 넋이 팔려 있다가 뜻밖의 화살이 날아오는 바람에 어지간히 당황해졌다.

《허, 저야 뭐…》

그는 자기를 떠보는 듯한 유충렬의 눈길을 마주 쳐다보기가 게면쩍어 어이없이 웃으며 고개를 떨궜다. 순간 낮빛이 수수지짐처럼 빨개졌다.

《허허… 보게…》 하고 유충렬은 서늘하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자네는 새삼스레 옛일을 상기시키면서 마치 나같은 사람은 이곳에 있어선 안될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초소를 맡아 봐야 한다고 생각하나? 여기가 설사 적막강산이건 절해고도이건 말아볼 주인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의 준절한 어조에선 쇠소리가 울렸다. 한상빈 연구사는 말이 없었다.

방안의 분위기는 심각해졌다.

또다시 침묵속에 정적이 흘렀다. 휘영청 밝은 달이 창문밖에서 그들을 조용히 굽어보고 있었다.

#### 4

문동호는 누군가 어깨를 건드리는 바람에 눈을 떴다.

《원, 무슨 늦잠을 이렇게 자나? 그만 일어나 저쪽 방으로 건너오게.》

그의 단잠을 깨운 것은 유충렬이었다.

문동호는 잠을 채 깨지 못한 채 졸음긴 눈으로 그가 사라지는 문쪽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유리창에 아침해발이 눈부시게 내려앉았다. 방에는 아무도 없다. 한상빈 연구사도 춘희도 모두 어디로 나간 듯 구수한 국냄새만이 상긋하게 코를 찌를 뿐 집안은 물뿌린 듯 조용하였다. 그제사 문동호는 간밤 공연히 마음이 착잡하여 새벽녘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졸음이 실린 뿌듯한 눈가장자리를 손으로 뚝뚝 문지르며 밖으로 나왔다.

청명한 아침이었다. 하늘도 숲도 두리의 모든 것이 방금 화필을 댄 한쪽의 그림처럼 진한 색조를 띠고 청신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동호는 산정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몇 번 심호흡하고 나서 문이 반쯤 열려있는 건넌방으로 갔다.

《았소!》

트렁크에 책들을 차곡차곡 넣으면서 떠날 차비를 하고 있던 유충렬이 책상뒤편에서 규격지 몇장을 꺼내 들고 의자에 걸터앉았다.

《자 적소. 곧 떠나야겠기에 인계를 서둘러야겠

소.》

그는 문동호한테 종이를 내밀면서 자기가 떠난 사이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대주기 시작했다. 넘겨받을 일이란 극히 단순했다. 매일 일정한 구간의 전신주에 올라가 완목을 살펴 보면서 애자들을 닦아주고 전주밑에 자란 잡목들을 잡아주는 외에 손덜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충렬은 선로관리에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방법들과 작업공정들을 하나 놓침이 없이 일일이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문동호는 휴대용 전화기며 비옷과 장화, 그밖의 비품들과 보수용 자재까지 죄다 넘겨받았다. 그밖에도 자질구레한 일들을 어찌나 자심스레 일러주는지 막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만약 한상빈 연구사가 제때에 나타나서 아직도 인계가 끝나지 않았느냐고 중간에 끼여들지 않았더라면 또 얼마나 시간을 끌었을까 모른다.

《다 끝났네. 그대 약초밭을 돌아보았나?》 하고 유충렬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한테로 돌아섰다.

《춘희동무와 함께 방금 돌아보구 오는 길ियो. 참으로 불만하더구만…》

한상빈 연구사는 감동을 금치 못하겠다는 듯 눈을 슴뻑이면서 소탈하게 웃었다. 그는 담배를 불여 물고 말을 이었다.

《난 여직껏 그런 희한한 시험포를 본 일이 없소. 희귀한 약종도 많거니와 재배방법이 독특하거든… 아무래도 동무를 우리 집단에 끌어가야 할 것 같애…》

《허, 또 낚시를 던지누만…?》

유충렬은 조용히 웃으면서 도리를 저었다.

《아예 그런 소릴 하지 말게. 간밤에도 말했지만 난 그 시험포도 군약초관리소에 넘긴지 오래고 지식도 경험도 참고문헌도 깡그리 춘희에게 물려주었네.》

《동무의 심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요. 하니만큼 구태여 강권하려고는 않소만 한번 다시 숙고해보우. 우리 연구소의 문은 아무때나 동무한테 열려져 있을게요.》

한상빈은 기대를 단념하기 아쉬운 듯 피우던 담배를 뽕개치고 발끝으로 불을 비벼뜨면서 가늘게 한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유충렬은 허거픈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더는 이야기를 끌고 싶지 않은 듯…

얼마후 그들은 길을 떠났다. 춘희는 왔던 길에 약초밭에 미량원소비료도 주고 김도 잡아준 다음 저녁에 돌아가겠노라고 초소에 남았다.

《그럼 담당구간을 한바퀴 돌아볼까요?》

떠나는 사람들을 감자밭머리까지 바래주러 나 왔던 춘희가 문동호한테 먼저 말을 걸었다. 그들은 안에 들어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왔다.

밤이슬이 축축히 내려앉은 오솔길을 따라 이깎 나무숲속을 빠져나온 그들은 푸른 잔디가 웅덩처럼 깔려있는 좁은 공지에 들어섰다. 울창한 수림속으로 대통로처럼 곱게 뻗어간 공지에는 일정한 사이를 두고 전주들이 주런이 늘어섰는데 하얀 애자들이 조롱조롱 열린 완목들이 전주꼭대기에 마치 참빗살처럼 총총히 박혀있다. 틀에 메워놓은 명주실오리처럼 동서로 줄줄이 뻗어간 은빛 통신선이 해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인다.

그들은 발목이 묻히도록 복신복신한 잔디밭을 따라 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가끔 새초가 우거진 웅덩이들이 눈에 띄었다. 퍼렇게 이끼끼 썩은 물이 고인것도 있고 잡초만이 무성한 마른 웅덩이도 있었다. 그것은 지나간 전쟁시기 적들의 폭격에 입은 상처의 흔적들이었다. 여직껏 남아있는 그 폭탄자욱들은 이 땅을 휩쓸었던 전화의 나날 무서운 재난을 들썩은 가증스런 미제의 죄악을 두고두고 고발하는 지울수 없는 상처같이 문동호에게 느껴졌다. 바로 이곳 그 어디에서 저 처녀의 어머니가 희생되고 그의 아버지마저 통신선을 지켜싸우다가 모진 상처를 입고 끝내 오늘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채 병상에서 눈을 감았는지 않는다!

언덕에 올라서니 양지쪽 산기슭을 따라 약초밭이 나타났다. 한상빈연구사가 경탄을 금치 못해 하던 그 시험포인지도 모른다. 공지에 알뜰히 가꾼 약초밭에는 작약과 창출, 천궁과 만삼, 백도라지와 황기 등 갖가지 약초들이 푸르싱싱하였다. 씩씩하고 향긋한 냄새가 진하게 풍겨온다. 그들은 시험포를 지나 협곡으로 내려섰다. 골개수가 흐르는 계곡에 허궁다리가 떠있다. 곳곳에 사태를 막기 위하여 쌓아올린 석축, 가파른 벼랑으로 오르내리는 돌층계와 나무사다리... 눈에 띄는 모든것이 놀랍고 새롭다.

사다리를 타고 언덕에 오르니 거기에도 드문드문 약초밭이 있었다. 살집이 깊은 땅엔 시험포를 가꾸고 척박한곳마다에 잔디를 입혔다.

담당구간은 평퍼짐한 산등성이에 펼쳐진 어린 잣나무숲속에 참삿리와 개암나무, 새초들이 무덕무덕 덩불을 이루었는데 불에 타고 그슬은 강대들이 피염피염 앙상하게 솟아있다. 춘희의 말에 의하면 이곳 역시 전시에 불탄 산림인데 유충렬이 째째이 잣나무림을 가꿔놓았다고 한다. 눈에 띄는 모든것이 새롭고 놀라왔다.

문동호는 진대나무에 걸터앉아 방금 지나온 공지를 뒤돌아보았다. 푸름한 산밭을 타고 저 멀리 아득히 뻗어간 통신선, 그밑으로 일매지게 펼쳐진 초록비단같은 잔디밭주변에서 설레이는 푸른 잣나무...

사람의 발길이 거의나 미치는 일이 없는 이 한적한 두메산골초소를 어쩌면 이렇듯이 정성들여 가꾸어놓았는가!...

춘희는 풀밭속에서 들꽃을 꺾기에 여념이 없었다. 키높이 자란 풀덤불속으로 그의 모습은 잠겨여들고 구성지게 부르는 노래소리만이 실바람에 실리어 간간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내 고향엔 정든 집이 있었네  
사랑하는 내 고향은 살기좋은곳이었네

늘 들어오던 노래전만 처녀의 맑고 부드러운 목청이 오늘따라 유난스레 문동호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다.

## 5

새벽부터 내리던 곳은비는 한낮이 켜 지나서야 좀줄해졌다.

문동호는 비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찬비를 맞으면서 담당구간을 돌아본대야 구태여 손덜 일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순찰을 안할수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가 이곳에 온지도 어언 열흘 가까이 된다. 그동안 그는 전주밑의 공지에서 풀뿌리와 돌을 추어내고 멀리서 폐장을 떠다 옮겨심기도 했다. 그만한 일이라든가 찾아서 할 때에는 하루해가 지루한줄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거기서 손을 떼고보니 크게 손덜 일이 없었다. 하루 한번씩 담당선로를 순찰하곤하지만 매양 같은 구간을 어정어정 돌아다니기가 여간 싱겁고 따분하지 않았다. 너남없이 3대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분초를 다투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을 때 그만은 왕성한 혈기와 약동하는 힘을 어디에 쏟아부을곳이 없었다. 유충렬이라면 이럴 때 의례 새로운 일감을 찾아냈으련만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유독 자기만이 금싸라기같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 같아 량심이 꺼리졌다. 밤을 밝혀가며 땅을 파고 전주를 세우고 완목을 타고앉아 통신선을 늘어가던 어제날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그때는 일하기가 얼마나 흥겨웠던가.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의 책임량을 넘쳐난 보람과 기쁨은 또 얼마나 컸던가!...

잔잔하게 드리운 이슬비는 가득이나 울적한 그의 마음을 더욱 어수선히 형클어놓았다. 어서 일터로 돌아갔으면...

이슬맺힌 잔디에 장화를 적시면서 무거운 걸음을 옮겨가던 그는 뿌잇한 비밭속에 얼른거리는 몇사람의 그림자를 앞에 보았다. 비닐비옷을 걸친 처녀 셋이 약초밭머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삽질을 하고있었다. 등을 이쪽으로 돌려대고 두 처녀가 가래줄을 당기는데 삽자루를 잡고 걸썩게 대는 처녀는 분명 춘희였다.

(아니 저들이 어딜루해서 여기에 나타났나?) 문

동호는 반가움과 의혹이 서린 눈썹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처녀들은 발머리에 도랑을 짚고있었다. 한동안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던 춘희가 힘에 겨운듯 허리를 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면서 고개를 돌리던 그는 문동호와 눈이 마주치자 입을 방시레 벌리고 눈을 흘겼다. 순간 그의 얼굴이 미소로 환해졌다.

《순찰중인가요?》

그는 못내 반색하며 상냥하게 물었다. 문동호도 따라웃으며 다가섰다.

《그렇소. 근데 집에 들리지도 았구 언제 왔소?》

《지름길을 타고 곧장 왔어요. 휴일을 짬타서 아저씨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손도와줄가 했더니 그새 동무가 몽땅 해놓았더군요. 그래서 그저 돌아갈수도 없구해서 도랑을 정리하는길이에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춘희는 감동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상그시 미소지었다. 다른 두 처녀도 경의를 품고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허허 그만한 일도 안하구 빈둥빈둥 뭘하겠소. 자 그 삽을 인주오. 내 좀 도와주지.》

문동호는 고무비옷을 화락화락 벗어서 발머리에 뽕개치고 춘희의 손에서 삽자루를 나누웠다. 삽을 뺀 춘희는 그를 말끄러미 쳐다보며 물었다.

《담당구간을 마저 순찰하지 않아두 돼요?》

《가짓것 돌아보나마나한걸... 그렇지 않아도 일감이 없어 적적하던 판에 마침 잘됐소. 자 줄을 당기오.》

문동호는 삽날을 땅에 꼭 박고 줄을 잡은 두 처녀에게 소리쳤다. 일은 폭폭 자리났다. 그는 별로 힘들지 않게 가래질을 하면서 춘희에게 물었다.

《유충렬아저씨가 언제 돌아온다는 소식을 못들었소?》

《보름기 한으로 떠났으니 일주일안으로 돌아오시겠지요 뭐...》

《으-口》

그의 입에서는 자기도모르게 신음소리 비슷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 땀새가 예닐곱달맞잡이로 막연하게 느껴지는것이였다.

《호호... 무척 답답증이 난게군요?》

춘희가 까르르 웃으면서 그의 옆얼굴을 슬쩍 짚어보았다.

《흥 어디 동무가 이런데서 일해보우. 아마 사흘을 넘기지 못해서 뽕소니를 쳤을걸...》

《어마나, 정말 그렇게 적적하세요?》

《에그 막 오금이 쭈서서 몸살이 날지경이요.》

춘희는 말이 없고 두 처녀는 서로 눈을 꿈뻑하면서 소리없이 웃었다.

(남은 애꿎을 지경인데 웃어?)

문동호는 감지 않은 눈썹으로 그들을 흘겨보고는 시뻘뻘해서 묵묵히 삽질을 했다. 체내의 깊은곳에 묻혀있던 울적감이 부질부질 끓어올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춘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물론 동무의 심정은 알겠어요. 하지만 유충렬아저씨는 여기서 고스란히 스무해를 일했어요. 그리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적도 십년이 남아돼요. 리병원 원장으로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달에 한두번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곤하는데 그날은 온 집안이 명절이랍니다. 기껏해야 하루 아니면 몇시간 그리움을 나누고 헤어지고...》

눈물에 잠기어 가무라드는 춘희의 애틋한 음성에서 문동호는 가슴이 찡-해졌다. 하긴 유충렬인들 어찌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수 있었으며 전혀 번민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그는 남다른 혁명적각을 가지고 남들이 마다하는 이고장에 청춘도 희망도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기는 기껏 열흘도 채 못가서 고적과 환멸에 사로잡히다니... 문동호는 얼굴이 뜨뜻해졌다.

《왜 제 말에 기분을 잡쳤나요?》

입술을 사러물고 묵묵히 삽질하는 그의 등뒤에서 춘희가 어줍게 물었다.

《원 별소릴...》

하고 문동호는 대범하게 대꾸했지만 속된 감정의 노예가 되어 마음의 빈구석을 드러내보인 자신이 체면쩍고 부끄러워 처녀들앞에서 낮을 들수 없었다.

## 6

그날 저녁.

한상빈연구사로부터 유충렬한테 보내온 편지가 인편에 올라왔다. 봉투는 꽤 두툼하였다. 문동호는 책상에 마주앉아 봉투에 씌여진 연구사의 활달한 필치를 덤덤히 들여다보았다. 편지에 담긴 사연을 딱히 알길은 없었지만 심중팔구 연구소로 소환하고싶은 심정을 거듭 비쳤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불원천리하고 찾아왔다가 아쉬운 마음을 부여안고 돌아간 연구사, 그의 심정인들 오죽하라...

문동호의 눈앞에는 서로의 흥금을 기탄없이 털어놓던 그 잊을수 없는 달밝은 밤의 전경이 선히 떠올랐다. 그들이 주고받던 이야기가 귀결에 쟁쟁하다.

문동호는 명상에 잠겼다. 생활에 대한 그들의 관념속에는 오랜 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자기나름의 신조와 신념이 있다. 하지만 과연 유충렬은 한때 것처럼 귀중히 품고있던 학구적인 지향을 영영 포기한것일까. 낮에 춘희가 하던 말로 미루어 짐작컨데 그 역시 자신의 앞날을 두고 번민속에 모대기던 사람이 아닌가. 이제라도 자신이 지향하던 세계에로 날아갈수 있도록 앞을 띄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검산령은 어떻게 하

나? 그에 못지않게 초소를 성실하게 말아볼 사람이 있을가...

문동호는 눈살이 바늘끝처럼 뾰뾰해졌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을 번져가느라니 《생활의 전철기》를 이리로 제끼게 된 사연을 들려주면서 자기더러 이 초소를 말아볼 용의가 있는가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을 못할것이라고 하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어이없이 웃고말았지만 지금은 그럴수가 없었다. 모든 일에 것처럼 뜻깊은 유충렬이 아무 생각없이 물어본 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었다. 그렇다면... 문동호는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 어둠이 짙어가는 뜰안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밤새가 앓끓게 울었다.

며칠이 지나갔다.

그동안 분구에서는 불원간 무더기비가 내릴것이 예견되기때문에 폭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라는 지시가 올라왔다.

문동호는 준엄한 전투를 앞에 둔 사람처럼 마음이 긴장해졌다. 사소한 사고라도 있어선 안된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 나라 곳곳으로 신경처럼 뻗어간 통신선- 이 한오리 한오리의 선로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가 무시로 전해지고 잠시도 지체할수 없는 긴요하고 절박한 사연들이 산지사방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바람만이 울부짖고 짐승만이 넘나드는 이 적막한 밀림속에 가령 통신선을 말아볼 주인이 없다면 불의의 정황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문동호는 자기의 어깨에 갑절이나 무겁고도 중요한 짐이 실린듯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안고 전주의 반침줄을 바로잡아놓기도 하고 지나치게 쳐내린 선들을 알맞춤히 조여주기도 하면서 담당구간을 간간히 보살폈다.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말끔히 끝낸 어느날 분구장은 두가지 사연을 전화로 알려왔다. 그것은 전날에 있었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중간총화 모임에서 그동안 남달리 성실히 일해온 그의 숨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충성의 등록장》에 올리기로 했다는것이며 다른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회의에 갔던 유충렬이 저녁차로 돌아와 집으로 떠났다는 사연이었다. 두번째 소식은 야릇한 심리적과문을 일으켰다. 자기를 구속하던 온갖 상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활이 들끓고 위훈이 기다리는 옛초소로 돌아갈수 있게 된것이였다. 하지만 웬일인지 마음속의 그늘이 가셔질 대신 여전히 머리는 번거로웠다.

그날 새벽, 그는 자기가 마치 쇠줄타기를 하는 교예배우처럼 외줄기 통신선을 타고 아찔하게 깊은 협곡을 건너가는 아슬아슬한 꿈을 꾸었다. 실오리처럼 가는 쇠줄위에 올라서서 처음 몇걸음을 옮길 때 그는 금시 천길나락속으로 굴러떨어질것만 같아서 눈앞이 아득해졌다. 다리가 푸들

푸들 떨리고 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등뒤에서 누군가 모험을 하지 말라고 되돌아서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다. 되돌아서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그는 입술을 사러물고 한치한치 앞으로 더듬어나갔다. 차츰 담이 커지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고 발을 옮기기가 한결 험해졌다. 쇠줄은 창끝처럼 날카로운 맞은켄 절벽에 닿아있었다.

그가 절반쯤 건넌을 때 어디선가 요란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오색조명등의 현란한 불빛이 일시에 그의 몸에 쏟아진다. 그는 일찍 체험해본 일이 없는 환희와 격동의 물결속에 휩싸였다. 비단옷을 말쑥히 차려입은 한 처녀가 전설속의 선녀처럼 꽃다발을 들고 그한테로 훨훨 날아오고있었다. 춘희였다. 그는 꽃다발을 받으려고 팔을 벌렸다. 그찰나, 사위가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번개가 일고 평음이 울었다. 그는 소스라쳐 눈을 떴다.

꿈이었다. 아니 그의 달콤한 꿈을 산산이 부서놓은것은 번덕스런 날씨였다.

날은 이미 회곳곳 밝았는데 밖에서는 무서운 폭우가 몰아치고있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굵은 비방울이 후둑후둑 내리치는 강가로 다가가았다. 간단없이 번쩍이는 번개불, 귀청을 찢는 요란한 우뢰소리, 몰박으로 쏟아지는 대줄기같은 비발... 시누런 흙탕물이 마당에서 팔죽가마처럼 부르르 끓어번졌다. 락수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퇴마루앞에서 물개구리 한마리가 갈광질광 헤엄버치다가 마루에 뛰어올라 겁먹은 소리로 몇마디 울어댔다. 사위는 온통 희뿌연 비발속에 잠겨버렸다.

찌릉 찌르릉... 전화종이 다급히 온다. 문동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분구의지급지령-수도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산업 전화선이 절단되였다. 지체없이 복구할것!

문동호는 아연해졌다. 비상사고다. 정황은 긴박했다. 그는 경황없이 비옷을 주어입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서둘러 창고에서 예비선통구리를 꺼내어 어깨에 걸치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무서운 폭우였다. 시꺼먼 먹구름이 화염처럼 산발을 휩쓸면서 비를 몰아왔다. 폭풍우에 말려든 통신선은 아츠럽게 아우성치면서 안정을 못하고 휘청거렸다.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비발을 손으로 가리면서 문동호는 한걸음 한걸음 통신선을 살피나갔다. 담당구간을 죄 훑어보았으나 통신선엔 이상이 없었다. 선은 아마도 다른 구간에서 끊어졌던것 같다. 아무튼 다행한 일이었다.

(아무렴 그럴겠지. 이게 누가 말은 구간이라구...) 그는 비물에 흠뻑 젖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벽 닦고나서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우박같은 비방울에 얼얼하게 매맞은 얼굴은 불에 덴 자리처럼 화끈 달아오르고 목에서는 겨불내가 일었지



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선들을 다시 더듬어보면서 치킨 다리를 옮겨놓던 그는 주춤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사나운 비바람을 헤치면서 이쪽으로 마주오는 사람이 있었다. 비물에 번들거리는 고무비옷, 머리에 눌러쓴 낫익은 농립모, 그는 다름아닌 유충렬이었다. 오늘쯤 초소에 나타날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를 여기서 만날줄이야...

《아니 이 비에...》

문동호는 너무도 뜻밖이고 반가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유충렬의 눈길도 기쁨으로 빛났다.

《허허 그동안 수고했네. 무더기비가 내릴것 같다기에 새벽에 춘희와 함께 집을 떠났는데 끝내 중간에서 비를 만났군... 그래, 사고가 난 모양인데 벌써 복구해놓았나?》

《사고는 무슨 사고... 우리 구간은 아무 탈 없어요.》

《그럼 저쪽 구간 어디서 선이 끊어진게지... 그쪽은 살펴보지 않았나?》

《아니요. 그쪽이야 남의 구간...》

《뭐 남의 구간?》

문동호의 말허리를 꺾으면서 유충렬이 힐끗 눈을 치켰다. 문동호는 허가 굳어진듯 말을 잇지 못했다.

《남의 구간이라...?》

거듭 되뇌이는 유충렬의 두눈에 싸늘한 빛이 림광처럼 번뜩였다.

《그 통구리를 인주게...》

하고 그는 알릴듯말듯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문동호한테서 예비선통구리를 벗겨냈다. 그리고는 마치 비호처럼 곧추 앞으로 뚫다 뛰는것이였다. 문동호는 단침을 꿀꺽 삼키면서 입술을 감쳐물었다. 크나큰 감동의 물결이 밀물처럼 가슴 가득 피어오르면서 눈굽이 젖어들었다.

하긴 지금 상황이 어디 네 일 내 일 가릴 형편이 되였는가? 한데 어찌하여 자기는 미처 그쪽을 마저 살펴볼 생각을 못했던가!

유충렬한테서 받아안은 감동이 크니만큼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더해갔다. 그의 마음속의 때묻은 구석을 갈피갈피 찢어발기기라도 하려는듯 눈앞에서 섬광이 번쩍하더니 퇴성이 파르릉 지심을 흔들어놓았다. 문동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유충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폭우만이 몰박으로 쏟아지고있었다.

그는 종주먹을 부르쥐고 앞으로 내달렸다. 번개가 병곳거릴 때마다 희뿌연게 밀려드는 비구름을 헤치며 산비탈을 오르는 유충렬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드러났다. 산언덕을 넘어가는 그의 모습은 포연자욱한 불비속을 뚫고 적진으로 육박하는 화선병사같았다. 어찌나 걸음이 날랜지 좀처럼 따를수 없었다.

얼마후 문동호는 산마루에 올라섰다.

앞에는 아찔한 계곡, 깊은 골짜기로 시누런 황토물이 사품치고있었다. 끊어진 통신선이 치렁치렁 드리운 개울가에 유충렬이 홀로 서성대고있었다. 문동호는 가파른 경사를 단숨에 뛰어내려 그 한테로 다가갔다. 유충렬은 힐끔 뒤돌아보더니 예비선의 한끝을 거머쥐고 통구리채 그에게 넘겨주었다.

《내 저쪽으로 건너갈테니 차네는 여기서 줄을 천천히 풀어주게.》

하고 분부하는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심이 어려있었다. 그들의 앞에서 물결은 마치 불맛은 짐승처럼 사납게 갈개치며 울부짖고있었다. 문동호는 이것저것 생각할 여지없이 와락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아닙니다. 제가 건느겠습니다.》

《그건 위험해!》

《위험하기는 누가 건느던 마찬가지로입니다.》

문동호는 예비선통구리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그가 잡은 전화선을 고집스레 뺨 나꾸렸다. 그리고는 서슴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줄을 허리에 단단히 비끼러 매라우우...!》

등뒤에서 부르짖는 유충렬의 격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동호는 통신선을 허리에 감았다. 물은 허벅다리를 넘어 허리를 쳤다. 롱트림을 하면서 밀려오는 세찬 물결, 발을 옮겨디딜 때마다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모래와 자갈, 물살에 밀리어 때굴때굴 굴러오는 크고작은 돌들이 몸에 부딪듯 정신이 아찔해질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때마다 그는 대안에서 손에 땀을 쥐고 쇠줄을 풀어주면서 자기를 지켜보고있을 유충렬의 눈길을 등뒤에 느꼈다. 모름지기 그도 췌었을 때는 이런 위험한 고비쯤 수없이 넘겼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이젠 그도 선이 펴 넘지 않았는가. 내가 뒤쫓아오기를 잘했다. 이 사나운 물결속에 내가 뛰어들기를 잘했다. 남모르는 시련의 파도를 헤쳐가며 과반생을 통신선을 지켜온 유충렬, 그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바쳐도 아까울것 없다는 새로운 자각이 머리를 쳤다. 그는 허리에 감은 쇠줄에 의지하여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바로잡으면서 한치한치 물결을 헤쳐나갔다.

얼마후 기슭에 올랐다. 돌에 맞은 다리가 시큰거리고 몸은 지칠대로 지쳤으나 그는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전주를 향하여 곧추 걸어갔다.

비발은 차츰 성기여지고 바람도 한결 수그러들었다. 그는 끊어진 통신선이 맥없이 드리운 전주 꼭대기로 바라올랐다.

잠시후 통신선은 서서히 허공으로 떠올라 협곡을 가로타고 뱅뱅하게 조여졌다. 문동호는 끊어진 선을 뻗쳐로 잘라던지고 새로 늘인 통신선을 원선에 이어놓았다. 순간 전류가 흐르는 짜릿한 감도가 온몸에 찌르르 올라왔다. 통신은 회복된 것이였다. 일찍 체험해본 일이 없는 기쁨과 감격

이 마음속 깊은곳에서 솟구쳐올랐다.

《아저씨야-》

그는 걱정예 목메인 소리로 맞은편을 향하여 환성을 올렸다.

《전류가 흘-러-요오-!》

비바람에 말리어 그 소리가 대안으로 미쳐갔을 리 없건만 그쪽 전주꼭대기에 완목을 타고앉은 유충렬도 농립모를 벗어두고 마구 흔들고있었다.

양금줄처럼 전주와 전주사이로 줄줄이 뻗어간 은빛통신선은 큰 악단이 연주하는 현악기의 선률 마냥 물소리 바람소리 밀림이 설레이는 소리와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면서 웅웅거렸다. 그 거창하고 장엄하고 신비로운 음향은 오리오리 줄을 타고 잠시도 쉬임없이 오고가는 조국의 벽찬 숨결인지도 모른다. 도도하게 굽이치는 그 숨결이 가슴 한가득 안겨오는것만 같아 그는 마음이 숨 업해졌다.

## 7

잠시후 그들은 초소를 향하여 걸음을 옮겼다. 비는 가신듯이 멎고 바람도 잦아들었다. 광란후의 바다처럼 수림속은 고요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검산령마루에 아직도 무더기비를 왈카토해놓은 매지구름이 심술궂은 괴물처럼 검은 자락을 거꾸수수 날리며 었치락뒤치락 몸부림치고있었다. 모진 비바람에 나무들은 웃초리가 부러져나가고 잡초들은 어지러이 쓰러졌으나 잔디를 입혀놓은 공지는 조금도 질지 않았다. 비물이 질적질적 피어오르는 잔디밭을 따라 말없이 걸어가던 그들은 약초밭머리에서 춘희와 맞다들었다. 아마도 시험포가 걱정되어 나온듯했다. 비물에 씻긴 약초들은 미역을 감고난듯 청신해보이고 물기어린 잎새들도 생기를 띠고 번들거렸다.

《아이 인제야 오시네.》

까부장하게 허리를 굽히고 바람에 넘어진 약초들을 포기포기 바로잡고있던 춘희는 못내 반색하며 일어섰다.

《사고는 저쪽구간에서 생겼다면서요?》

《아니 넌 그걸 어디서 알았어?》 하고 유충렬이 시무룩이 웃으며 의아스레 물었다.

《호호, 왜 물라요? 저쪽 초소에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요. 통보를 받고 현지에 와보니 벌써 선을 이어놓구 두사람이 이쪽으로 돌아가는것을 보았대요. 고맙다구 인사를 전해달라구 거듭거듭 당부하지 않겠나요...》

《홍 고맙진. 그 친구 한번 따끔하게 충고해줘야겠어. 들뜬 생각 좀 작작하구 주인답게 일하라구...》

유충렬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그쪽을 말아보는 관리공이 워낙 몸이 허약한 사람이였는데 초소를 마치 한가한 료양지처럼 그릇 인식하면서 건성 건성 몇해째 일해오다가 최근 건강이 추서자 자리를 뜨지 못해 안달복달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

었다. 문동호에게는 그 소리가 어쩐지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겨져서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이윽고 셋은 초소로 돌아왔다.

춘희는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곧추 집으로 들어가고 문동호는 유충렬과 함께 몸을 씻으러 샘물가로 갔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샘물터의 주변도 어수선했다. 벼랑턱에 서있던 소나무는 뿌리채 모재비로 쓰러졌고 풀잎들이 어지러이 흩어져있었다. 나무숲이 우거진 계곡에서는 여울물소리가 전에없이 높았으나 바위썸에서 솟는 샘은 더 붓지도 줄지도 흐려지지도 않고 그전 그대로 맑디 맑게 흐르고있었다.

그들은 비물이 똑똑 흘러내리는 비옷을 벗어놓고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맑은 샘물에 발을 잠갔다. 무릎까지 바지가랭이를 말아올린 문동호의 다리에 애기손바닥만한 멍이 시퍼렇게 생겼다.

《거 몹시 다쳤구만. 언제 그렇게 됐나?》

유충렬이 눈이 등시래서 물었다.

《아마 물을 건널 때 돌에 얻어맞은것 같습니다.》

《저런, 그러구두 물에 쓰러지지 않은게 옹쿠만!》

《홍... 짧은놈이 쓰러지긴요.》

문동호는 쑥스럽게 웃으면서 눈을 내리깔았다. 그들은 저마끔 깊은 생각에 잠겨 묵묵히 손발을 씻기 시작하였다.

어디선가 빼꾸기가 구성지게 울었다. 나무숲속에서 메새들이 저마끔 목청을 돋구어 즐겁게 우짖고 이따금 꾀꼬리가 간드러지게 회파람을 불어댔다. 눅눅한 바람이 건들거릴 때마다 벼랑턱에서 비방울이 물우에 후둑후둑 떨어졌다.

《아저씨.》

귀따갑게 지절대는 새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명상에 잠겼던 문동호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한상빈선생한테서 편지가 왔더군요.》

《나도 보았어.》

하고 유충렬은 진중히 대답했다. 그의 표정은 갑자기 심중해졌다. 문동호는 가슴이 설레었다.

《그래 어떻게 하시렵니까? 연구소로 가서야지요...》

실상 그것은 그와 함께 초소로 돌아오면서 못 견디게 하고싶던 말이였다. 유충렬은 무슨 소리냐는듯 그를 힐끔 바라보더니

《그럼 이곳은 어떻게 하구?》 하고 신중한 어조로 되묻는것이였다.

《설마 초소를 말아볼 사람이야 없겠나요? 가령 아저씨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저도 여기에 눌러있을 용의가 있어요.》

《저런, 나의 장래를 위해서?...》

유충렬은 흥미가 없지 않은듯 능청스레 물었

다.

《이건 룡이 아니예요.》

《 룡이 아니다?...》

《그러므로. 난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술해 생각해보았어요.》

문동호는 치미는 흥분을 가까스로 누르며 자신이 느끼고 결심한바를 자상히 털어놓았다.

《그래서 전 단순히 아저씨의 개체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도 또 나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도 내가 이 초소를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유충렬은 덤덤히 귀담아듣더니 상념에 잠긴채 입을 열었다.

《가령 내가 동무의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하지... 그러나 어때? 동문 후날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진 않겠나?》

《후회하긴요...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전 리성과 량심으로 능히 그것을 이겨낼수 있습니다.》

《리성과 량심? ... 그러니 결국 도덕적의무감으로부터 그런 결심을 다졌단말이지?》

《.....》

문동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유충렬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심스런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적이 없지 않아... 남들이 마다하는 이고장에 내가 놀러있자. 그래서 판에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대신해서 나를 바친다는 은근한 자부심과 긍지까지 가졌됐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과정에 자신을 수양한다- 아무튼 그도 고상한 도의적감정인것만은 틀림없어. 하지만 나는 그러한 자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넘쳐야 할 시대적감정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 지난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자아완성>이니 <도덕적수양>이니 하고 그러루한 인생관을 운운해왔고 수많은 작가들이 자기들의 작품에서 그런 주인공을 본보기로 내세우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높이에 있어서 그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주체시대의 새형의 세대들이야... 난 이따금 이 샘물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지. 십산속 바위쥬에서 솟는 이 작은 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장철 변함없이 지심깊이 소용돌이치고있는 자기의 맑고 깨끗한 물줄기를 내뿜어 시내를 이루고 대하에 어울려 넓은 바다에 이르지 않는가.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한상빈연구사도 편지에서 바로 이것을 말하고있네. 그가 이 산간초소에 와서 느낀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있단말이네... 설사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또 남이 알아주건말건 사사로운 타산을 초월하여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한마음 충만된 충성심으로 자기의 삶을 빛내야 할것이라고...》

유충렬의 담담한 어조는 마디마디 흥벽을 올렸다. 문동호는 격동된 심정을 가까스로 누르면서 얼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자기를 마주보는 유충렬의 두눈이 그윽한 호수처럼 빛나고있었다. 예지가 번뜩이는 그 눈매는 순결하게 감정을 정화시키는 그런 매력을 갖고있었다. 샘처럼 맑고 깨끗하고 웅숭깊은 그의 넋이 그대로 영채를 뿜는듯싶어 문동호는 더없이 마음이 황홀해졌다.

그는 벽차오는 숨결을 몰아쉬면서 다시 샘물에 눈길을 옮겼다.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쥬으로 파아랗게 드러난 쪽빛하늘이 맑은 물결우에 곱게 어렸다. 이끼진 바위쥬에서 송골송골 솟는 수정샘은 마치나 그를 새로운 세계으로 이끄는듯 흙채기를 따라 벼랑가에서 한줄기 폭포로 쏟아지고있었다. 문동호는 눈앞에서 춤추듯이 맴돌이치는 샘물에서 좀처럼 눈을 뗄수 없었다. 그는 유충렬이 결코 이 초소를 그 어떤 다른 초소와도 바꾸지 않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기 역시 이 맑고 깨끗한 샘처럼 변함없이 순결한 충성심으로 혁명의 한길에 몸바치리라 굳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문득 등뒤에서 처녀의 오돌진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참 여태 게서 뭘하세요?》

두사람은 일시에 그쪽을 돌아보았다. 머리에 나이론꽃수건을 땀시있게 두르고 색고운 원피스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춘희가 벼랑가 길목에 서있었다. 아마도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못하여 쫓아나온듯싶었다. 유충렬의 꿈을 물려받은 처녀, 그의 영향하에서 약조전문가로 자라는 그도 이고장에 뿌리를 깊이 내린 또 한떨기의 꽃이 아닌지... 젊음이 활짝 핀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동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얼마후 그들 셋은 이슬맺힌 오솔길의 잔디를 헤치며 가지런히 트랙에 들어섰다. 7자로 꺾여 지은 귀틀집 처마끝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전투장》이라고 쓴 큼직한 간판이 언체나와 같이 그 자리에 걸려있었다. 이제 문동호는 그동안 말아보던 일감을 도로 넘겨주고 자기의 옛초소로 돌아가야 할것이었다. 언제 다시 이곳으로 올 기회가 있을는지... 한적한 숲속에 외로이 서있는 작은 귀틀집, 여기에서 보낸 길지 않은 나날을 문동호는 평생 잊을것같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할 오솔길을 더듬어보았다. 흘러가는 구름장사이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금빛해살이 숲속으로 뻗어간 한줄기의 길우에 밝게 빛나고있었다.

# 해쫄는 먼 바다에서

장호건

하늘이 불타는가  
바다도 불타는가  
하늘도 바다도 노을로 붉게 타는  
먼 바다의 장엄한 해돋이를 바라보며  
이 아침도 그대, 3대혁명소조원  
달리는 프랄선 배머리에 섰구나

수평선우에 쫄은 해를 향하여  
파도를 딛고선 호연한 자태여,  
열정에 넘치는 그대의 눈빛  
맹세로 불타던 첫 출항의 그 아침처럼  
노을을 비껴담고  
굽실대는 대양을 굽어보는가  
멀리 멀리  
떠나온 그 기슭을 더듬어보는가

그대의 마음  
저 끝없는 파도를 타고  
조국의 기슭으로 기슭으로 물결쳐가는가  
자애로운 어버이 그이 품으로  
목메여 목이 메여 안기는것인가

한기망의 고기떼를 퍼올리어도  
수령님께서 청춘들을 먼바다에로 불러주신  
그 높으신 대양정복의 뜻을 더 깊이 새겨안자고  
어로공들의 두손을 잡아흔들며  
그리도 절절히 충성으로 불러온 그대

얼마였던가,  
더 높일 투망회수와 어로속도를 놓고  
탐구의 모태김속에  
달빛 흐르는 배머리를 끝없이 거닐던 밤들은...  
일군들의 머리에서

보수와 신비주의의 먼지를 털어내며  
가슴마다 불덩이를 안겨주던 그 새벽들은...

조국 떠나 수천마일 멀어질수록  
그대 안고오른 목란꽃  
선원실 창가마다 향기를 풍기였고  
그대 배워준 랑만의 손풍금소리  
갈매기처럼 파도우를 높이높이 날았거니

참으로 보람큰  
3대혁명소조원의 영예도 높이  
풍랑도 일음산도 뿔고넘어  
바라보는 환희의 해돋이여서  
그대 가슴 그리도 설레이는것인가  
그대 눈빛 그리도 빛나는것인가

만리수역 그 어디로 가든  
함박눈 송이송이 내려앉던 만수대언덕  
어버이수령님 손저어 친히 바래주시던  
사랑의 그 언덕을 언제나 뜨겁게 안고 살아  
그대가 생각하는 조국의 모습은  
아, 한없이 인자하신 수령님 영상!

그이께서 바라시는  
더 풍성해질 인민의 식탁을 위해  
창파우에

3대혁명을 꽃피워가는  
그대의 불같은 충성의 마음인가  
끝없이 파도치는 수평선우에  
찬란히도 아침해 솟아오르나니  
아아, 이 시각

그대 눈시울 젖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론 영상이여!

#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석광희

백두산기슭의 첫 발이랑에서  
분계선마을의 마지막 논배미까지  
하늘과 땅사이에 차고넘치는  
오곡백과의 설레임소리,

노래이면  
이보다 더 좋은 노래  
속삭임이면  
이보다 더 살뜰한 속삭임  
그 누가 들려줄수 있으랴

발목이 시도록  
자꾸만 자꾸만 걷고싶어라  
한종일 가도가도 끝이 없는  
벼바다, 강냉이바다...  
한가슴에 다 안고싶어라

다치면 구슬처럼 쏟아져내릴듯  
호합진 벼이삭 무겁게 실린  
논판은 논판마다  
아버이수령님 기쁨의 웃음 남기고 가신  
영광의 포전으로 파도쳐 설레이고,

비탈진 오솔길을 오르신 수령님께서  
기쁘시여 못내 대견하시여  
시간이 감은 잊으시고 머무르시던  
다락밭은 다락밭마다  
알찬 강냉이이삭 탐스러웁고

갈수록 목메일듯 풍겨오는  
날알의 향기속에 취해가는 길  
삼삼히 어려오는 수령님의 발자욱을 따라  
걸음걸음 삼가 옮겨디딜제

가슴에 파고들여라  
늦겨울이 드러누운 농장벌에  
봄을 거느리고 찾아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자욱따라 녹아흐르던  
그 눈석이들의 조잘거림이,

그 봄에 앞서 다시 또다시  
풍성한 열매 맺는 여름을 불러오시고  
그 여름에 앞서 다시 또다시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을 마련하시는  
거룩한 발자욱위에 어린 크나큰 은덕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로고로 이어지는 수천수만리  
들을 지나 강을 건너 험한 령 넘어  
끝없이 걸으신 그 길우에  
눈이 오고 비가 내리고  
해는 뜨고 달은 지고...  
저리도 어리광치는 만풍의 황금나락  
들에 언덕에 알알이 영글었어라

폭양에 끓는 여름의 한낮  
나어린 처녀분조장을 이끌어 가르쳐주시며  
수수한 옷차림으로 강냉이숲을 헤치시던  
아버이수령님의 친근하신 영상  
이 좋은 들길에서 다시 뵈옵는듯,

이 땅우에 흘러넘치는  
관개의 푸른 물줄기를 이끌어주신 그 손길로  
지하수가 솟구치는 발머리 우물가에서  
관리위원장의 흙문은 손을 잡아주시던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젖어드는 눈물속에 다시 우러러라.

아, 뜨거우신 그 사랑으로  
추위를 밀어내시고  
모진 가물을 막으셨어라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걸들이시며  
한랭전선의 재난을 물리치시니

바람도 그이를 따라서 불고  
물도 그이를 따라서 흐르고  
그이 가지는 거룩한 자욱을 따라  
곡식들도 저렇듯 머리숙여 파도치여라  
이 땅에선 수령님의 품속에서  
봄이 시작되고 꽃이 피고  
푸르른 여름이 설제이고  
가을의 열매 풍만하게 무르익어라

아, 고귀한 한평생을 바쳐가시며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걸고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걸음걸음을 따라  
세월은 흘러라,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가장 아름다운 불멸의 빛으로, 만풍의 노래로  
대지에 아로새겨 길이 전하며.-

## 벼바다, 강냉이바다-사랑의 바다

홍현양

우리는 시인들과 함께 농촌현실체험을 위해 떠났다.

승용차는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려간다.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울리며 살같이 달리는 차창으로는 시누렇게 익어가는 논밭들과 팔뚝같은 이삭들을 빼든 강냉이밭들이 피끗피끗 지나간다.

보기만해도 입이 절로 벅글썩해진다.

《저 강냉이를 좀 보라우.》

《저 벼이삭들을 보오.》

차를 함께 타고가는 시인들은 만풍년의 작황을 자랑하며 설레이는 들과 등성이들을 바라보면서 즉흥시라도 읊듯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순안을 지나고 숙천군에 들어설 때까지 꽃밭처럼 하나같이 가꾸어진 포전들을 보는 우리의 심정을 무엇이라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열두삼천리별 곡창지대인 숙천을 뒤에 남기고 한참 가느라니 깨끗하게 2층건물들이 일어난 도시가 나타났다.

《여기가 어디요?》

《아마 문덕인것 같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차는 또다시 논밭들과 강냉이밭들을 양옆에 끼고 바람을 일구며 고개마루에 오르는가 하면 경적을 울리며 굽이굽이 내리막길을 돌아간다.

얼마쯤 달리던 차는 또 새로운 도시에 들어섰다.

《여기는 또 어디요?》

《신안주가 아닌지 모르겠소.》

운전수동무도 시인들도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며 어림짐작으로 생각하다가 교통안전원에게 물어가지고서야 지명을 똑똑히 알군하였다.

운전수동무가 이 길을 수없이 오고갔겠는데 지명을 그렇게도 모를수야 있겠는가.

작황이 하도 좋은 벼바다, 강냉이바다를 보며 오다보니 평양에서 신안주까지 오는 과정의 지명들도 미처 새겨볼새가 없었던것 같다.

신안주를 떠나 계속 들을 누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 못할 기쁨을 주는 저 향기로 가득찬 땅은 어데를 보아도 차이가 없이 만풍년의 크나큰 숨결을 안고 춤추는듯 흥치며 설레이고있다.

울창한 수림이 짙 들어찬 산밭들이 려이어 마주오고 뒤따르는 길을 따라가던 우리는 도회고개에 올라섰다.

여기서부터는 평안남도 안주군 상서리땅이다.

차가 이 고개에서 몇굽이를 돌아내려가자 수려

한 산봉우리들이 빙 둘러 막혀서있는 넓은 분지가 나졌다.

분지의 좁지 않은 벌가운데로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그 량쪽으로 낮은데는 논들이 펼쳐져있고 등성이로부터 산으로 오르면서는 강냉이밭들이 끝없이 펼쳐져있다.

하늘에 우뚝 솟은 왕산기슭에 여러채의 아담한 주택들이 마치 그려놓은듯이 오붓이 자리잡고있다.

여기가 바로 상서리 소재지인것이다.

리초급당위원회에 들어가 비서동무를 만나 농장의 형편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우리는 부비서동무와 함께 포전으로 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또다시 알곡생산에서 대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강령적교시를 새겨보면서 훌륭한 작황이 마련된 상서리의 포전들을 우리는 감회깊게 둘러보았다. 마을을 벗어나 조금 나오니 길옆에 유별나게 잘된 강냉이밭이 눈에 들었다.

부비서동무는 바로 그 포전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5년 2월 3일 오후 이 발머리에 오시여 우리 농장원들에게 강냉이포기농사법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포전에서 일하는 농장원들을 만나시여 농사형편에 대해서 알아보신 후 몸소 밭고랑에 들어서시여 금을 그어가시면서 강냉이포기농사법을 하나하나 익혀주시였다.

바람에 설레이는 강냉이바다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처럼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의 그 씨앗이 오늘은 해를 따라 만풍년의 작황을 안아올리고있지 않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기 안주군 상서리 한개 리에만 돌려주신 배려를 놓고보아도 이 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땅이 얼마 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척박하고 소출도 많이 나지 못하는곳에 몰까지 바르다보니 농사를 하는데 불편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헤아리시고

연풍호의 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 주시었다.

농민이 살고 그들이 가꾸는 땅이 있는곳이라면 깊은 산골이건 벌방이건 가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생명수를 보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이 보살피심속에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뜻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서산봉줄기를 넘어 흘러오는 연풍호물을 받아 상서리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쓸모없이 누워있는 개바닥과 산등성이들을 정리하여 거기에 논을 풀고 밭을 갈아 벼와 강냉이농사를 지으라고 프락토르, 불도젤을 보내주시어 토지정리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하여주시었다.

리당부비서 한의태동무는 서산봉줄기와 그 아래 강기슭을 가리키면서 《그리하여 불모의 땅이 오늘은 이렇게 강냉이바다, 벼바다로 설레이고있지 않습니까.》라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었다.

안주군 상서리는 말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속에서 꽃피여난 땅이다.

왕산, 서산봉, 살류봉, 봉명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고장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사랑의 이야기도 끝없이 많으니 한생을 여기에서 살고싶은 심정이 일시에 쏟아져나온다.

서산봉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고있는 3층교사를 바라보아도 아버지수령님께서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야기가 있고 매개 농가들 둘러보아도 크나큰 은덕을 받아안으며 감격에 눈물을 짓던 잊지 못할 날들이 간직되어 있다.

하기에 상서협동농장원들은 올해의 알곡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 아버지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릴 일념을 안고 모든 논밭을 《만풍년포전》으로 만드는 투쟁의 첫 봉화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해왔다.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주인다운 일본새로 강냉이모를 옮기고 김을 매고 비료를 주며 아굴타굴 일해온 1작업반 3분조장 고영룡동무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강냉이포기농사법을 가르쳐주시던 잊지 못할 그날의 감격이 충성의 마음으로 불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한점의 불꽃은 농장원들의 심장마다에 투쟁의 봉화로 옮겨져 《만풍년포전》만들기투쟁의 역사적 행군이 이 땅우에 시작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던 포전을 고영룡동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여 관리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강냉이포기와 포기사이에 충화가 없도록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것은 비료를

더 주고 빈 자리에는 새 강냉이모를 옮기면서 한 포기라도 더 심을 새 땅을 찾아내여 뜨거운 충성심을 심어갔다.

이에 고무된 분조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기 한포전씩 맡아서 정성껏 가꾸기 시작하였다.

어느 한 아주머니는 앓아서 농장일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자기가 맡은 포전에 손을 대지 못하는것이 마음속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마치도 강가에 아이를 두고온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였다.

그는 앓으면서도 늘 강냉이밭 걱정을 버릇처럼 이야기하곤하였다.

며느리의 이 가욕한 심정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있었으나 자기가 그를 대신하여 포전에 나가 김을 매고 비료를 주면서 알뜰히 가꾸어나갔다.

그리하여 상서리에는 제일 좋다는 마을어구의 포전들과 제일 척박하다는 산등성의 밭들이 하나도 차이 없이 다 《만풍년포전》으로 될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일을 잘해온 상서리에서는 올해 이 땅에 보습을 댈이래 처음 보는 작황을 마련할수 있었다.

몇해전만 하더라도 정보당 600키로밖에 내지 못하던 상서리의 척박한 땅에서 해마다 소출을 높여 올해에는 만풍년 든 지난해보다 2배나 더 많은 강냉이가 나올것이 예견되고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돌밖에 없던 산장밭에도 주체농법의 찬란한 햇빛이 비쳐들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것을 우리는 어길수 없는 진리로 받아안았다.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시인 전동무와 함께 나섰을 때였다.

멀리 화성기에서는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의 노래가락이 흥겹게 울려나오고있었다.

.....

공장엔 창조의 불꽃 날리고

들에는 오곡이 설레이다네

수령님 경도로 부강한 나라

사회주의 내 나라 살기 좋아라

노래가 올라가는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찬란히 비껴있었다.

《전동무, 저 노래가 마치 우리의 심정을 말해 주듯 나오고있구만!》

《정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만풍년 작황이 이루어진 농촌현실속에 들어와 저 노래를 들으니 느낌이 더 새로와지는데...》

우리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있을 때 다른 시인들도 마당가에 나와 은하수가 비껴간 저 남쪽, 우리가 떠나온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눈시울이 젖도록 그리었다.

하루밤을 자고 해가 봉명산마루에 솟아오른 아침 우리는 력사의 땅 안주군 상서리를 뒤에 남기고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개천군 보부리로 떠났다.

높고 낮은 야산들을 끼고 얼마쯤 달리던 차는 그리 높지 않은 언덕에 올라섰다.

차창으로는 푸른 호수가 비껴들었다.

《연풍호다!》

앞에 앉아가던 시인 박동무가 제일 선참으로 월쳤다.

《호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바다로구만.》

운전수동무도 마치 시인이냐 된듯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나타내었다.

바다!-이 세상의 크나큰것을 거기에 비긴다. 그러나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평남판개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창조물을 이 땅우에 이룩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덕을 어찌 바다에만 비길수 있으랴.

조국땅우에 그물망처럼 덮인 물길은 가물에 타오던 땅을 적서주고 농민들의 물에 대한 세기적인 소원을 풀어주었으니 호수를 바라보며 하늘과 땅에도 비길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싣고 물결은 끝없이 끝없이 기슭으로 밀려오는듯싶다.

룡흥리, 외서리를 지나 개천군 보부리에 도착한것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이다.

우리는 이곳에 파견되었은 3대혁명소조원동무를 만나 농사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다리옆에 있는 강냉이포전의 한 우물옆에 다달았다.

3대혁명소조원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년 4월 11일과 4월 13일에 보부리에 나오시여 가물과의 투쟁을 잘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고 지하수혁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말해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창 공사중이던 여기에 오시여 설치되어있는 삼밭이를 친히 짚으시고 우물안을 들여다보시면서 물의 깊이를 헤아려보셨으며 이 우물옆에서 방식상학까지 소집하시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꼭 메여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4월 15일을 앞둔 그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직 찬바람이 불어치는 들판을 거니시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이상기후조건을 이겨내고 만풍년의 가을을 이 땅에 마련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심려하고 계시지 않으셨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보부리 농장원들은 소형발동기를 네바퀴가 달린 밀차에 올려놓고 끌고다니면서 파놓은 우물과 굴포의 물들을 포전마다에 대여주었기때문에 지난 6월~7월

의 왕가물을 이겨내고 한포기의 강냉이도 말리워 죽이지 않았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원동무와 작별인사를 나누후 개천군 봉화협동농장으로 향하였다.

개천읍을 벗어나자 벼들이 익어가는 드넓은 봉화벌이 펼쳐졌다.

안주군 상서리는 중간지대치고 산골지방에 속하여 강냉이농사가 위주라면 개천군 봉화협동농장은 중간지대치고도 벌방에 가까운 지대로서는 농사가 위주라는것이 눈에 확연히 나타났다.

김은주관리위원장과 만난 우리는 올해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었던 이야기를 좀 하여달라고 했다.

관리위원장동무는 창밖으로 봉화벌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작은 수첩을 꺼내들고 그 무엇인가 적어가면서 말을 시작했다.

《아버이수령님을 또다시 만나뵈었던 감격의 그날이 바로 금년 4월 11일 오전 11시가 좀 지나서입니다. 저는 그날 2작업반 포전에서 농장원들과 같이 령상모판을 관리하고있었는데 저쪽 도화리가 있는데로부터 승용차들이 달려오고있더군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시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한 저는 막 길가로 달려나갔지요. 제가 길턱에 나서자 벌써 승용차들이 앞으로 오고있지 않겠어요. 저는 맨 앞에 오는 차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조금 차가 지나치더니 우뚝 멈춰서면서 한 간부동무가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급히 달려가보니 그곳에는 오매에도 그림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그간 잘 있었는가고 따듯이 물어주시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은주관리위원장에 영농준비형편을 알아보신후 모판관리를 잘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또다시 고귀한 가르침을 받는 은주관리위원장의 눈앞에는 다섯차례나 이렇게 몸가짜이 자기를 부르시여 봉화협동농장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던 그 잊지 못할 나날들이 떠올랐다.

뜨락또르를 보내주시고 령상모판 비닐박막이 부족하다는것을 아시고 또 보내주시는 그 사랑, 그 은정에 목이 메여 은주관리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꼭 모내기를 제철에 끝낼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봉화협동농장원들은 언 땅을 까내고 불을 피워 녹여가면서 다른 해보다 일찍 모판을 꾸리였다.

이 과정에 관리위원장은 물론 기사장도 작업반장도 농장원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들판에서 살며 일을 하였다.



모내기때에는 제철에 어김없이 모를 내기 위하여 밤에는 횃불을 켜두고 일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사람들이 켜들었던 그날의 횃불바다- 그것이 그대로 봉화벌의 벼바다로 설레이는것만 같다.

김은주관리위원장은 말을 끝마치면서 력사의 땅 절골양수장에 한번 가보자고 하였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김은주관리위원장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었던 노가자동 포전에도 들러보았다.

그곳에서 발걸음을 옮겨 절골양수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을 때 관리위원장동무는 설레이는 논배미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7년 4월 10일 절골 양수장건설장을 찾으실 때에 이리로 가시었는데 그때에는 피를 심는 밭최뚝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그 로정을 따라 지금 이 길이 생겼고 그이께서 보내주신 양수기로 청천강물을 퍼올려 저 논들이 생길수 있었습니다.》

수천년동안 흘러내려오는 청천강물을 옆에 두고도 이 땅에 조나 피밖에 심을수 없었던 농민들의 수난에 찬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생명수를 받아안고 해방된 조국땅우에서 소를 몰아 논을 풀었을 그 행복한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안겨왔다.

작은 룡선을 에돌아간 길을 타고 오르니까 절골양수장이 나타났다.

2단으로 되어있는 양수장은 얼마나 잘 꾸려져 있는지 마치 공원속에 들어서서만 같았다.

전망대에 오르니 아래로는 청천강 검푸른 물이 흘러내려가고 강건너 맞은편에는 평북도 녕변군 서화벌이 펼쳐져있다. 수백만의 병사들이 총창을 비껴든듯 개꼬리를 하늘높이 쳐들고 촌촌히 서있는 강녕이밭들을 바라보기란 정말 장쾌하였다.

전망대에서 2층으로 내려오니 거기에는 정중히 꾸러진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7년 이곳 농민들에게 보내주신 18인짜양수기와 전동기 그리고 그날에 풀어보신 농민들의 점심밥바리가 그대로 소중히 보존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눈바람을 헤치고 걸어오신 그 걸음으로 농민들에게 보내주신 생명수를 이 땅에 안아올린 사랑의 양수기!

조국땅 모든곳에 차고넘치는 만풍년의 물줄기는 바로 여기에도 그 시작을 두고있다.

력사의 땅, 절골양수장을 떠나 우리는 평북도 녕변군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우리는 청천강의 다리를 건너 서화리, 동남리를 누비면서 녕변읍에 들어섰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9년 10월에 착

아오셨던 그 길을 밟으면서 약산동대에 올랐다. 시원한 바람이 단 이마를 식혀주며 불어왔다. 약산동대의 거북바위에 오르니 마치나 비행기를 타고 땅밧을 내려다보는 기분이다. 마음이 상쾌하다고만 할가.

약산동대우에 올라서 바라보니 서쪽으로는 구룡벌이 눈길에 모자라게 펼쳐져있고 동쪽으로는 녕변읍 협동농장의 강녕이다락밭이 남산과 북산기슭에 층층이 솟아 설레이고있다.

비단필을 펼쳐놓은듯 구룡강이 밧밧에서 흘러내린다.

아득히 저 먼곳 점점이 모여있는 구룡지대 사이사이에서 벼바다가 흘러내려오는듯 논배미들이 마치 물결처럼 끝없이 이어지며 펼쳐져있다.

벼바다, 강녕이바다의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그 어디인가.

수천년 세월의 비바람에 씻겨 이끼푸른 학벼루도 머리를 높이 들고 이 땅이 생겨 처음으로 아는 올해 만풍년의 들판을 바라보며 목이 메는듯 송엄하게 솟아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천하제일강산, 아름다운 땅우에서 세세년년 만풍년을 이룩해가는 우리 인민은 천만년 무궁토록 번영하리라.

온 나라 들판에 펼쳐진 만풍년의 벼바다, 강녕이바다를 그러보는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주체농법을 창시하시여 해마다 만풍년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심려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로고가 뜨겁게 안겨왔다.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정해주시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을 친히 마련하시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극복하고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아버지수령님.

올해정초부터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끊임없이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올해의 만풍년농사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가고있기때문에 세계가 가물과 물기근으로 아우성치고있으나 이처럼 벼바다, 강녕이바다를 바라보며 세상에 부럼없이 살고있는것이다.

주체의 태양이 빛나는 강토여!

찬란한 주체의 해빛이 저 들과 산야를 인민을 위하여 가꾸어주고있기때문에 지구를 덮는 얼음산의 찬바람과 적도의 열풍도 이 땅에 찾아오는 만풍년의 발걸음을 멈춰세울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천대를 두고 만대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불멸의 송가로 높이높이 부르리라!

## 새로 온 조리공

## 리광식

날씨가 갑자기 차졌다. 한낮이면 번지르하니 녹군하던 길바닥이 언제부터인가 실봉산마루의 마른 쭉대를 꺾어놓으며 기여넘어오기 시작한 차가운 서북풍에 아주 꾸덕꾸덕 얼어붙고말았다.

밤나무골 축산반장 신종삼은 아침 일찍 상을 물리기 바쁘게 축사로 올라왔다. 그동안 만능분쇄기 정비작업으로 축사를 떠나있었던 그는 작업반 일이 은근히 걱정되었던것이다.

방금 새벽물주기를 끝낸 뒤라 골안에는 가뭇조을듯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사양공들도 아침밥을 먹으러 내려갔고 뜨끈한 먹이로 배를 채운 돼지들도 더는 유한이 없는듯 구유앞에서 물러나 천천히 우리안을 거닐었다.

막달에 접어든 어미돼지들의 몸은 며칠사이에도 몰라보리만큼 비대해진것 같다. 어떤놈들은 벌써 밀배가 축 처져가지고 젖꼭지를 땅에 끈다.

농작같은 배를 깔고 늘어지게 누웠던 한놈이 큼직한 보위색숨뿔저고리에 누런 개털모자를 꼭 눌러쓴 신종삼의 낮익은 모습이 우리앞에 나타나자 닝크 일어나 마주나오며 두울두울 반가운 소리를 질렀다.

《하하하, 이놈들, 그래 밤참을 먹어보니 어떻더냐, 굶기두 한결 덜 굶지?》

신종삼은 얼른 갈퀴같은 손을 뻗쳐 돼지의 허연 귀밑을 썩썩 긁어주었다.

그러자 그놈은 금시 어린애처럼 노근노근해져서 스스로 실눈을 지었다.

10년동안을 하루와 같이 짐승들과 함께 살아오는 그지만 요즘처럼 이것들에 대한 정이 각별해보기는 처음이다.

하긴 지난 가을 농장 쫓기모임에서 이번 겨울 철새끼냥이를 성과적으로 보강하여 금년도 작업반앞에 나선 증산과제는 물론 앞으로 2년5산을 정상화하도록 할것을 철석같이 맹세다진 신종삼이고 보면 그럴만도 한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겨울철새끼냥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만큼 우리안의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협동농장 실정에서 종전의 먹이조건만 가지고 서둘러

접어들었다가는 년2산생산조직에마져 파동을 줄수 있기때문에 너무나없이 주저해왔었다. 하지만 종축마리당 생산을 높일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그것이라는것이 명백해진 오늘에 와서 신종삼은 더는 망설이고있을수 없었다.

그는 청초로 베풀어지고 싶었던 사료전의 알곡을 대담하게 익혔다. 그바람에 장마철 청사료가

동강나서 한동안 어려운 고비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대신 세톤 나마되는 사료예비를 확보할수 있었던 그는 2년5산을 하기로 한 1분조돼지가 다 임신후반기에 들어서고 대설밑의 강추위가 시작되자 마침내 밤먹이 두때에 포함시켜 예비사료를 널 작성하고 조리공 리춘보를 불러들였다.

《돼지라는게 먹는것밖에 모르는 짐승인데 밤이 긴 때엔 밤잠을 해야 속이 허하질 않을게 아니요. 그런데 저게 몸두 비지 않은것들이 이 좁구긴 밤에 오죽 속이 떨릴테요? 그래서 좀 고단은 할테지만 오늘부터 밤먹이를 두어때씩 더 주자고 하는데 춘보동무 생각은 어떻소. 꽤 해냄직하우?》

그가 지금 낮먹이 다섯때만 끓여내자해도 힘에 부칠게 뻔한데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접수할는지 몰라서 그는 우선 이렇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걱정이였다.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서 그렇게 합시다.》

리춘보가 선뜻 찬성해나섰던것이다.

(음, 좀 잘긴해두 사람은 아주 진국이란말이야.)

그때 신종삼은 리춘보가 처음 축산반에 왔을때의 인상이 되살아나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느 군식료공장에서 일하다가 농촌진지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접하자 자진하여 농장으로 나왔다는 리춘보는 체소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였다. 빗날은 작업모를 꼭 내려쓰고 앉아서 빠금빠금 담배를 피우는 모양이 얼핏 보면 지내 소심하고 웅졸한것 같기도 해서 첫눈에 썩 드는 사람은 아니였다. 더우기 관리위원회에 건너갔던 신종삼이 새 조리공이 왔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급한 불 일마쳐 뒤로 미루고 달려왔을 때 리춘보는 구유옆에 처던진 찌끼무지를 맨손으로 허비고있었다.

《아니, 무얼 떨구기라도 하였소?》

《허허, 떨군게 아니라 거 어쩐지 처던진 찌끼가 아깝군요. 이것을 거두어서 다시 조리해먹일수는 없습니까?》

신종삼은 허리에 두손을 얹으며 그의 머리너머로 면산을 바라보았다.

(결불안이라더니, 옛말 그른데 없군... 어쨌든 사람이 덩치는 좀 크구 봐야겠다. 덩치가 조막만하니 한다는 생각두 온통 자질구레한것뿐이로군.)

그러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소개를 하고 났을 때 그의 손을 잡으며 리춘보가 한 말은 신종삼의 기분을 일변시켰다.

《반장동무가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포부는 큰데 집짐승 키우는 일은 처음입니다.》

(동무?!)

하긴 언제든지 《신령감》이 아니면 《반장아바이》로 불리워오던 그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대명사는 류달리 귀맛좋은것이였다. 자기가 꼭 10년은 젊어진것 같은 느낌으로 매우 흡족해진 신종삼은 이날 선뜻 피춤에 찻던 창고열쇠를 끌러 그 앞에 내밀수 있었다.

과연 리춘보는 속이 좀 웅졸해뵈기는 하지만 소박하고 진국인테가 있는 사람이였다. 더우기 그는 배우자는 열성이 대단했다. 깨알같이 박아 쓴 축산기술서적을 시간가는줄 모르고 들여다볼 때는 일견 답답한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신종삼이나 사육공들은 물론 어찌다 한번씩 들리곤하는 관리위원회 축산지도원도 그와 마주앉으면 필경 땀을 빼고야말곤했다. 신종삼은 그가 머지않아 꼭 훌륭한 조리공으로 되어주리란것을 믿어의심치 않았었다.

그랬는데 이번 밤먹이를 두때씩이나 더 주자고 하는 신종삼의 제의를 첫마디에 선뜻 접수해나섰던것이다. 축산지도원이 밤먹이 두때를 포함한 새 공급량을 작성해가지고 오면 그대로 먹이를 내자고 이르고난 신종삼은 그날 만족한 기분으로 수리분조에 나와서 만능분쇄기 정비작업에 착수하였었다...

돼지가 털썩 드러누우며 다리살을 들어올리는 바람에 신종삼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예끼, 이 버르장머리라곤 없는놈! 내가 지금 네놈의 사타구니까지 긁어주구있을 사이가 없다.》

신종삼이 그놈의 살찐 엉덩판을 철썩 갈기자 흠칫 놀란 돼지가 우뚝! 하고 육중한 몸을 번개같이 일으켜세우는데 털끝에선 번들번들 윤기가 빛나고 두부모같은 허연 군살이 턱밑에서 흔들흔들한다.

《더두 말구 한배에 여덟마리씩만 낳아라. 그래야 이 신종삼이가 다진 맹세를 실천한다. 응 이놈!》

또 한번 다정히 잔등을 두드려주고난 신종삼은 휘적휘적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작업분공을 끝내고 사료창고안으로 들어갔던 신종삼은 대번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밤먹이 두때에 포함시켜 밀어넣기로 했던 예비사료가 그냥그대로 창고 한켠구석에 쌓여있었던것이다. 처음엔 혹시 셈을 회켰나 해서 고쳐 따져보았고 그래도 낸 흔적이 보이지 않자 이번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이사람이...? 그래도 밤먹일 주긴 주던

데?)

수리분조에 나가 밤을 패며 작업을 할 때에도 그는 가끔 실봉산마루를 건너다보곤했다. 그때마다 밤나무끝어구에 외등이 환히 켜져있군해서 그는 마음을 놓곤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밤먹일 주었다면 어찌 예비사료가 그대로 있을것인가?

당장 사유를 알아보고싶은 마음은 불갈았지만 리춘보가 올라오기전에는 알아낼 방도가 없다.

리춘보는 이날따라 다음번 먹이공급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올라왔다. 올라와도 그냥 올라온게 아니라 방금 켜낸듯싶은 싱그러운 송진내가 풍기는 소나무관자를 한달구지 싣고 올라왔다.

《아니, 여보 춘보동무, 그새 밤먹일 주긴 주었소?》

리춘보를 보자 신종삼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대뜸 이렇게 물었다. 그 소리에 달구지명예를 벗기려던 리춘보가 무슨 말이난듯 그를 바라보았다.

《주다뿐인가요. 왜 믿어지질 않아서 그렇니까?》

《허허, 믿어지지 않기가 뭘 믿어지지 않구말구 하겠소.》

피로가 력력한 리춘보의 얼굴을 대하자 자기의 물음이 너무 성급했다는것을 깨달은 신종삼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거, 그럼 요새 새벽닭우는 소릴 듣구야 자리에 눕곤 하겠소?》

《허허 듣지요.》

리춘보는 마침 창고앞마당에 쓸어던진 몽당을 열심히 헤집고있는 꼬리빠진 수탉을 가리켰다.

《내가 마지막 조리작업을 끝내구나서 휴계실루 들어가려구 할 때면 저놈의 <애꾸>가 제일 먼저 울곤하지요.》

<에라 저너석이 인제야 들어가는군. 밤새 잠한잠 못자게 덜그렁거리더니만.> 하구말입니다. 참 그놈 신경질이 보통이 아니지요.》

과연 그놈은 어떻게나 갈개였는지 목언저리의 털마저 거의 다 빠져버리고 절반쯤 찢어져 너풀거리는 번두끝엔 검붉은 피덕지가 두텁게 앉았다. 하기가 오죽 사나우면 깃털도 나오기전에 벌써 한쪽눈을 잃고 《애꾸》라는 대명사로 통하고있는놈이라. 그놈을 신종삼이도 잘 알고있는터여서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허허, 그럴리가 있겠소. 저 사람 덕분에 미련둥이들이 옮겨올엔 살판을 만났구나 하구 울었겠지요.》

신종삼이 껄껄 웃으며 이러자

《글쎄 그러는지 원.》 하며 리춘보도 빙그레 따라 웃었다.

《헌데말이요. 춘보동무랑 요새 매일밤 수고한다는걸 내 몰라서가 아니라 좀 이상한게 있어서 그러우.》

리춘보가 좀 의아한 얼굴을 했을 때 신종삼이

다시 얘기를 끄집어냈다.

《밤먹일 주는데 어째서 예비사료가 없어지지 않았는가말이요. 혹시…》

그제야 리춘보는 《아하…》 하고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선 달구지명예를 들고 소부터 빼내는것이였다.

신종삼은 슬그머니 긴장해져서 그의 거동을 지켜보았다. 하는 잡도리가 벌써 간단치 않은 사연이 있다는걸 짐작케 했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외양간에 소를 매고 나온 리춘보가 달구지채에 걸터앉으며 꺼내는 말은 뜻밖이였다.

자기가 이번에 좀 알아보았는데 예비사료를 밀어넣지 않고도 겨울새끼날이를 보장할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있더라는것이다.

《훌륭한 방법이라니?》

《그게 바로 화학적처리라고 하는 방법인데 건초나 강냉이짚과 같은 사료를 효과적으루 리용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춘보는 사뭇 흥분한 어조로 화학처리방법의 우월성을 설명하는것이였다.

신종삼은 잠깐 뻥해진 시선으로 리춘보를 바라보았다.

화학처리방법은 그도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였다. 한때는 그 방법이 널리 소개되어 여러 농장들이 범석했지만 신종삼은 손도 대려고 하지 않았다. 축산지도원도 여러차례 해보자는 말을 했으나 그는 애당초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손을 써본 농장들이 꼴을 내져었다. 선진방법이라고 해보았더니 돼지가 먹지부터 않아서 몇끼씩 굶기다싶이 하고는 내던졌다는것이다.

(원 축산을 한다는 사람들의 일잡도리가 그렇게 두 손가벼워져야… 쫓쫓쫓.)

그때 신종삼은 다른 농장 축산반일군들을 이렇게 나무랬었다. 제아무리 선진방법일지라도 생명 가진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처럼 경솔히 덤빌수가 있단말인가.

어느 국영목장에서 화학처리가 도입되어 은을 내고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그래도 신종삼은 귀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자기로서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사료전을 잘 가꾸고 필요하다면 이번 처럼 예비사료를 든든히 장만해놓는것이 틀림없는 방법이라고 확신했던것이다.

그런데 그 화학처리방법을 지금 리춘보가 운운해나선것이다.

《음, 그래서 축산지도원이 뻥질나게 여길 드나들었군 그래. 그래 춘보동문 그걸 믿구 예비사료를 내지 않았단말이요?》

《그렇지요. 그래서 밤먹이는 예비사료루 주질 않구 하루먹이량을 나누어서 주었지요. 그런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야 왜 귀중한 알곡을…》

《여보 춘보동무!》

신종삼은 그만 가슴이 답답해나서 그의 말을 중도에서 가로챘다.

《화학처리란게 대체 무어요? 그게 간단히 말해서 거친사료를 띄워먹이자는건데 그래 고작 띄우거나 한대서 되거나 할것 같소?》

《허, 그건 반장동무가 잘 모르는 소립니다. 알구보니 화학처리를 한다는게 리치가 그럴듯합니다.》

신종삼의 말끝에 리춘보가 진지한 태도로 나앉으며 화학처리방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학처리방법이란 건초나 강냉이짚을 뺀 가루에다 일정할 온습도조건을 보장해서 세균을 번식시키는것인데 그렇게 하면 거친 사료의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고 식성과 소화률을 높인다는것이였다.

《참 희한한것은 그놈의 세균인데 그게 알짜 고기덩이랍니다. 결국 그렇게 해주면 돼지두 건초나 강냉이짚을 먹는게 아니라 고기덩이 먹는셈이지요.》

신종삼은 억이 막혔다. 한다는 소리는 점점 더 기찬소리뿐인것이다.

《허허, 그것 참 훌륭하구려. 그런데 다들 시작을 했다가 먹질 않아서 그만두었지요. 글썄 저것들이 먹어주질 않는데야 그게 고기덩이면 무얼하구 비계덩이면 무얼하겠소. 그래 축산지도원이 충동질합니까?》

신종삼이 이렇게 빈정거리자 리춘보는 누가 충동질을 하고말고 해서 하겠는가고 하면서 꺾꺾꺾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주장을 만만히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화학처리가 선진방법인데 돼지가 노상 먹지 않을수가 있느냐, 처음엔 낯설어서 잘 안먹을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차츰 버릇을 붙이면 될게 아니냐고 그는 자기의 주장을 한결음도 양보하지 않고 하지 않았던것이였다.

신종삼은 비로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예감하였다.

《중수다. 정 그렇다면 어디 좀 알아보시다.》

《알아보다니요?》

《우월성 한가지만 믿구 덤빌수야 없지 않소. 여러가지루 좀 따져보구 시작을 해도 해야 할테니까 우선 그때까지는 사료를 계획대로 내도록 합시다.》

신종삼은 이려고나서 애매한 그의 말에 리춘보가 얼떠름해졌거나 말거나 축사앞마당으로 나와 버리고말았다.

이날 저녁 신종삼은 마음이 무거워져서 집으로 내려왔다. 퇴근길에 축산지도원을 만났는데 그도 화학처리방법을 도입하면 이번 겨울먹이만은 훌륭히 보장할수 있다고 장담해나섰던것이다. 저녁상을 받을 때는 마누라까지 또 속이 뜨끔한 소리를 했다. 오늘 오후 설참에 관리위원장이 건너

왔다가 하는 말이 밤나무골 축산반에선 강냉이 짚만 먹이고도 새끼를 내올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찾아냈더라는것이다.

《뭘, 강냉이 짚만 먹이구 새끼를 내워?》

신종삼은 그만 아연해져서 부르짖었다. 예감했던바대로 일은 상스럽지 못하게 번져간다는 생각이 뒤끝을 쳤다. 그가 대충 알기에도 화학처리를 한다고 해서 낱알이 전혀 안들어가는것도 아닌데 소문은 벌써 강냉이 짚만 먹이고도 새끼를 내올수 있는 방법이라는것이다. 그 소리가 관리위원장의 입에서 나온걸 보면 벌써 소문은 관리위원회안팎에 파다해진 모양인데 그러지 않아도 예비사료 내는것을 꺼림해하던 계획지도원이 그것을 배정폰드속에 걸어넣으려 할건 뻔한 일이었다.

신종삼은 당장 입맛이 젖혀져서 몇술 뜨다말고 상을 물렸다. 벽을 향해 돌아앉아 소태같이 쓴 입에 애꿎은 담배만 갈아대는 그의 눈앞엔 지난 가을 새해 축산계획을 토의하던 그날밤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날밤 회의에서 신종삼은 앞으로 축산반에서는 겨울철새끼날이를 정상화하여 2년5산의 고리를 풀고 종축마리당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이라고 결의토론을 하였었다. 그러면서 그는 올겨울엔 우선 한개 분조만 시험적으로 2년5산을 조직해볼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아니, 그럼 축산작업반에서두 한개 분조만이란 말입니까?》

신종삼의 토론과정에 관리위원장이 물었다.

《그렇지요. 우선 한개 분조를 통해서 경험을 쌓구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구 내밀자는거지요.》

사실 작금년간 종축마리수의 급격한 장성과 관련하여 이미부터 논의가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확보된 예비사료 세톤만 가지고 전 작업반이 2년5산에 접어들기엔 도무지 엄두가 안났던것이다.

회의집행부측에서는 축산반장이 일을 시작도 하기전에 겁을 먹지 않았는가, 증산결의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자고 거듭 호소했으나 신종삼은 딱 잘라냈다.

《아따 할수만 있으면 나두 첫해에 두개 분조다했으면 좋겠수다. 하지만 이게 어떤 마당이요?

여기서 다지는 결의가 어떤 결의요? 당앞에 땡세를 다지는 엄숙한 이 자리에서 하지두 못할걸 하겠다구 허풍을 쳐야 그게 옳구 통이 큰거겠소? 난 거 그렇지 못하겠수다.》

신종삼의 말은 그럴듯했다. 그제야 모두들 신종삼의 말을 옳게 들었던지 그의 주장대로 축산반 1분조에만 2년5산에 의한 증산과제를 주기로 결정하였었다...

신종삼은 손맥이 탁 풀리는것 같았다. 결국 이렇게 해서 받은 한개 분조의 증산과제마저 인제는 그 담보를 잃어버리게 된것이다. 만일 리춘보

나 축산지도원의 주장을 믿고 관리위원회가 예비사료 세톤을 배정폰드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땐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당앞에 다진 땡세를 실천하는가? 과연 화학처리방법이 이 예비사료를 대신해줄수 있단말인가?

신종삼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다.

《여보, 거 내 양복과 외투를 좀 꺼내주요.》

초저녁 깊은 잠에 푹아떨어졌던 마누라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일어났다.

《별안간 양복은 해 무얼하우?》

《국영목장엘 좀 다녀와야겠소.》

《아니, 정신나가지 않았소? 밤이 어느 때게 국영목장엔 왜 간다구 그러우?》

《거 잔말말구 어서 꺼내오지 못할가?》

신종삼은 썩 소리를 질렀다.

《어이구 원, 사람 간 떨어지겠소...》

벼락치듯 울리는 령감의 고함소리에 깜짝 놀란 마누라가 허둥지둥 옷방으로 올라갔다.

(어디 가서 좀 알아보자. 화학처리가 진짜 우월한 방법이라면 XX국영목장에선 하고있을게다. 알아보고 못할거면 못한다고 주장을 세워서 예비사료를 배정폰드속에 밀어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잠시후 집을 나선 신종삼이 불빛 환한 역을 향해 부리나케 걸어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같은 시각 축산반 수리창고안에서는 짹트트트트 대패질소리가 멈춤없이 흘러나오고있었다. 갑자기 처리탕크를 건설하고 어찌고 할 사이가 없으니 나무합동을 리용하기로 한 리춘보가 아침에 신고 올라온 판자로 처리합동을 짜기 시작한것이다. 그는 벽에 가지런히 세워놓은 판자쪽들을 집어다가 얼핏 걸을 보아 틀목우에 놓고는 그 걸을 따라 거침없이 대패를 놓았다. 그때마다 대패를 움켜쥔 손가락사이로는 새노란 대패밥이 타래져오르고 거울처럼 매끈해진 판자우엔 자연미 그대로의 파도무늬가 너울너울 되살아난다. 대패질을 끝낸 그는 하나하나 규격에 맞추어 말랐다. 각자를 대고는 모자채양결에 찢렸던 연필을 뽑아 뿔뿔 금을 긋기도 하고 끝질과 톱질을 해서 판자끝을 움푹움푹 파내기로 했다. 그리고는 찹쌀게 판자네귀를 맞물리고 그 맞물린데를 팡팡 망치머리로 조기군하는데 못 한대 안주는데도 합통은 물 한방울 새지 않을만큼 탐탁하게 무어진다.

그가 합통 한개를 거의 다 찼을 때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사양공처녀들이 우르르 밀려들어왔다.

《여기서 뭘 하세요?》

그중의 한 처녀가 총알같이 여무진 목소리로 물었다. 사슴처럼 몸매가 날씬하고 웃기 잘하는 1분조 사양공 분이다.

《처리함통을 몇개 짜보자구...》

리춘보가 어름어름하자 처녀들이 법석 떠들었다.

《춘보동문 정말 옳지 못해여. 이건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글썄 화학처리가 뭐 춘보동무 혼자 일이에요?》

우린 대패질두 할줄 알구 톱질두 할줄 알아요. 왜 우리에게 말하지 못해요.

래일 총화모임에선 춘보동무의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을테니까 단단히 준비 하세요.》

분이가 이렇게 오금을 박고나서 톱을 들고나서 자 처녀들도 제각기 함통짜는 일에 달라붙었다.

사실 사양공들중에서 몸매는 가냘프지만 제일 생산에 대한 의욕이 높고 일욕심이 많은건 분이다. 그래서 그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비사료 내는것을 반대하는 리춘보에 대한 불만이 가슴에 가득했다.

우리가 애써 장만해놓은 사료인데 그걸 먹여서 새끼생산을 높이면 무어가 나쁜가. 어떻게 하든지 이번 겨울새끼나이를 한배의 실수도 없이 보장해서 맡겨진 증산과제를 기어코 완수하자고 마음먹은 그로서는 리춘보가 무엇때문에 예비사료 내는것을 막지 못해 그러는지 이해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바로 엿그제 아침이었다. 먹이공급을 끝낸 그는 조리실로 들어와 벽에 붙은 삼극스위치를 꼭 눌렀다. 봉- 하는 전동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한쪽 구석에 죽은듯이 사리어있던 양수기고무호스가 꿈틀 살아 일어서며 짹 세찬 물줄기를 내쏘았다. 그런데 오드득 소리가 나게 두어번 손을 씻고난 그가 빨강계 달아오른 입술에 호스끝을 조심히 가져다대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전동기소리가 푹 멎으며 기다랗게 내뻗었던 시허연 물줄기가 흐물떡 고무호스속으로 사라져버리는것이 아닌가. 핵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스위치에서 손을 뺀 리춘보가 천천히 전동기앞으로 걸어가고있었다. 분이는 그 순간 웬일인지 가슴이 섬찝했다. 아니나다를까 전동기철갑우의 은색상표를 문질러보고난 리춘보의 얼굴표정은 전에없이 무거웠다.

《음... 분이동무는 아마 미처 생각을 못했을수도 있겠지. 동무가 지금 이 전동기를 돌릴 때 공장에선 연마기 두대가 멎어서야 한다는것을말이요.

분이동무, 우리가 물 한모금을 마시는데야 어떻게 전동기를 돌리겠소.》

분이는 그만 불에 덴듯 흠칫 놀라며 봉긋한 가슴우에 두손을 얹었다.

《제가, 제가 그만...》

하고 더듬거리는 그의 눈에서는 어느샌가 벌써 자책의 이슬이 피어오르고있었다.

비로소 그때부터 분이는 리춘보를 달리 보게

되었고 그가 것처럼 예비사료내는것을 꺼리는 리유도 축산지도원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서야 무엇이라는걸 깨달았다. 그래서 리춘보가 사양공들에게 화학처리방법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적에도 제일먼저 찬성해나섰던 그는 오늘밤 밤먹이공급을 끝내고 들어오다가 나무함통짜기에 열중한 리춘보를발견하고는 처녀들을 휘둥해낸것이다.

《함통을 이렇게 잘 짜야만 하나요?》

잠시후 또 하나의 나무함통이 마당에 내굴려도 움쩍하지 않을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렇지 않아도 훌륭한것을 지나칠만큼 꼼꼼히 덧손질을 하는 리춘보가 이상해서 분이가 물어보았다. 그저 간단히 철못이나 주어 무어서 처리탕크를 건설할 때까지 쓰면 될 나무함통이 아닌가.

《잘 짜야지. 어린 돼지의 몸에 상처가 날수도 있으니까.》

리춘보의 대답에 분이는 놀랐다.

《아니, 그럼 이건 새끼받이 께짜이나요?》

《글썄 당장은 화학처리를 하자고 짜는거지만 처리탕크를 만들면 그땐 무엇에 쓰겠나? 난 새끼받이 께짜으로 쓸 작정을 했는데 지내 클가?》

분이는 그만 혀를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자기의 경솔한 물음이 후회되었던것이다. 얼마나 속깊은 사람일까. 모두가 춘보동무처럼 일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하게 될것인가.

분이의 가슴속엔 춘보에 대한 후더운 감정이 샘물처럼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그들이 함통 여덟개를 다 짜고났을 때는 동녘이 푸름푸름해지고있었다. 검푸른 하늘에서 차갑게 반짝이던 별들이 차츰 희미해지더니 하나둘 자취를 감추어버리기 시작했다.

《어서 물 줄 차비를 하자구.》

리춘보가 주섬주섬 공구들을 거두어넣으며 말하자 처녀들은 들어올 때처럼 또 우르르 밀려나갔다. 뒤이어 조리실문을 열어제끼는 삐걱소리, 사양공들이 물초롱을 덜그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구름같은 단김이 꾸역꾸역 밀려나와 맑은 대기속에 녹아들며 구수무레한 냄새를 풍기자 골안은 갑자기 부산스러워졌다.

그때야야 비로소 외양간 저쪽끝에서 때늦은 《애구》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꼬끼요, 꼬끼요-오!...》

그놈은 그 무엇인가를 화풀이하듯 연거퍼 울어대는것이였으나 그것은 이미 터지기 시작한 수백마리 어미돼지들의 울음소리에 삼키워 푹푹히 가려들올수가 없었다.

이날 낮에야 신종삼이 국영목장으로 떠나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리춘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화학처리방법의 우월성을 직접 보고오면 신종삼이 도 팔을 부르건고 나서리라 믿었던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내린듯 해종일 퍼붓던 눈이 저녁 무렵에야 드মে해졌다. 그러자 기다렸던듯 사나운 광풍이 터져나왔다.

맹수처럼 울부짖는 그 모진 광풍속을 뚫고 쿵덕쿵덕 지축을 울리며 차가 달라고있었다.

승객들은 창가에 내몰린 허연 성예를 입김으로 녹여가며 얼핏얼핏 스쳐지나는 공장과 농촌마을의 설경을 바라보기에 여념이 없다.

밤색양복차림의 장년 한사람만이 자꾸 역이름을 따져보며 안절부절을 못하고있었다. ××국영목장을 다녀오는 신종삼이다. 갑자기 눈이 강산처럼 내려와 쌓이고 기온이 령하 30도 가까이로 떨어져버리자 며칠 더 묵으면서 목장관리운영경험을 배우자던 계획마저 바꾸고 황황히 차에 오른 그였다.

밤먹이를 제때에 끊어주기나 했는지? 더우기 걱정스러운것은 리춘보가 화학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 추운 날씨에 아직도 예비사로 내는것을 뒤로 미루고있지나 않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지금 국영목장에 가서 큰 충격을 받고 오는길이다. 도대체 화학처리방법이 그렇게 우월하다는것을 처음 똑똑히 깨달았다.

번들거리는 유리기구들과 약병들로 꽉 들어찬 종균배양실이며 그옆에 갖가지 규격의 세멘탱크가 즐비하게 들어앉은 처리장은 마치 어느 대학 실험실 같기도 하고 고급식당 주방을 방불케 하기도 했다. 눈같이 흰 위생복차림을 한 처녀가 탱크안의 온도계를 꺼내서 일일이 살펴보더니 벽에 붙은 단추를 꼭 눌렀다.

어디선가 가볍고 부드러운 전기음향이 일며 탱크속에 설치된 기계팔들이 절그럭절그럭 먹이를 뒤번쳐준다.

뿌옇게 뜬김이 서러오르고 그 뜬김속에선 시크 무례하면서도 향긋한 먹이냄새가 풍겨온다. 이것이 화학처리란다.

축사를 돌아보면서는 또 얼마나 놀랐던가. 우리마다 황소같은 돼지들이 번지르고 서서 처리장에게 내온 먹이를 톱툰 게걸스럽게 먹어대고있었다. 종자도 같은 종자고 알곡먹이 주는 량을 따져보니 신종삼이네 축산반보다 꺾 더 적은데 영양상태는 비할바없이 좋다.

신종삼은 저도모르게 어깨가 낮아졌다. 여적당의 축산정책관철을 위해서 뛰어왔고 그 과정에 해놓은 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던 평소의 긍지와 자부심마저 졸지에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게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아왔구나싶은 뉘우침만이 아프게 가슴을 허비였다.

그러나 역시 인제 생각해보면 화학처리에 대한 자신의 립장과 태도가 옳았다고 느껴졌다. 축산지도원의 말을 듣고 덤비는 리춘보의 말만 따르며 알아보지도 않고 화학처리를 하자고 했다면 어쩔번 했던가. 화학처리를 어디다 어떻게 하며

그 설비를 갖추는것이 문제였다. 한때 화학처리를 한다고 서둘러 접어들었던 농장들이 실패를 면할수 없었던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신종삼은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을 다졌다. 이번 새끼낳이나 끝내고는 우리도 두어사람 보내서 처리설비도 본을 떠오고 방법도 배워오게 하자. 그래서 돼지의 배가 빈 틈에 제격 화학처리를 습관시켜버리자.

그는 지금 이런 생각으로 흥분해 돌아오는것이 다.

신종삼이 차에서 내려 실봉산기슭의 밤나무골 어구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였다. 밤먹이공급도 끝난지 오랜 모양 축사가 들어앉은 골안은 쥐죽은듯 괴괴했다. 그런데 축사앞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온 신종삼이 작업반실쪽으로 걸어가려다가 멈칫 섰다. 지난봄 새로 지은 작업반실 옆으로 사양공들의 휴게실을 옮기는바람에 한해 여름 비여있던 조리실 왼쪽 방에서 난데없는 불빛이 환히 흘러나오고있었기때문이다. 비여두었던 방에 웬 불빛이라싶어 얼른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던 신종삼은 흠칫 놀랐다. 분갑속처럼 새빨강게 꾸러진 방에 큼직큼직한 나무함통 일여덟개가 주련이 놓였는데 후렁후렁한 위생복에 위생모까지 꼭 눌러쓴 춘보가 거기에 서서 축산지도원과 함께 온도계를 이속히 들여다보고있는것이 아닌가. 온도계를 선반우에 얹고난 춘보는 저편벽에 기대세웠던 자그마한 팍사를 들고 이쪽으로 와서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함통속을 뒤번쳐주었다. 그러는 그의 머리우로 무럭무럭 뜬김이 피어오르고 시크무례하면서도 향긋한 그 낮익은 먹이냄새가 밖에 선 신종삼에게까지 미쳐온다.

리춘보가 벌써 화학처리를 시작했다는것을 깨달은 신종삼은 쩡해진 가슴을 불안은채 한동안 못박힌듯 서있었다. 어쩔지 땀기가 번들거리는 리춘보의 얼굴에서 시선을 땔수 없다. 처리탱크 하나 갖추어놓지 못한 조건에서 나무함통을 짜가지고 화학처리를 하겠다고 접어든 리춘보의 생각이 놀라왔다. 어딘가 모르게 자기와는 판판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국영목장화학처리실이 눈앞을 스쳐지났던것이다. 그래 리춘보가 저 나무함통속에서 화학처리를 제대로 해낼수 있으리란말인가? 저렇게 간단히 될 말이면 누군들 화학처리를 못해낼텐가. 보아하니 리춘보는 지금 화학처리에 잔뜩 미쳐가지고 예비사료내는것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다. 그런데 인제 자기마저 주장을 강경히 세우지 못하고 어름어름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필경 이번 새끼낳이를 아주 망치고만다는 생각이 우쩍 머리를 든다. 그러지 않아도 예비사료내는것은 계획보다 일주일 이상이나 늦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퇴적우의 문이 열리더니 축산지도원이 튀어나듯 밖으로 나왔다. 실내온도를 떨어지지 않으려는듯 안에서 리춘보가 문을 고쳐 닫는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축산지도원은 저만치에서 걸어가고있었다.

신종삼은 이윽도록 서있다가 퇴지우에 올라서며 문고리를 쥐여당겼다. 인기척에 돌아선 리춘보가 신종삼을 알아보자 반색을 하며 다가왔다.

《반장동무가 아니우? 방금 도착하는길인가요?》  
《그렇수다... 현대 이진 무어요. 춘보동문 여기서 무얼 하우?》

리춘보가 내미는 손을 얼른 쥐었다 놓으며 신종삼이 짐짓 물었다.

《허허, 제가 화학처리를 시작해보았습니다.》

《화학처리?》

리춘보의 어쭙은듯한 태도를 흘끔 치며보고난 신종삼은 나무함통앞으로 걸어갔다. 여덟개의 큼직큼직한 함통마다엔 과연 누렇게 뜬 먹이가 그득그득 담겼다. 그는 손을 뻗쳐 한웅큼 먹이를 쥐여내보았다. 제법 촉감이 부드럽고 색깔도 먹음직스러운것이 국영목장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음... 그래 이걸 돼지가 먹습디까?》

잠시후에 신종삼이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리춘보가 난색을 지었다. 오늘 아침부터 풀인먹이에 조금씩 섞어서 습관을 시켜보는데 아무래도 돼지가 잘 먹어주질 않는다는것이였다.

《어떻게 좀 빨리 습관을 시켜야 하겠는데...》

(뒹, 습관을 시켜?)

신종삼은 우썹 비위가 상해서 대꾸를 안했다. 이 추운 날씨에 화학처리를 습관시킨다고 끼마다 먹지도 않는걸 퍼내다주곤했음에니 말 못하는 짐승들의 속이 그사이 오죽이나 얼었으랴싶은 생각에 가슴이 다 얼찌근해온다. 화학처리도 생산을 높이자고 하는것이 아닐텐가. 그런데 이진 돼지야 어떻게 되든지 먹이를 습관시킨다니 이게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울컥해지는 마음갈아서는 당장 창고열쇠를 내놓고 조리실에서 물려나라고 소리를 지르고싶었으나 그는 격해지려는 심정을 애써 누착히고 담배갑을 꺼냈다.

리춘보에게도 한대 권하고 자기도 한대 붙여물고난 그는 입을 열었다.

《여보 춘보동무, 내 이번에 국영목장에 가서 좀 알아봤는데 화학처리라는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종삼은 국영목장 화학처리실과 축사를 돌아보던 얘기를 한참 하고나서 우월한 방법이긴 하지만 화학처리방법을 당장 도입하자고 할수 없는 작업반형편을 일일이 설명하였다.

결국 신종삼의 말은 이런 설비조건을 가지고서는 화학처리를 제대로 해낼수도 없거니와 또 제

대로 해낸다고 해도 막달을 찬 돼지에게 습관을 시키고 어찌고 할 사이가 없으니 이번 새끼날이는 예비사료를 내서 보장해놓고 봐야 한다는것이였다.

신종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뜻밖의 이야기에 리춘보는 잠시 멍해있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안타깝고 답답했다.

말을 들어보면 국영목장이 처리설비를 기계화, 자동화한건 틀림없다. 하지만 처리공정에 대한 기술지표야 하나가 아닐텐가. 실지 해보는 과정에 온습도조절이 좀 까다로운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역시 처리설비나 기술능력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말아하는 사람의 책임성과 관련된 문제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된 리춘보로서는 으리으리한 그 무엇에 얼이 빠져온듯한 신종삼의 태도가 도무지 우습기 짝이 없는것이였다. 또 습관시일에 관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과연 하루이틀사이에 제격 습관시켜내거나 시일은 좀 오래 끌더라도 임신후반기의 돼지에게 전혀 타격을 안주면서 점차적으로 습관시켜낼 방도가 없단말인가?

아니, 도대체 처리해낸 사료를 돼지에게 먹여 내질 못해서 예비사료를 내야 한다는건 무슨 소린가.

10여년간이란 짧지 않은 축산경험을 가지고 집집승을 길러오는 이 체구장대한 신종삼이가 왜 이처럼 간단한 기술문제앞에서조차 무기력해지는 것인지 리춘보는 도시 리해할 길이 없는것이다.

《나두 발고랑에 태를 묻은놈인데 난알을 아끼자고 하는 춘보동무의 심정을 왜 모르겠소.》

리춘보의 말없는 태도를 어떻게 짐작했는지 신종삼은 또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어떤 생산이요? 우리가 당앞에 맹세다진 2년5산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결정적인 시각을 눈앞에 둔 이때에 우리가 사료서너튼을 가지구 손을 떨어야 하겠소? 솔직히 말해서 난 세튼이 아니라 서튼톤이라두 밀어넣구싶은 심정이요!》

신종삼이 이러자 생각에 잠겨 풀썩풀썩 담배를 피우던 리춘보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마치 처음보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신종삼의 검붉게 상기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서튼톤이라두 밀어넣구싶다구요?》

그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이런 소리가 흘러나왔다.

《반장동무는 그런 방법으로 해낸 2년5산이 나라에 몇푼의 이익을 줄수 있겠는지 따져보았습니까?》

《...?》

《반장동무, 반장동무는 왜 생산을 위해서는 안타깝게 뛰면서두 자신이 생산하는 한마리 한마리의 새끼돼지에 얼마나 큰 밑천이 들어가는가에





겉스럽게 먹이를 먹어댄다.

이것이 정말 처리한 사료란말인가? 뚫어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잘먹을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그러나 리춘보가 처리해낸 먹이를 다시 뚫어낸 것은 신종삼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본바이지만 사실이었다.

돼지가 주정때문에 낯설어했다? 하긴 뚫이는 경우에 주정이 없어질수 있다는건 당연한 리치이다.

우리끝까지 나갔던 사양공들이 빈 먹이통을 덜그렁거리며 들어오기 시작해서야 신종삼은 조리실에서 땀물이 뚫고있으리란 생각에 펄쩍 정신이 들어 부리나케 사료창고로 되돌아 들어왔다.

그러나 사료창고안의 예비사료앞에 선 그는 또 다시 움직일수 없었다. 어쩐지 인제는 예비사료를 떼가지고 조리실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처리해낸 사료를 돼지가 저렇듯 즐겨먹을진대 이 예비사료야말로 부당한 지출이 아닌가.

그는 맥없이 털썩 사료가마니에 주저앉았다.

리춘보가 저렇게 간단히 해내는 화학처리를 나는 왜 여적 못할것이라고만 생각해왔던가. 리춘보로 말하면 전문기술을 배운 사람도 아니요 자기처럼 10년간의 축산경험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 않는가.

신종삼은 끝없이 깊어만가는 생각에 잠겨 점도룩 앉아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량볼이 추위에 빨강게 언 사양공 분이가 물초롱 두개를 무겁게 든채 창고안으로 뛰어들어왔을 때야 신종삼은 비로소 생각에서 깨어났다.

《아이...?》

신종삼을 발견한 분이가 놀란 눈을 치켜올렸다. 이 추운밤에 사료창고안에 우두머니 앉아있는 반장령감이 이상스러웠던 모양이다.

《음,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좀 앉았됐구나. 한데 그건 무어냐?》

신종삼이 얼른 표정을 고치며 물었다.

《찌끼예요. 저울에 달자구...》

《응? 아니 그건 저울에 달아서 무얼 하자구?》

신종삼은 은근히 놀라며 거무티리한 먹이찌끼가 담긴 초롱과 처녀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그도 물론 리춘보가 조리공일을 시작하던 첫날부터 끼마다 구유속의 남긴 먹이를 거두어들인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신종삼이로서는 도무지 구차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였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반대할 리유도 없는것이어서 보고도 못본체해왔었다. 그런데 찌끼를 거두어왔으면 조리가마에 쏟아넣으면 될텐데 저울에 달기까지 한다는건 무슨 소린가?

《조리공아바이가 그러는데 이 찌끼속에두 알곡사료가 평균 4~5프로나 포함되어 있대요. 춘보동문 이걸 모아다 조리해넣구 대신 얼마나 많은 알곡사료를 절약해냈다구요.》

《?!》

신종삼은 그만 땀해져서 저울에 정신이 팔린 처녀의 얼굴을 뚫어내 바라보았다. 이윽고 처녀는 머루알같은 눈을 깜박거리며 무엇인가를 잠시 따져보는 눈치였다. 아마 거두어온 찌끼량의 4~5프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떼낼 잡도리인 모양이다. 아니나다를까 반키로도 채 못되는것을 저울에 달아낸 처녀는 신종삼을 치며보며 한번 생긋 웃었다. 그리고는 저편 창고 구석쪽으로 쿵쿵 걸어가더니 빨간빛 천조박이 달린 가마니속에다 조르륵 쏟아넣었다.

처녀가 창고밖으로 사라지자 신종삼은 저도모를 힘에 이끌려 그쪽으로 다가가보았다. 거기에는 가지각색 천조박과 노끈들로 표식비 된 새 가마니 대여섯일이 차례로 서있다. 아마 사양공들은 제각기 자기의 절약가마니들을 따로 가지고있는 모양이다. 그 맨 구석켠에서 신종삼은 뽕뽕 뭉이운채 피복을 깔고 누워있는 알곡사료 두가마니를 어렵지 않게 가려볼수 있었다.

자신은 10년동안이나 아무 꺼리낌도 없이 처내던진 먹이찌끼였다. 이것이 과연 그 찌끼속에서 한줌두줌 건져낸 낱알이란말인가?

리춘보가 처음 와서 구유밖에 처내던 찌끼무지를 허비며 가슴아파할 때 내 무어라고 생각했던가, 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내 무어라고 모독을 했던가.

신종삼은 더는 사료가마니를 눈앞에 두고 볼수가 없어서 돌아서버리고말았다. 허둥지둥 창고밖을 나서보니 이쪽 1분초의 돼지우리앞에서 허영게 위생복을 입은 리춘보가 허리를 굽히고 서서 열심히 구유를 치고있다. 그 모양을 잠시 바라보노라니 웬일인지 눈곱이 뜨끈해온다. 모든것이 명백해지는것 같다. 리춘보가 것처럼 강경하게 화학처리를 주장해나섰던것도, 그가 자기에게 한 평생 삶이 무의미해질수도 있다고 부르짖던 그 심정도 인제야 톱톡히 리해되는것 같다.

어둠속을 더듬어서 구유치개를 찾아든 신종삼은 성큼성큼 측사앞으로 걸어나갔다.

# 내 마음 양떼 따라

박원식

아침 햇빛도 쏟아져 구르는

진록색의 무연한 풀밭으로-

정든 양떼 물고

풀피리 불며불며 오르노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담가담 다투어 풀잡는 소리-

순진한 저 털보송이들에게사

이슬받은 풀밭이 그저 좋으련만...

내게는 풀피리 좋구나!

어느새 부른 배가 풀밭에 닿으면

깊은 골 물소리에 저도 몰래 끌리어

도망가던 저 귀염둥이 얼룩이도

한가닥 피리소리엔 돌아서고

소담스런 털잔등 자랑하는듯

때없이 내달리는 저 엉뚱이도

한가닥 피리소리 울려만가면

날아도는 산새까지 머리위에 이고

제무리로 달려오는 이 피리소리-

아무렵, 수려한 강산의 바람소리 담고

천년 바위츠렁가 맑은 물소리 담고

청신한 풀밭에 이슬어린 들꽃숲에

맺히고 구울러 다듬어진 소리-

싱그런 풀향기도 돋우는 옥피리소리 아닌가

양떼들만 따른다더냐

산새들만 따라 부른다더냐

한없이 황홀한 무대에서도

어깨춤에 슬쩍 담아넘기면

우리같은 만장의 박수소리에 떠실려

저 먼 산너머 아득히서

제고향 찾아서 돌아오는 피리소리-

아, 뽕뽕이 쏟아지는 비단필에

행복을 수놓는 직기바다우에도

여울쳐 흐르고

소리없이 흔들리는 털요람가에

그린듯 잠든 아기들 웃음꽃도

방실방실 꽃피우는 노래가 아닌가

아, 얼마나 좋은가!

위대한 수령님 품속에서 태어난

내 청춘도 좋지만

기쁨을 싣고 심산속에 흐르는

이 노래는 또 얼마나 좋은가.

내 불을 뿜듯 싱싱한 노을빛 타는

조국의 산상봉 구름가의 초원에 사는

이슬비에 옷자락 마를새 없어도

충성의 옥피리소리야 젖을리 있으랴!

내 가는 이 길은 수령님 바라시는

락원의 꽃구름 피워가는 길!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한길이지니

그래서 이 여름도

구름처럼 붙어만나는 양떼를 앞세우고

늘어만가는 우리 살림 우리 행복

어버이수령님께 아뢰우러 가는

희망도 랑만도 함께 자라는 풀밭은 좋아

풀피리소리 더더욱 구성저만 간다

뒹굴어도 누워도 부여안아봐도

풀밭은 좋아 아, 불고부는

나의 피리소리엔

떠가는 구름조차 춤추며 가더라!

# 밝은 눈

윤승훈

나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면 공장정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속보판을 바라보곤한다.

오늘도 속보판에는 혁신적인 성과들을 자랑하는 대문짝같은 속보들이 여러장 나붙었는데 그중에서도 《밝은 눈》이라는 제목의 속보가 류달리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속보의 내용인즉 2중천리마 단조작업반 가열공 김광호동무가 공업용수에 섞여나가는 한방울 두방울의 기름을 모으고 모아 지난 20년동안에 일곱톤반의 기름을 회수이용하였다는 소식이었다.

홀릴세라 버릴세라 한방울 두방울 뭉고 모아 일곱톤반! 윤활유 일곱톤반이면 서른여섯도람통이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기름발을 방울방울 건져내어 귀중한 윤활유를 일곱톤반이나 모았다는것도 놀라우거나와 그 일을 소문없이 20년이나 계속 하여왔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가.

언제 봐도 알뜰한 살림꾼인 김동무의 주인다운 일솜씨를 생각하며 푸른 숲이 우거진 구내길을 걷는 나의 머리속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다음과 같은 교시가 구절구절 떠올랐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국가살림으로부터 개인살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한알의 쌀, 한그람의 철, 한방울의 휘발유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오래전부터 가열공 김동무가 기름을 뭉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왔으나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가 깃들어있는줄은 몰랐다. 이번주에 나오게 되는 공장신문인 《전투속보》 제18호에 참된 살림꾼 김동무를 소개하는 기사를 큼직하게 써서 게재하리라 마음먹은 나는 부서에 들려 각 직장 동신원들이 보내온 전투소식들을 대충 정리한 다음 취재수첩을 들고 곧장 단조작업반으로 나갔다.

아직 이른아침이어서 작업장은 조용했는데 깨끗하게 비칠하고 물뿌린 단조장은 말쑥하게 정리되어있었다.

비단폭같이 너울거리며 푸른 불길의 춤추는 가열로안엔 벌써 아름답리 강제로타들이 한가득 장입되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있었다.

누가 이처럼 일찌기 나와서 작업준비를 말끔히 해놓았을가. 이제 역대우같은 단조공사나이들이 산악같은 함두루에 불을 걸고 흙먼 익은 강피를 엇가락 주물듯하면 오늘 전투계획도 200%는 문제없으리라... 일잡도리를 알숙있게 해놓은걸 보니 분명 김동무의 부지런한 일솜씨였다. 나는 어서 빨리 그를 만나보려고 저란장이 솟아있는 단조작업반 휴게실쪽으로 바삐 걸어갔다.

소재절단작업장을 지나 물이 흘러내리는 수채

를 뛰어넘으며 보니 키높이 자란 백양나무밑에 그 누구인가가 쭈그리고앉아서 여러겹의 천으로 만든 기름잡이통으로 물우에 흘러가는 기름발을 건져내고있는것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가열공 김동무였다.

아침 일찌기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빈틈없이 해놓고 단조공들을 기다리는 찜시간에 오늘도 이렇게 물가에 나앉아 기름발을 건져내고있는 김동무!

자꾸만 돋아보이는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느라니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 불현듯 생각키웠다.

그날도 현장을 돌아보던 나는 단조장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마침 휴식시간이었는데 김동무가 젊은 단조공들에게 무엇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고있었다.

하루종일 가도 별로 말을 하지 않아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그가 우스개소리까지 섞여가며 《신동연설》을 하고있는것을 보니 나도 호기심이 부쩍 동하여 그들 틈에 슬그머니 끼여앉았다.

터졌던 웃음소리가 가라앉자 김동무가 또 입을 열었다.

《자, 이번엔 내 수수께끼를 하나 내놓겠네. 이젠 보통 수수께끼가 아니야.》

《뭐 수수께끼까지요?! 내놓으랴요. 내 체격 알아맞힐테니.》

젊은패들은 수수께끼를 내놓는다는바람에 또다시 법석 떠들어대었다.

《맞혀보라구. 산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산과 약중에서도 제일 좋은 약이 무엇인가? 어디 맞혀보라구.》

시원한 탄산수를 꿀꺽꿀꺽 마시던 어떤 단조공은 천하절승 금강산이 제일이라느니, 몸이 다부지게 생긴 작업반의 축구선수 오동무는 고려인삼탕이 제일이라느니 하고 저저마다 으시대며 한마디씩 대답하였다.

그때마다 김동무는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 저으며 빙그레 웃기만 했다.

약이 오른 오동무는 《이것도 아니래 저것도 아니래 무슨놈의 수수께끼가 그리도 까다롭게 생겨먹었는지, 그럴것없이 아바이가 시원히 대답하랴요.》 하고 기가 돌아 말했다.

《허허허... 그럼 내 대답하지. 그것은 증산과 절약이네.》

그러자 단조공들은 환성을 올렸다.

《야, 기가 막히는 수수께끼구나. 증산과 절약!》 그런데 한 신입공만은 웃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그 신입공을 의미있게 바라보던 김동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한덩어리의 석탄, 한방울의 기름, 한토막의 강재라도 더 많이 절약하여 증산 하세나.》

후에 알고보니 한 신입공이 도람통에서 맑은 윤활유를 듬뿍 떠내어 어지러워진 손을 씻는것을 보고 욕을 좀 했는데 토라진 그의 마음을 풀어 주기 위하여 수수께끼를 꺼냈다는것이다.

비록 수수께끼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주인다운 립장에 서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를 짜고들고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며 김동무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쫓아오르는 아침해빛에 반사되어 물우에는 무지개빛이 어려있었다.

그것은 물우에 기름발이 퍼져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김동무는 수채에 기름대를 건너놓아 흘러내리는 기름발을 한곳에 모이게 한 다음 기름잡이통으로 그것을 건져내어 파아란 기름통에 한방울 두방울 떨어넣고있었다.

자그마한 기름통에는 이렇게 모은 기름이 한가득 찼랑이고있었다.

《참 좋은 일을 합니다. 얼핏 보기엔 있는것 같지도 않는 폐수에서 이렇게 기름을 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하고 내가 인사삼아 말을 건네자 김동무는 히죽이 웃더니 《하긴 어떤 사람들은 이 맑은 물속에 무엇이 있길래 매일 여기에 나와 붙어사는가고 합니다만 보십시오. 흘러가는 이 물속에도 생산의 예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는 찾을수록 있지요.》하고 말하면서 담배를 천천히 피워물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시대의 참된 살림군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 땅에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기 시작하던 그날로부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변심을 모르는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한방울, 두방울 기름을 모으고있는 한 로동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떠내려가는 그 기름발이 너무도 아까와 그것을 모아 생산에 보태쓰고있는 금싸래기같은 마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일 여기서 손도 씻고 이 물을 흘러보내지만 이 맑은 물속에서 이처럼 맑은 기름을 얻어낼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것을 볼줄 아는 눈!

남들이 작게 보는것을 크게 볼줄 아는 참된 살림군의 맑은 눈!

이 맑은 눈은 땅속에 파묻힌 파철도 찾아내어 생산에 효과있게 쓰이게 하고 쫘다리소재도 아껴두었다가 볼트며 나사못, 자리쇠 등을 깎아내게 한다.

맑은 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것인가!

누가 보건말건 나라에 더 많은 보탬을 주고싶어 아글타글 애쓰며 누가 알아주건말건 20년을 가열공으로 성실하게 일해오면서 한방울의 기름,

한삽의 석탄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하여 잔지게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있는 한 평범한 로동자, 그는 길가에 떨어진 못 한개를 보아도 구내 길에 나뒹구는 한토막의 철근을 보아도 나라의 재부가 묻히는것만 같아 그냥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

얼핏 보기엔 하찮아보이는 자그마한 녹슨 철관 조각도 그의 손에선 번쩍이는 호각이 되고 쓸모있는 접철이 되어 쏟아져나오며 한개의 산형강토막도 그의 손에 들어가지만 하면 승강기부속품이 되고 열난방관설비가 되어 생산에 긴요하게 쓰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작업반의 참된 살림군》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으며 그의 손을 두고 《보배손》이라 자랑하고있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 묵묵히 충성을 바치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한생을 소문없이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 아직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여 명성을 떨치지는 못했어도 알뜰한 살림군으로 작업반원들이 일러주고 온 공장이 자랑하는 숨은 혁신자-바로 이런 사람들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떠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기둥이며 주춧돌이 아니겠는가.

통성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고 청년들이 혁신의 나라 팔짝 펼치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런 참된 살림군들이 어찌 그 한사람뿐이라.

승강기직장에 가도 알뜰한 살림군들인 선반공들과 조립공들의 모습이 보이고 주물직장에 가도 자재와 원료를 극력 아껴쓰고 절약하는 용해공들과 조형공들이 있다.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립장에서 열번 채고 한번 자르는 제관공들이며 무부하차단기를 도입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있는 용접공들...이 땅 그 어디에 가나 톨전을 쪼개며 아껴쓰는 미더운 살림군들이 공장을 움직이고 농장벌을 꽃피워가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대비약, 대양양의 포성높이 계속 승승장구하고있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세세년년 만풍년의 가을을 불러오고있는것이 아니라!...

그렇다, 참된 살림군! 이 말은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얼마나 자랑스럽게, 얼마나 뜨겁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는가!

조국의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으며 변함없이 빛을 뿌리는 이름없는 작은 별들처럼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직무를 끝없이 사랑하며 조국에 보탬을 주고 기쁨을 주는 알뜰하고 잔진 나라의 살림군들... 나는 은근히 돋우보이는 김동무의 수수한 모습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가슴뿌듯이 느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동무도 따라일어섰다.

기름통을 맞들고 그와 나란히 걷는 나의 머리속에는 공장정문에서 본 속보의 제목이 인상깊게 안겨왔다.

나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 속으로 뜨겁게 불러보았다.

《맑은 눈!...》

# 이 땅에 넘치는 기쁨의 노래

문재건

별방에도 만풍년  
산골에도 만풍년  
산도 들도 하나로 어우러져  
그대로 기쁨이로구나 자랑이로구나

백두라 백두고원 5호대지에서  
열두라 삼천리 채령나무리까지  
가득차 넘치는 만풍의 노래, 기쁨의 노래

땅이 생겨,  
하늘이 생겨 처음보는 대풍이라  
해마다 가을마다 환희의 춤노래 높은 땅  
올해에도 땅이 꺼지게 황금나락 가득 실린  
자랑찬 내 조국 은혜받은 땅이여

세세년년 기쁨속에  
해마다 만풍의 가을을 안아오며  
황금의 메부리 충충이 쌓아  
850만톤 령마루에 오르는 땅

가슴뜨거웁구나  
인민의 행복속에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바람세찬 들판의 눈길  
가파로운 산비탈 이슬길을 헤치시며

들판이라  
두메깊은 산촌이라  
자옥자옥 찍으시며  
만풍년의 가을에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

대륙과 대륙들을 휩쓸며 달려드는  
찬서리와 무더기비, 열풍과 왕가물을  
주체농법의 위력으로 막아주시며  
지새우신 그 밤은 얼마이시며  
걸으신 그 길은 얼마이시라

성에 하얀 이른봄 들판에서  
랭상모 나래를 헤쳐보시며  
사랑의 해발을 펼쳐주시고  
지하수혁명의 새길을 여시여  
땅속에 흐르던 물을 뽑아올려  
땅우의 물길에 합쳐주신 그 손길

그 사랑의 생명수가 지하수가  
단비가 되어 약비가 되어  
산언덕에 다락밭에  
황금의 바다를 이룬것 아닌가

그 사랑  
그 손길에 떠받들려  
무겁게 설레이는 저 벼바다 강냉이바다

저 한포기 강냉이그루에도  
저 하나의 벼이삭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 깃들어  
그 포기포기 이랑을 이루고  
그 포기포기 포전을 가득 채워  
이 땅에 기쁨의 바다  
행복의 바다 펼쳐진것 아닌가

아, 좋은 계절  
기쁨의 가을이여라  
은혜로운 사랑이 열매로 주렁진 가을이여라

불어오는 금풍에  
금나락 설레이니  
하늘이 기쁨에 웃고  
들이 행복에 겨워 춤을 추나니  
온 세상에 자랑높이  
이 땅의 만풍년을 목청껏 노래하자  
위대한 주체농법의 승리를 노래부르자

# 우리 나라 사회주의지상락원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

-가사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에 대하여-

리시균

오늘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이 태어난 력사적인 9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한다.

우리 인민이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세우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스물아홉해가 지나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류레없는 번영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매우 흥겹고 보람차게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면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일제와 착취자들로 하여 빚어진 세기적락후와 가난을 영원히 털어버리고 얼마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이룩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대가정속에서 혁명적 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나라의 면모는 날을 따라 새로와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도시들과 아담한 문화농촌이 일떠서고 그 어디서나 공해를 모르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되였다.

지난날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였던 탓으로 제 땅에서 살수도 없어 압록강 거친 물결위에 망국노의 피눈물을 뿌리던 우리 인민들의 비애와 원한에 찬 노래가 흐르던 그 하늘가에는 행복의 노래, 랑만의 노래가 흘러넘치고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벅찬 현실은 그대로가 시이며 노래이다.

혁명적 열정과 랑만으로 들끓는 우리의 벅찬 현실은 창작가들에게 끝없는 시적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노래에 약동하는 우리 생활 그대로 흥겹고 락천적인 음률을 안겨주고있다.

가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은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행복하고 흥겨운 생활감정을 잘 반영하였기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며 언제나 즐겨부

르는 노래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지상락원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이다.

가사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이 거둔 사상에 술적성과에서 귀중한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으로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전형적인 생활감정을 시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데 있다.

은혜로운 해빛아래 빛나는 금수강산  
내 나라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일세  
수령님 은덕으로 행복이 꽃피나니  
어디 가나 기쁨이요 날마다 명절일세

가사를 읊어가노라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자랑과 기쁨이 설레이고 이 행복, 이 기쁨을 마련하여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이 가슴가득 안겨오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세상에 자랑스러운 사회주의 지상락원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가장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는것은 오로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있기때문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기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금수강산 우리 조국은 인민들이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변모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세우심으로써 식민지동방에 첫 로동자, 농민의 나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는 사회주의 새조선이 찬란히 솟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으며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로부터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자력갱생의 나라》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본질적으로 노래하는것을 형상적파제로 내세운 이 가사에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뉘어넘치는 감사와 흠모, 열화같은 충성심을 주체사상의 핵으로, 형상창조의 열쇠로 잡은것은 응당한 일이다.

가사에서 2, 3절은 1절의 사상감정을 시적으로 발전시키고 비약시키며 일반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가사의 서정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고조되면서 승엄한 미적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행복이 꽃피는 인민의 락원에 대한 미적표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개되는 가사의 맑고도 부드러운 서정은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승엄한 서정세계에 확대되고 고조되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산주의 언덕으로 힘차게 달려갈 혁명적열정으로까지 승화된다.

자동화의 노래속에 힘든 일 사라지고  
사람마다 무병장수 청춘을 노래하네  
수령님 마련하신 행복의 락원에서  
우리모두 화목하게 새 삶을 누리가네

여기에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이 꽃피어나는 우리 나라의 벽천 현실이 생동하게 노래되어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떠받드는 나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내 조국,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의 품모이다.

가사에서는 하나의 표현속에 시대의 본질을 밝혀주는 거대한 사상을 담고있으며 한마디 말속에 수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생활적표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풍부한 함축과 여운을 주고 있다.

가사는 3절에서 온 세상사람들이 동경을 금치 못해하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에서 사는 인민의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조국강토 위에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지상락원을 훌륭히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온 세상이 바라보는 주체의 우리 조국  
사회주의모범으로 빛나는 락원일세  
자애로운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서  
공산주의언덕으로 남먼저 달려가네

여기에는 온 세상사람들이 우러르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혁명적 열정과 랑만이 넘치고 있다.

노래는 이러한 사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절구를

두번 반복하여 부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감을 시적으로, 형상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려는 철석같은 결의와 뜨거운 열망을 북돋아주는 여기에 이 가사의 사상예술적특성이 있으며 거대한 교양적의의가 있다.

가사문학이 인민대중속에서 사회교양적인 혁명적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는가 하는것은 정치사상성과 함께 예술적형상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좌우된다.

명가사는 그의 높은 정치사상성과 풍부하고 심오한 시적형상성으로 하여 사람들을 가사의 서정세계에 끌어들이며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고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몇줄 안되는 가사에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에 대한 행복한 면도를 노래한다는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노래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큰 범위에서 이모저모로 엮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도무지 몇줄 안되는 가사에 직선적인 말만 가득 채워넣는다면 가사는 매우 딱딱하고 무미건조한것으로 되어버리고말것이다.

그러나 이 가사는 인민대중의 생활과 사상감정,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가사로 될수 있었다.

주체적인 창작리론은 가사는 직선적으로 하지 말고 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 있다.

명가사의 미학적특성은 가장 시적이고 형상성이 높은데 있다.

가사가 직선적으로 되지 말고 형상적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은 대상을 설명할것이 아니라 말하고 저하는 사상의 핵을 잡아 그것을 사람들이 깊이 음미할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집약화하고 운물화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가사에서 설명을 피하고 형상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형상수법들을 적절히 리용하여야 한다.

가사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은 복잡하고 심오한것을 간결하게 함축하여 표현할수 있는 비유와 상징, 생략과 비약 등 형상수법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몇줄 안되는 시행속에 깊은 뜻을 생동하게 담을수 있었다.

가사는 대상을 설명한것이 아니라 가사의 줄마다 음악성이 풍부한 형상적인 말과 고도로 정서화된 시적인 문장으로 간결하게 엮어나가고있으며 가사의 시행을 글자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



어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산문화의 경향을 없애고 가사를 최대한으로 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가사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가사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수 있게 통속적으로 만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가사를 하나 써도 누구나 다 알아볼수 있는 가사를 쓰며 노래를 하나 지어도 누구나 다 부를수 있는 노래를 짓도록 하고있습니다.》**

진실로 사상예술적가치가 높고 인식교양적가치가 큰 작품이 되자면 어디까지나 그 내용과 형식, 표현들이 근로대중의 사상감정과 기호와 취미에 맞으며 그들에게 리해되기 쉽게 씌여져야 한다.

인민대중에게 투쟁의 무기로 복무하는 혁명적인 가사는 사람들의 감정과 기호와 취미에 맞아야 하며 그들이 리해할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말하여 가사가 인민대중이 사랑하며 그들이 리해하기 쉽게 씌여져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예술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세련된것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가사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이 것처럼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행복의 노래로 되고있는것은 그가 담고있는 인민적인 생활감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동시에 그것이 통속적이고 인민적인 형식을 갖추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가사는 시적사상의 명백성과 평이성을 살리고 있을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친숙한 생활적의 말을 많이 찾아쓰고 시적표현을 쉽게 하였다.

흔히 쓰이는 쉽고 평범한 말들이면서도 주제적 내용을 선명하게 돋구어주는 가장 적중하고 전형적인 언어들을 선택하였기때문에 가사는 설명이 아니라 생동한 형상으로 안겨오는것이다.

《어디 가나 기쁨이요 날마다 명절일세》- 이 한구절만 보아도 시대적특성이 얼마나 생동하게 살아있는 기발하고 생신한 표현인가.

《날마다 명절》이라는 형상적표현은 우리 나라

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아래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집걱정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우리 세상에서야 날마다 경사에 날마다 명절이라는데서 한대목을 넣은것이다.

인민대중이 흔히 쓰는 아름다운 인민적인 언어를 훌륭히 다듬어쓴 여기에 이 가사의 인민성과 통속성을 보장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가사의 높은 사상예술성은 내용의 진실성과 함께 언어의 평이성과 소박성, 부드럽고 류창한 운물적특성에 의하여 보장되고있다.

가사는 현실을 서정적방식으로 반영하는 시의 형상적특성을 살리면서 혁명적량만과 풍부한 서정의 조화로운 통일을 완전히 실현하였다.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민족적정취가 풍기는 밝고도 부드러운 서정의 흐름은 거대한 격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가사는 소박하고 류창한 운물적특성을 잘 살림으로써 가사의 밝고 락천적인 감정을 더 두드러지게 정서적으로 심화시키고있다. 가사에서는 민요가 가지고있는 연하고 우아하며 서정적이고 유순한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혁명적서정에 맞는 4·4·3·4조의 음수절을 탐구하였으며 그것을 가지고 시의 호흡에 맞고 내용이 주는 맥박과 정서적파동에 따라 훌륭한 운물을 창조함으로써 풍만한 서정이 흐르게 하고있다.

가사전반에 차넘치는 밝은 색채와 량만적정서, 흥겨운 음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지상락원의 행복한 면모를 힘있게 부각시키고있으며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는 작용을 놓고있는것이다.

가사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은 우리 인민들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줄뿐아니라 래일의 보다 휘황한 생활의 전망을 열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지상락원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로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고무하고있다.